

명상록

Ta eis heauton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저 | 황문수 역 로마제국 5현제 시대의 마지막 황제이자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저서로 당시 경제적, 군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혼명하게 이끌었던 그가 정무에 종사하거나 전쟁에 참여하며 틈틈이 쓴 글이다. 'Ta eis heauton' 즉 '자기 자신에게 전하는'이라는 뜻의 제목에서 보듯 인간 아우렐리우스의 내면의 사상과 고뇌가 오롯이 녹아 있다.



명상록
Ta eis heauton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고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권을 발행하며 4천 권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교도소,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 《명상록》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현대자동차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라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올재에서 퍼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황문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홀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① 02)720-8278 ② www.olje.or.kr ③ olje classics@olje.or.kr

④ @olje classics ⑤ www.facebook.com/olje 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해설

스토아 철학에 대하여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는 제논(336~264 B.C.)이다. 그는 철학과 논리학을 공부하고 후에 스토아(柱廊)에서 반공개적인 강의를 시작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제논 학파라고 일컬어졌으나 후에 강의 장소를 본떠 스토아 학파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제논의 제자 클레안테스(C. 331~232 B.C.)가 스승을 계승하고 다시 크리십포스(282~206 B.C.)가 계승했다. 스토아 철학은 이 크리십포스에 의해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되었다.

이상 세 사람을 흔히 초기(初期) 스토아라고 한다. 이에 대해 중기(中期) 스토아에 속하는 사람들은 파나이티오스(185~110 B.C.)와 그의 제자 포세이도니오스(135~50 B.C.) 등이며, 이들은 모두 로마대 사람으로 로마의 정치가와 친교가 있던 사람들이다. 앞의 제논이나 크리십포스는 페니키아 인이었으나 파나이티오스와 포세이도니오스는 그리스계의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친숙해서 스토아 철학을 상당히 플라톤화 내지는 아리스토텔레스화 시켰다.

후기 스토아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네카,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이다. 스토아 철학은 정치가(세네카), 노예(에픽테토스), 황제(아우렐리우스) 등 어느 누구에게나 알맞은 철학이었던 것 같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학문을 논리학, 자연학(自然學), 윤리학으로 나눈다. 셋 중 어느 것을 중요시하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이를 계란에 비유하여 논리학을 껍질, 윤리학을 흰자위, 자연학을 노른자위라고 본다. 그러나 그들은 대체로 윤리학을 중요시했다. 곧 우리가 어디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윤리의 문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고, 이를 위해 이 우주가 어떤 것인가를 연구하는 자연학이 필요하며, 자연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 논리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의 자연학은 흔히 유물론(唯物論)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유물론이라고 하지만 언제나 로고스로 일관되어 있다. 이 로고스는 물질이어서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실재(實在)이므로 일원론(一元論)이다. 이 실재가 불 → 공기 → 물 → 땅으로 변하고 이러한 것의 혼합에 의해 여러 가지가 파생된다. 따라서 만물은 정신이든 덕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하나의 실재가 변한 것이다. 그리고 만물은 마지막으로는 다시 실재로 돌아가고 거기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된다. 이러한 일은 상상 할 수도 없는 오랜 시기에 걸쳐 주기적으로 되풀이된다. 모든 것이 원래의 실재로 돌아가는 것을 세계 연소(世界燃燒)라고 한다. 이 연소에 의해 만물은 하나의 불같은 것이 되고, 전과 조금도 다름없는 과정을 거쳐 전과 동일한 만물이 생기며, 이것은 다시 원래의 실재로 되돌아가는 과정을 영원히 반복한다(永遠回歸).

이렇게 해서 스토아에서는 모든 것이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말한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숙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주 전체, 곧 신에 의해 결정되었으므로 섭리(攝理)이기도 하다.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섭리에 따를 뿐 다른 길은 없다. 자진해서 섭리에 따르면 사명을 완수하고 운명을 사랑한 것이 된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연(Dhysis)’이라는 말을 잘 쓴다. 보통 자연이라고 하면 산과 강과 대지와 짐승과 초목 등을 포함시켜서 생각하지만, 소크라테스 이전의 헤라클레이토스(535~475 B.C.)의 계통을 잇는 스토아 학파에서는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고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근원적인 것, 또는 능산적 자연(能產的自然)을 의미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자연이라든지 포도의 자연이라고 하는 경우처럼 사물의 ‘본성(本性)’을 의미하기도 한다. 광의의 자연은 종교적으로 말하는 신과 같은 것으로, 그것은 우주, 로고스, 운명과 동일한 것이다.

스토아 학파는—그리고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서도—“자연에 따른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것은 신 또는 우주의 질서에 따르고 그것에 합치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에 따른다”는 것은, 협의로는 각각의 본성에 따르고 그것을 발휘하며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을 예로 든다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것, 곧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이성(理性)을 따르고 발휘하며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은 우주의 이성, 곧 광의의 자연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인간의 이성에 따르는 것은 우주의 이성에 따르고 자연의 본성에 따르는 것이다. 자연이 대우주라면 인간은 그 일부분인 소우주이다. 이러한 스토아 사상이 코스모폴리타니즘, 세계 종교(世界宗教), 세계법(世界法) 등의 사상적 모태임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런데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육체라는 점에서는 동물과 공통되고 영혼이라는 점에서는 신과 공통된다. 스토아 사상은, 영혼은 혈액에서 증발된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우주의 로고스 한 조각이 인간에게 깃들인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성이 깃들어 있는 이상, 인간은 다 같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성별, 계급, 피부 색깔, 국적을 불문하고 동포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스토아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성이라고 한마디로 말하지만 그 작용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칸트에 따르면 인식론적(認識論的)으로는 이론 이성(理論理性), 도덕적으로는 실천 이성(實踐理性)으로 가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가끔 이성을 헤게모니콘(지도적인 것)이라고 부른다. 종교적·윤리적 색채가 농후한 후기 스토아에서는 본심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온갖 욕망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능력으로 스토아 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스토아 학파에서는 외계(外界)는 모두 결정되어 있어서 불변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숙명적인 필연이다. 따라서 스토아 학파에서는 필연을 필연으로 인정하고 운명을 운명으로 받아들일 뿐 외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외계는 우리의 의지

밖에 있어서 우리가 좌우할 수 없는 것이다. 스토아 학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뿐이다. 그러나 일단 철저하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면 외계가 변한 것과 동일한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마음의 전환은 행복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죽음을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생각한다. 혹은 원소(元素)로의 해체(解體)라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나 결국은 원래 것으로의 복귀를 의미한다. 따라서 죽음은 조금도 무서운 것이 아니다. 곧 “무섭다는 사념(思念) 자체가 두려운 것이다”, “공상을 제거한다면 죽음은 자연의 작용이다”, “해체를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등 죽음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을 생각하는 인간의 마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음을 자연의 필연적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러한 전환을 이루면 죽음은 고통스럽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은 영혼의 불멸을 말하지 않는다. 영혼도 육체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원소로 해체된다고 한다.

한편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살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을 자연의 필연적 과정으로 보는 스토아 철학으로서는 이상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사는 것이 신의 명령이라면 죽는 것도 신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완수하고 육체적으로 남에게 폐를 끼칠 만큼 노쇠했거나 병에 걸리면 이 세상에서 떠나가라는 신의 신호로 알고 자살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자살은 제멋대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자살이야말로 우주의 질서, 신의 뜻에 합치하는 것이라 믿으며 죽는 것이다.

또한 스토아 철학에서는 아파테이아 또는, 아타락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전자는 부동심(不動心), 무정념(無情念)이라는 뜻이고 후자는 평정(平靜)이라는 뜻이다. 외계의 사물은 본래 우주의 질서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외물

(外物)을 뒤쫓고 있는 한 대해(大海)의 조각배처럼 동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에 아무런 욕망도 갖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마음의 평화는 교란되지 않는다. 이 마음의 평화가 바로 인간의 행복인 것이다. 원래 악이나 선은 외계의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스토아 철학은 난세(亂世)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극적인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철학, 현실 도피의 철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깔린 달관(達觀)은 결코 소홀히 넘길 수 없는 것이다.

이상으로 스토아 철학을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스토아 철학을 배경으로 해서 《명상록》을 읽으면 그 참뜻을 좀더 깊이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우렐리우스와 《명상록》에 대하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Marcus Aurelius Antoninus, 121~180)의 원래 이름은 마르쿠스 안니우스 베루스 가틸리우스 세베루스로, 121년 4월 26일 안니우스 베루스와 도미티아 루키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안니우스 베루스는 로마의 두 번째 왕인 누마(재위 715~673 B.C.)의 자손이라고 한다. 아버지는 집정관(執政官)의 지위에 있었으나 마르쿠스가 아홉 살 때 죽었다. 어머니는 로마의 유복한 여자 상속인의 한 사람으로, 두 번이나 집정관을 지낸 루키우스 카탈리우스 세베루스의 손녀였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 마르쿠스는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외할아버지도 역시 집정관과 원로원 의원을 지낸 사람이었다.

마르쿠스는 어릴 적부터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귀염을 받았다. 성인식(成人式)을 올린 후 마르쿠스는 하드리아누스의 명령으로 당시 집정관이었던 명문(名門) 루키우스 케이오니우스 콤모도스의 딸 케이오니아 파비아와 약혼을 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죽은 후 왕위를 계승한 안토니누스 피우스는 마르쿠스와 파비아의 약혼을 파기하고 자기 딸인 안니아 갈레리아 파우스티나와 약혼시키고 이듬해 140년에는 재정관(財政官), 다음 해에는 집정관으로 임명하고 145년에는 결혼을 시켰다.

마르쿠스는 열 살 때부터 스토아적 교양을 쌓기 시작했고 열한 살 때는 짚으로 만든 침대에서 모피(毛皮)를 사용하며 겸소한 생활을 했다. 그의 신체는 섬세하고 연약했으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스포츠에 뛰어나 복싱, 레슬링, 달리기를 좋아했다.

그는 가정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내나 자식을 사랑했으며 어머니를 공경했다. 어릴 적에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 그의 짚은 시절의 경건함은 중년에 이르러서 깊은 종교적 정열로 변하는데 이것은 어머니의 감화 때문이었다.

그와 아내 파우스티나 사이에는 열세 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쌍둥이도 몇 쌍 있었다. 그런데 아내는 정숙하지 못했다고 한다.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는 죽음이 가까워지자 측근들을 불러 놓고 정식으로 마르쿠스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161년 3월 7일 피우스 황제가 죽고 마르쿠스가 즉위했다.

황제로 즉위한 후의 마르쿠스의 생활은 다난하여 몇 번의 전쟁을 치렀다.

그는 “철학자가 지배하든지, 지배자가 철학을 하든지 해야만 나라가 번영한다”는 플라톤의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곤 했다.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의 철인왕(哲人王)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근본 사상은 어디까지나 스토아 철학이었고 스토아적 세계 시민(世界市民), 스토아적 박애였다. 그러나 로마는 대국이기는 했지만 한 나라임은 틀림없었고, 그는 현실적으로 로마라는 한 나라의 왕이었다. 결국 스토아적인 것은 그의 이상, 그의 위안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번민하면서도 스토아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바르게 처신하며,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공공의 일을 위해 사재(私財)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180년 마르쿠스 황제는 북방의 전투에서 돌아오던 중 폐스트(?)에 걸려 옛 새를 앓고, 3월 17일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의 빈에서 세상을 떠났다.

마르쿠스의 저서로는 『명상록』이 남아 있는데, 이 『명상록』은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수기(手記)이다. 그밖에 연설, 원로원에 전한 말, 유언, 명언, 편지 등이 약간 남아 있다.

『명상록』은 그가 정무 중이나 혹은 싸움터에서 틈을 내어 쓴 것으로, 전 12장으로 되어 있다. 각 장의 각 절은 모두 짧고 어느 것에나 체험이 담겨 있다. 그러나 제1장을 제외하고는 개인적 기록이 아니다. 또한 체계적으로 12장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쓰다 보니 12장으로 갈라진 것이다.

그의 사상은 후기(後期) 스토아의 특색대로 매우 종교적이고 윤리적이다. 『명상록』을 읽으면 그가 자연계의 사물 하나하나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것을 예술품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찬양하면서도, 그 기조(基調)는 애수 어린 무상관(無常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생성했다 소멸하게 마련이다. 장군도, 의사도, 부자도, 황제도, 생사를 초월했다는 철학자도 죽고 도시는 폐허가 되며 동상은 부서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는 이러한 운명 앞에서 체념하고 '쫓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는' 마음가짐을 강조한다. 결국 그의 근본 사상도 마음이 전부라는 사상으로 집약되는 것이다. 내면으로 파고들라—샘은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우주 로고스의 분신(分身)으로 우주와 상통하는 것이다. 스토아 철학은 코스모폴리탄적 입장에서 박애와 인류애를 강조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토아 철학은 인간 중심의 사상이라는 일면을 갖고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경우 이 박애는 더욱 현저하다. 죄인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만이 갖는 특성이라고 그는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기독교와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지만 결코 기독교적인 것은 아니다. 그가 받은 교육은 전적으로 그리스적이었고 스토아적이었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의 박해자였다. 그의 인류애와 박애는 기독교와는 근원이 달랐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사상은 플라톤과 차이가 있다. 플라톤에게는 인류애나 세계시민이나 박애 사상은 없었다. 플라톤은 단지 한 나라를 강하게 하고 잘 다스리는 것이 문제였지, 적을 사랑한다든지 박애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에는 무사 계급이 있고 따라서 국방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의 입장에서는 국방이나 군인은 있을 수 없다. 스토아 철학은 사해동포(四海同胞)와 세계 시민을 강조하며, 따라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경우에는 적조

차도 동포처럼 사랑하려는 일면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철학자 아우렐리우스는 적을 사랑하고 세계 시민을 말할 수 있어도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국경을 지키고 영토를 넓히기 위해 스스로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궁정(宮廷)과 철학을 계모와 친모에 비교한 바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이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현실과 이상의 틈에 끼어 고뇌하는 인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우리는 《명상록》에서 이러한 그의 육성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명상록》은 바쁜 시간을 쪼개서 틈을 내어 쓴 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 책에는 그가 철저하게 연구한 스토아 철학이 담겨 있고 또한 어릴 적부터 익힌 수사학(修辭學)의 솜씨도 만만치 않다. 비록 짧은 명언 같은 절(節)로 이루어지고 앞뒤의 체계가 정연하지는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실이 넘쳐흐르고 깊은 맛이 담겨 있다.

차례

해설	5
스토아 철학에 대하여	5
아우렐리우스와 《명상록》에 대하여	10
제 1 장	16
제 2 장	26
제 3 장	34
제 4 장	43
제 5 장	59
제 6 장	73
제 7 장	89
제 8 장	106
제 9 장	123
제 10 장	137
제 11 장	152
제 12 장	166

제 1 장

1 나는 배웠다.¹ 베루스 할아버님에게서 격정을 누르는 고상한 참을성을.

2 아버님²에 관한 평판과 그분에 대한 나의 추억으로부터는 겸손과 사내다운 성격을.

3 어머님에게서는 신앙심과 자비심, 그리고 비단 나쁜 행동만이 아니라 나쁜 생각도 삼가는 절제를, 더 나아가 부유한 생활에 탐닉하지 않는 겸소한 생활 태도를.

4 증조부님에게서는 학교에 자주 나가는 것보다는 훌륭한 선생을 집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이러한 일에는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5 스승에게서는 원형 경기장(圓形競技場)의 경기에서 녹파(綠派)나 청파(青派)에 가담하지 말고, 검투사(劍圖士)의 싸움에서 작은 방패의 검사단(劍士團)이나 큰 방패의 검사단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³ 또한 노고(勞苦)를 감내(勘耐)하고 욕망을 줄이며 내 손으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비방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6 디오게네투스⁴에게서는 사소한 일로 마음을 어지럽혀서는 안 되며 마술사들이나 협잡꾼들이 말하는 주술(咒術)이나 악마를 내쫓는 주문(呪文) 등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싸움을 시키기 위해 메추라기를 기르거나 이러한 일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자유로운 언론을 참고 견디어야 한다는 것, 철학과 친숙해야 한다는 것, 처음에는 바키우스의 가르침을, 다음에는 탄다시스와 마르키아누스⁵의 가르침을

1 제1장에서는 각 절에 이 말을 보충해서 읽어야 한다.

2 실부(實父) 안토니누스 베루스를 말한다.

3 원형 경기장의 경기자나 검사들은 녹색 옷이나 청색 옷을 입거나, 휴대한 방패의 크고 작은으로 각 팀을 구별했다.

4 아우렐리우스의 미술 선생.

5 바키우스와 탄다시스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고, 마르키아누스는 2~3세기 초에 걸쳐 활약한 법률학자인 것 같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짚을 때에 대화편(對話篇)⁶을 써야 한다는 것, 맨몸으로 널 빤지로 만든 침대에서 자거나 기타의 모든 그리스 식의 단련을 싫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7 루스티쿠스⁷에게서는 내 성격에 개선할 점과 단련해야 할 점이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그에게서 농변(弄辯)에 빠져서 타락하거나 사면적(思辨的)인 문제에 대해 글을 쓰거나 훈계조의 연설을 하거나 정진(精進)하는 사람이라고 뽑내거나 자랑삼아서 자선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 수사학(修辭學), 시, 정교한 문장을 삼갈 것, 외출복을 입고 집 안을 돌아다니거나 이와 비슷한 일을 하지 말것, 루스티쿠스가 시누엣사⁸에서 어머님에게 보낸 편지처럼 간절한 편지를 쓸 것, 말이나 나쁜 행동으로 화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화해할 기미를 보이면 곧 서슴지 않고 화를 누르고 화해할 것, 책을 읽을 때에는 주의 깊게 읽고 피상적인 이해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다스러운 사람에게는 성급하게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의 권고로 에피테토스와 《어록(語錄)》을 알게 되었는데, 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장서를 나에게 갖다 주었다.

8 아폴로니우스⁹에게서 나는 의지의 자유와 확고한 불변의 결의를 배웠다. 또한 이성(理性) 이외의 어떠한 것에도 잠시나마 의지해서는 안 되며, 빼저린 고통을 당하거나 자식을 잃었거나 오래도록 병을 앓는 경우에도 언제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를 생생한 모범으로 삼아, 동일한 사람이 가장 단호할 수도 있고 가장 온화할 수도 있으며 아낌없이 가르침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다. 또한 철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재주를 가장 보잘것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또한 나는 친구들이 호의를 보일 때, 어떻게 하면 비굴하거나 또는 무시하지 않고 그 호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6 플라톤의 《대화편》과 같은 형식의 글을 말한다.

7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8 라티움 지방 최남단의 해변 도시.

9 카르케돈 출신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를 그에게서 배웠다.

9 섹스투스¹⁰에게서는 관대한 마음과 아버지다운 태도로 다스리는 가정의 본보기와 자연을 따라 사는 사상¹¹을, 또한 편애에 흐르지 않고 신중해야 하며 친구들의 관심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무식한 사람이나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의견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쉽게 모든 사람과 사귀는 힘을 갖고 있어서 그와의 사귐은 어떤 아침보다도 더 즐거운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그와 사귀는 사람들로부터 최대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지적이고 분석적인 방식으로 삶의 필수적인 원칙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분노나 기타의 격정을 나타낸 적이 없으며, 정념(情念)에 흔들리는 일이 전혀 없었고 언제나 친절했다. 그리고 그는 칭찬을 하는 경우에도 떠들썩하게 과시하지 않았으며, 그는 심원한 학식을 갖고 있었으나 허세를 부리지 않았다.

10 문법학자 알렉산드로스¹²에게서는 남의 흄을 잡아 내서는 안 되며, 야비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거나 이상한 말¹³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꾸짖어서 창피를 주지 말고 대답이나 확인이나 말이 아닌, 문제 자체를 함께 고찰하는 방식으로, 또는 적절한 암시에 의해서 올바른 표현을 재치있게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을.

11 프론토¹⁴에게서는 폭군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시기심, 표리부동한 마음, 위선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 사이에서 귀족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오히려 아버지다운 사랑이 모자란다는 것을.

10 그리스 출신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11 스토아 학파는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생활로 보았다.

12 아우렐리우스와 그의 형제들의 스승.

13 여기서는 라틴어나 그리스어가 아닌 언어를 말한다.

14 수사학자.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존경한 스승.

12 플라톤파의 알렉산드로스¹⁵에게서는 여가가 없다는 말을 자주 하거나 꼭 필요 한 경우가 아닌데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거나 편지에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긴급한 용무가 있다고 평계를 대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생기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끊임없이 사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13 카톨루스¹⁶에게서는 친구가 비난을 할 때에는 그 친구의 비난에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지 말고 친구가 원래의 기질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스승에 대해서는 도미티우스와 아테노도투스¹⁷ 사이에서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찬양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14 나의 형제 세베르투스¹⁸에게서는 가족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으며, 그를 통해서 트라세아, 헬비디우스, 카토, 디온, 브루투스¹⁹를 알았다. 그리고 그에게서 만인 평등의 법률이 있는 정체(政體), 평등한 권리와 동등한 언론의 자유로써 다스려지는 정체가 지닌 사상과 피치자의 모든 자유를 가장 존중하는 제국(帝國)이라는 사상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에게서 철학에 대한 일관되고 빛나가지 않는 확고한 존경심을, 착한 일을 하고 아낌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훌륭한 희망을 품고 친구들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기질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에게서 남을 비난하는 데 자신의 의견을 숨기지 않으며 친구들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추측할 필요가 없을 만큼 매사를 분명히 하는 인품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15 철학자로서 174년 이후로 아우렐리우스의 비서로 일했다.

16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17 도미티우스는 아우렐리우스의 외가 쪽 선조인 듯하며, 아테노도투스는 프론토의 스승인 듯하다.

18 폐리파토스파의 철학자. 그의 아들은 아우렐리우스의 사위가 되었다. 아우렐리우스는 친밀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나의 형제’라고 부른 것이다.

19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 아우렐리우스는 그를 집정관(執政官)으로 임명했다.

15 막시무스에게서 나는 극기심(克己心)과 어떠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나는 그에게서 어떠한 사정에서든 심지어 앓을 때에도 쾌활한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친절하고 위엄 있는 도덕적 성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자신에게 닥친 일은 무엇이든지 불평 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말과 생각이 일치하여 어떠한 일을 하든 악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또한 그는 대경실색하거나 서두르거나 일을 미루거나 당황하거나 낙담하거나 원통함을 감추기 위해 웃거나 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고 걱정에 사로잡히거나 의심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항상 관대했고 쉽게 용서했으며 거짓을 모르는 성품이었다. 그는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였다. 또한 나는 누구도 그에게 멀 시받거나, 감히 그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유쾌하고 익살스러운 사람이었다.²⁰

16 나는 아버님²¹에게서 온화하면서도 숙려 끝에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보이는 인품을 보았다. 나는 그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일에 대해 허영심을 품지 않고 근로와 불굴의 노력을 사랑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안에는 어떠한 것에도 귀를 기울이고 각자의 공적에 따라 대접하는 인품과 정력적으로 활동할 때와 쉴 때를 가리는, 경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가 소년들에게 갖는 온갖 열정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시민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 식사를 같이하자고 강요하지 않았고 그가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수행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으며, 급한 사정이 생겨서 동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언제나 변함없는 태도로 대했다. 또한 그가 모든 심의 문제(審議問題)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습관과 끈기를 갖고 있었으며, 얼핏 떠오른 생각에 만족하고 조사를 멈추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의 성격은 친구들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에게 삶증을 내거나

20 일역판(日譯版)에서는 이 부분에 원문 결손(原文缺損)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1 양부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를 가리킨다.

지나치게 해프지 않아 언제나 만족스러워하고 쾌활했으며, 먼 앞날의 일을 예견하고 아주 작은 일에까지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값싼 칭찬이나 아첨은 당장 가려 낼 줄 알았고 언제나 제국(帝國)의 통치에 필요한 일에 세심한 배려를 하여 재정(財政)을 능숙하게 관리했으며, 이 때문에 비난을 받더라도 끈기 있게 참았다. 그는 신들에 대해서도 미신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선물을 주거나 기분을 맞추어 줌으로써 사람들을 유혹하지도 않았으며 대중에게 아첨하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무슨 일에 대해서든 침착하고 확고했으며 야비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고 호기심에 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일용품을 풍부하게 쓸 수 있는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이를 자랑하거나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일용품이 있으면 자연스러운 태도로 사용했고, 없을 때에도 갈구하지 않았다. 그를 소피스트, 또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경망스럽고 죄대 없는 사람, 또는 공론가(空論家)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누구든 그가 노련하고 완숙하며, 아첨에 개의치 않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일을 능란하게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는 참된 철학자를 존중했고, 철학자인 체하는 사람을 비난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사이비 철학자에게 쉽게 말려들지도 않았다. 또한 그는 대화에 능했고 언제나 쾌활했으며 거드름을 피우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건강을 합리적으로 돌보았는데, 생명에 집착하거나 개인적인 체면을 고려해서가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이런 것을 전혀 무시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스스로 조심함으로써 의사의 기술이나 약이나 외과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는 응변이나 법률·도덕에 대한 지식 등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심 없이 받아들이고, 각자가 그들의 재능에 합당한 명성을 얻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국가의 제도에 순응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과시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변화나 불안정을 좋아하지 않았고, 같은 장소에 머무르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것을 좋아했다. 두통이 발작하는 경우에도 곧 신선한 정력을 회복해서 일상의 직무를 수행했다. 비밀은 매우 적고 드물었으며, 이 비밀조차도 공공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공적인 행사, 공공건물의 건축, 국민에 대한 기부, 기타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경우에도 신중하고 검소했다. 그는 반드시

해야 할 일만을 고려할 뿐, 어떤 행동을 통해 명성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목욕하는 일은 없었다. 그는 집을 짓는 데 재미를 느끼거나 식도락, 옷감, 색깔 등에 개의하는 일이 없었고, 노예의 미색을 탐하지도 않았다. 그의 옷은 해안 지방인 로리움²²에 있는 별장에서 가져왔고, 일상용품은 라누비움²³에서 가져왔다. 우리는 투스쿨룸²⁴의 토지 관리인이 그에게 용서를 벌였을 때, 그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알고 있다. 그의 행동은 언제나 이러했다. 그는 거칠거나 무자비하거나 난폭한 경우가 전혀 없었고,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땀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는 듯이 모든 일을 엄격하게, 혼동 없이, 질서정연하게, 정력적으로, 끈질기게 검토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약해서 삼가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향락하기 마련인 일들을, 삼갈 때에는 삼가고 즐길 때에는 즐길 줄 알았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이거니와, 이 말은 그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병중의 막시무스가 보여 준 바와 같이, 어떤 일이든 충분히 참을 만큼 강하면서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침착하다는 것은 완숙하고 불요불굴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보여 주는 특징이다.

22 아우렐리아에 있는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별장 소재지.

23 라티움에 있는 도시. 피우스의 출생지.

24 로마 동남쪽 약 20km 지점에 있는 옛 도시.

17 나는 훌륭한 조상, 훌륭한 어버이, 훌륭한 형제, 훌륭한 스승, 훌륭한 동료, 훌륭한 친척과 친구들 등 좋은 것은 거의 모두 갖게 해 주신 신들께 감사한다. 나는 기회만 있으면 위에 말한 분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이분들의 노여움을 사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그것은 신들의 은총이 있어서 나를 시련 속으로 몰아넣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조부의 소실 곁에서 장기간 양육되지 않고 청춘의 꽃을 오래 간직하며, 적절한 때가 오기 전에 동정(童貞)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시기를 늦춘 것을, 또한 나의 모든 자존심을 제거해 준 지배자이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그 때문에 나는 궁전에 살면서도 호위병이나 화려한 옷이나 횃불이나 동상, 기타 이러한 종류의 사치품을 탐내지 않고 살아가는 슬기를 배웠고, 따라서 백성들의 생활과 차이가 없는 생활을 하면서도 이 때문에 사상이 더 야비해지거나 지배자다운 태도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에 부딪쳐서 행동을 계획하는 일은 없었다. 나는 도덕적 성품으로써 나에게 반성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고 동시에 존경과 애정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 준 동생이 있는 것과, 내 자식들이 우둔하거나 불구가 아닌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또한 내가 수사학, 시, 기타의 학문에 집착하지 않았던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만일 수사학, 시, 기타 학문에서 진보를 보였더라면, 나는 아마도 이 일에 전념했을 것이다. 나를 가르쳐 준 사람들을 서둘러서 그들이 원하는 지위에 앉힌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따라서 당시 그들은 젊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내가 그들이 원하는 지위를 주리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아폴로니우스, 루스티쿠스, 막시무스를 알게 되고, 자연에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 명백하고 빈번한 인상을 받은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신들과 신들의 은총 · 도움 · 영감에 의지하는 한 내가 자신의 잘못으로 아직 자연에 따르는 생활에 미치지 못하고, 신의 타이름을 깨닫지 못했더라도 신들의 직접적인 가르침—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에 의해 자연에 따라 생활하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육신이 이러한 생활을

오랫동안 감당해 낸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내가 베네딕터²⁵나 테오도투스²⁶와 접촉한 적이 없고 격렬한 연정에 사로잡혔다가도 빠져 나올 수 있었던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나는 가끔 루스티쿠스를 화나게 만들었으나 후회할 일을 저지른 적은 한번도 없었고,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실 운명이었으나 마지막 몇 년 동안을 나와 함께 지내셨으며, 내가 곤궁한 자나 그 밖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할 때면 언제나 그들을 도와줄 만한 방도가 마련되어 있었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절박한 사정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으며. 온순하고 상냥하며 검소한 아내를 맞이했고, 자식들에게는 훌륭한 스승들이 언제나 곁에 있었던 것을, 꿈을 통해 여러 가지 치료법은 물론 각혈과 현기증에 대한 치료법을 보여 준 것을 신들께 감사한다. 나는 철학에 관심을 가졌지만 소피스트에게 말려들지 않았으며, 연대기(年代記) 작가들이나 삼단논법의 해결에 공연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천체의 현상에 대한 조사에 열중하지 않았던 것 등 이러한 모든 일은 신들과 행운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라누아 강기슭²⁷, 콰디족(族)²⁸의 마을에서 쓴

25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첨.

26 확실하지는 않으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총애한 시녀였다는 설이 있다.

27 그라누아 강은 도나우 강의 지류이다.

28 콰디족은 그라누아 강 서쪽(현재의 체코슬로바키아)에 살고 있던 게르만족의 일부이다.

제 2 장

1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당신 자신에게 타일러라. 나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건방진 사람, 사기꾼, 시기심 많은 사람, 비사회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선의 본질은 아름답고 악의 본질은 추하며,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의 본성도 단지 같은 피와 같은 근원에 속하기 때문이 아니라 같은 이성과 같은 신성(神性)의 일부를 분유(分有)하고 있으므로 나와 동류(同類)라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지 않는다. 때문에 아무도 나를 추악한 일에 끌어들일 수 없고, 또한 나는 나의 동류에게 화를 내거나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들은 발처럼, 손처럼, 눈꺼풀처럼, 윗니와 아랫니처럼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서로 불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자연에 어긋나는 짓이다. 상호 간에 불리한 행동이란 화를 내고 외면하는 일이다.

2 내가 어떠한 사이든 간에 조그만 육체와 호흡(생명), 그리고 지배적 부분(이성)에 지나지 않는다. 책을 벼려라. 마음을 산란하게 만들지 말라. 이런 일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마치 임종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육신을 경멸하라. 육신은 피, 뼈, 망상조직(網狀組織), 정맥과 동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호흡도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 공기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항상 동일하지 않고 언제나 뱉어내고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지배적 부분이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당신은 이미 노인이다. 이 부분을 노예로 만들지 말고 비사회적인 운동을 위해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지 말며, 현재의 운명에 불만을 품거나 미래에 대해 위축되지 말라.

3 신이 만든 만물은 섭리로 가득 차 있다. 운명 때문에 일어나는 일도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섭리가 다스리는 사물과 뒤엉키고 얹혀 있다. 만물은 섭리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밖에도 필연이 있으며, 그것은 당신 자신도 그 일부인 전 우주의 이익이 되는 것이다. 전체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본성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은 자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선(善)한 것이다.

그런데 우주는 원소의 변화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원소 합성물의 변화에 의해서 보존된다. 이러한 원리에 만족하고 언제나 이를 당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라. 그러나 불평을 하면서 죽지 않고 유쾌하고 참되게, 그리고 충심으로 신들에게 감사하면서 죽으려면 책에 대한 갈망을 버려라.

4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러한 일들을 지체해 왔는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신들로부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는가를 상기하라. 결국 이제는 당신 자신도 그 일부분인 우주가 무엇이며, 당신의 존재는 그 한 방울의 유출물에 지나지 않는 우주의 지배자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당신에게 허용된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름을 몰아내는 데 이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시간은 흘러가고 당신도 사라져 버리며 두 번 다시 되돌아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다.

5 언제나 로마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일은 완전하고 단순한 품위와 애정과 자유와 정의를 갖고 행하고, 다른 모든 생각을 버리고 당신 자신에게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확고하게 고려하라. 그리고 마치 최후의 순간인 것처럼 모든 경솔한 짓, 이성의 명령에 어긋나는 결정적인 일탈(逸脫), 위선, 이기심, 주어진 운명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해방되어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을 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휴식을 줄 수 있다. 당신은 조용히 흘러가는 신의 존재와도 같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간이 극복해야 할 일이 얼마나 적은가를 알고 있지 않은가. 신은 이러한 일들을 준수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의 일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6 나의 영혼이여, 그대 자신을 학대하라, 그대 자신을 학대하라. 그러나 그대 자신을 찬양할 기회는 다시 갖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생애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이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당신의 행복을 맡겨 놓았다 하더라도 당신의 생애는 거의 막을 내리려고 한다.

7 당신에게 닥쳐오는 외부의 일이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는가? 새롭고 좋은 다른 일을 배울 시간을 갖고, 공연히 우왕좌왕하지 말라. 그러나 이때 당신은 반드시 다른 잘못도 회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활동으로 말미암아 삶에 지치고, 그러면서도 그때그때의 목적, 요컨대 모든 상념의 목적이 없는 자는 역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8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불행해질 것이다.

9 만유(萬有)의 본성은 무엇인가, 나의 본성은 무엇인가, 나의 본성은 만유의 본성과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본성은 어떤 종류의 본성의 어떤 부분을 이루고 있는가—이러한 점을 항상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이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본성에 따라 항상 행하고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10 테오프라스토스¹는 악한 행동을 비교하면서—인간의 상식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이지만—참된 철학자답게, 욕망 때문에 저지른 잘못은 분노 때문에 저지른 과오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분노로 말미암아 흥분한 사람은 일정한 고통과 무의식적인 가책을 받으면서 이성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만, 욕망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쾌락에 암도되어 그 과오에 있어서 더욱 무절제하고 더욱 나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쾌락이 따르는 잘못은 고통이 따르는 쾌락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의 말은 정당하고, 어느 면에서는 철학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한다면, 후자는 우선 괴롭힘을 받고 고통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과 흡사하고, 전자는 자신의 충동에 따라 부정한 짓을

1 테오프라스토스(C. 372~288 B.C.)는 아리스토텔레스를 창시자로 하는 이른바 소요 학파의 대표적 철학자이다.

저지르려고 하며 욕망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11 바로 이 순간에 이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처럼 모든 일을 행하고 생각하라. 그러나 신들이 존재한다면 사람들 곁에서 떠나는 것은 조금도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신들은 당신을 악(惡) 속으로 끌어들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사실상 신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인간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신이 없거나 섭리가 없는 우주에 산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그러나 진실로 신들은 존재하고 인간의 일들을 돌보며, 사실상 인간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간의 능력 속에 모든 수단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의 어떤 다른 악이 있다면, 신들은 이러한 악에도 빠지지 않게 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마련해 주실 것이다. 인간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신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나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만유의 본성이 무지 때문에 이러한 악들을 간과한다는 일은 불가능하며,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악을 막아 내거나 바로잡을 힘이 없어서 간과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무력하고 재주가 없기 때문에 만유의 본성이 선과 악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낳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히 죽음과 삶, 영광과 불명예, 고통과 쾌락,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를 더 훌륭하게 또는 더 나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인과 악인에게 동등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선도 악도 아니다.

12 우주에 있어서는 사물 자체가, 시간에 있어서는 이 사물들에 대한 기억이 얼마나 재빨리 사라져 버리는가. 모든 감각적 사물의 본성, 특히 쾌락을 미끼로 유혹하거나 고통에 의해 위협하거나 허망한 명성으로 떠들썩한 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열하며 더럽고 덧없으며 메말랐는가. 이러한 모든 일을 깨닫는 것이 이성의 기능의 한 부분인 것이다. 의견이나 발언을 통해 명성을 얻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죽음 자체만을 보고 반성이라는 추상적인 능력에 의해 죽음과 관련되어 연상되는 모든 것을 분리해 버린다면, 죽음은 자연의 작용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어 자연의 작용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린애 같은 것이며, 죽음은 자연의 작용일 뿐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신성(神性)에 접근하는가, 인간의 어떤 부분에 의해서인가,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상태에 놓였을 때인가를 가려내는 것이 이성의 기능이다.

13 만물을 두루 살피고, 어떤 시인²의 말처럼 지하의 일을 기웃거리는 사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신령(이성)을 섬기며 진정으로 공경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모르고 공연히 이웃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추측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신령을 공경하려면 정념, 무분별, 그리고 신과 인간이 하는 일에 대한 불평불만을 삼가고 순수성을 유지하면 된다. 신이 하는 일은 그 탁월성 때문에 존중해야 하고, 인간이 하는 일은 동류(同類)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영해야 한다. 물론 때로는 어떤 점에서 인간이 하는 일은 선악에 대한 인간의 무지로 말미암아 가련히 여겨야 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결함은 흑백을 가리는 능력을 빼앗긴 경우에 못지않은 것이다.

14 당신이 3천 년을 산다 하더라도, 아니 3만 년을 산다 하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삶 이외의 다른 삶을 잊거나, 지금 잊은 삶 이외의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따라서 가장 길거나 가장 짧거나 마찬가지이다. 소멸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는 만인에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멸되는 것은 단지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과거나 미래를 상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빼앗아 갈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다음의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만물은 영원한 옛날로부터 동일한 형태를 갖고 순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간이 동일한 사물을 백 년 동안 또는 2백 년 동안, 아니 영원히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둘째는 가장 장수한 사람도,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상실한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현재만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며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상실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

2 그리스의 시인 편타로스(518~438 B.C.)가 한 말이다.

이라면, 현재는 인간이 빼앗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15 모든 것은 의견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하라. 키니코스 학파의 모니모스³가 말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말이 진실한 이상 사람들이 이 말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이 유용하다는 것도 명백하다.

16 첫째로 인간의 영혼은 그것이 종기가 되고, 말하자면 가능한 한 우주에 생긴 종양(腫瘍)이 될 때 영혼 자신을 괴롭힌다. 생기(生起)하는 것에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다른 모든 것의 본성을 그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어떤 사람을 외면하거나 분노한 사람의 영혼처럼 해칠 뜻을 갖고 대결할 때, 셋째로 쾌락이나 고통에 압도되었을 때, 넷째로 진지하지도 못한 일을 행하거나 말하는 데 가담했을 때, 다섯째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목적과의 관련 밑에서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그것이 어떤 일인가를 고려함이 없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영혼은 자기 자신을 괴롭힌다. 그런데 이성적 동물의 목적은 가장 오래된 도시와 정체(政體)⁴의 이법(理法)과 법칙을 지키는 것이다.

17 인간의 삶에 있어서 시간은 점이고 실체는 유동(流動)하는 것이며, 지각은 혼탁하고 육체 전체의 구조는 부패하며, 영혼은 회오리바람이고 운명은 예측하기 어려우며, 명성은 불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육체에 속하는 것은 모두 흐르는 물과 같고 영혼에 속하는 것은 꿈이요 연기이며 삶은 전쟁이고 나그네의 일시적 체류이며, 후세의 명성은 망각이다. 그렇다면 인간을 인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단 한 가지 철학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의 신령을 모독하지 않고 상처내지 않으며 고통과 쾌락을 초월하고 목적 없이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허위나 위선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을 때, 또한 일어나는 모든 일, 할당된 모든 일을 그곳이 어디

3 디오게네스의 제자. 시무라쿠사 출신인 그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모두 망상이라고 말했다.

4 우주를 말한다.

든 간에 자기 자신이 온 곳으로부터 일어나는 일로서 받아들일 때, 끝으로 죽음은 모든 생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분해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릴 때 철학이 가능하다. 그런데 끊임없이 다른 것으로 변화하는 원소 자체가 악이 아니라면, 왜 인간은 모든 원소의 변화와 분해를 염려해야 할 것인가? 죽음은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며,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일에는 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카르누톰에서 씀

제 3 장

1 우리는 우리 생명이 하루하루 소비되며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남보다 더 장수하는 경우, 과연 사물을 파악하는 충분한 이해력도 그만큼 지속되고 신과 인간에 대한 관조(觀照)의 힘도 그만큼 보존되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은 노망을 부리기 시작하더라도 호흡, 소화, 상상력, 욕구,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에는 이상이 없다. 그러나 자신을 선용(善用)하고 자신의 의무를 남김없이 헤아리며 모든 현상을 명백히 가려내고 지금이 목숨을 버려야 할 때인가를 분별하는 능력과, 그밖에 훈련된 이성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일은 쇠퇴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물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일 먼저 소멸하기 때문이다.

2 또한 우리는 자연에 따라 만들어진 사물에 부수(附道)하는 것에도 즐거움과 매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뺨을 구울 때 어떤 부분이 갈라지는데, 이렇게 갈라진 부분도 뺨 굽는 사람의 의도와는 어긋나지만 일정한 모양을 갖추게 되어 이 부분도 일종의 아름다움을 갖고 특수한 방법으로 식욕을 자극한다. 또한 무화과나무 열매는 익으면 터지고, 다 자란 올리브나무도 썩기 직전이 되었을 때 그 열매는 각별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고개 숙인 벼 이삭, 사자의 눈썹, 맷돼지 입에서 흘러내리는 거품, 그 밖의 여러 가지 것—이러한 것들을 따로 떼어 내서 살펴본다면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자연에 의해 형성된 사물에 부수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 형성된 사물을 돋보이게 하고 그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주 안에 생긴 사물들에 대해 감수성과 깊은 통찰력을 갖는다면, 부수적으로 생긴 사물로서 다소간의 즐거움도 주지 않는 것은 거의 없으리라. 따라서 그는 야수가 실제로 입을 크게 벌린 것도 화가나 조각가가 상상에 의해 그려 놓은 것과 다름없이 즐겁게 바라볼 수 있으리라. 또한 그는 늙은 부인이나 늙은 남자에게서도 일종의 성숙감(成熟感)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리라. 또한 그는 어린이들의 귀여운 매력을 순결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만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그 작품에 진실

로 친밀감을 갖는 자에게만 자신을 드러내리라.

3 히포크라테스¹는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 주었지만 자신은 병사(病死)했다. 칼데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의 죽음을 예언했으나 결국 그들 자신도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알렉산드로스, 폼페이우스, 가이우스 카이사르²는 수많은 도시를 연달아 완전히 파괴하고 싸움터에서 수만의 기병과 보병을 무찔렀지만, 결국 그들도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헤라클레이토스³는 우주의 ‘큰 불’에 대해 사색을 거듭한 끝에, 몸속에 물이 가득 차서 더러운 진흙을 뒤집어쓰고 죽었다. 그리고 이(風)는 데모크리토스⁴를 희생시켰다. 또 다른 이는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이러한 모든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당신은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해안에 이르렀다. 밖으로 나가 보자. 과연 내세(來世)가 있다면 그곳이라고 신들이 없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감각이 없는 상태에 이른다면, 당신은 고통이나 쾌락에 번통당하고 고통이나 쾌락이라는 배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배를 움직이는 탁월한 것에 비교하면 이 배는 열등한 것이다. 전자는 이성이고 신성(神性)이고, 후자는 흙이요 부패이기 때문이다.

- 1 히포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위대한 의사이다. 기원전 460년경에 태어났다고 한다.
- 2 알렉산드로스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며, 가이우스 카이사르는 유명한 시저를 말한다.
- 3 헤라클레이토스는 그리스 초기의 자연철학자. 그는 불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했다. 곧 모든 것은 불로부터 생긴다는 만물유전설(萬物流轉說)로 유명하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그의 최후는 사실이 아닌 듯하다.
- 4 데모크리토스는 그리스 고대 철학의 원자론자(原子論者). 여기서 말한 그의 최후는 사실이 아닌 듯하다. 다만 다음에 소크라테스를 죽인 것도 ‘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참소당해 죽었다는 뜻인 듯하다.

4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쓸데없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 당신의 남은 생애를 허비하지 말라.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을까—그밖에 우리의 지배적인 힘(이성)을 어지럽히는 온갖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신은 다른 일을 할 기회를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목적이 없고 무익하며 기껏해야 지나친 호기심에서 나온 해로운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갑자기 “당신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더라도 곧 가장 솔직담백하게 “이러이러한 일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일만을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을 들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단순하고 자애로우며 사회적 동물에게 어울리는 일이고 쾌락이나 감각적 향락과 관련된 생각이 아니며, 또한 적대감 혹은 질투나 의심, 기타 당신 마음속의 생각을 털어 놓고 나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져야 한다. 서슴지 않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사제(司祭)나 신들의 종복(從僕)과 같아서, 자기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쾌락에 더럽혀지지 않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해를 입지 않으며, 어떠한 모욕도 개의치 않고 나쁜 일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가장 고귀한 투쟁을 하고 있는 투사로서 어떠한 정념에도 정복당하지 않고 마음속까지 정의로 가득 차 있으며,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거의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그는 만유(萬有)로부터 할당된 일만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공평한 행동을 하며, 자기의 운명은 훌륭한 것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각자에게 할당된 운명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으며 그 운명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모든 이성적 동물은 동류(同類)이며, 따라서 만인을 돌보는 일은 자연에 따르는 것임을 상기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만인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 아니라, 다만 자연에 순응하여 사는 사람들의 의견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자연에 순응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는 이러한 사람들이 집에서나 집 밖에서, 또한 밤이나 낮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불결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결심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사람들의 칭찬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5 부지중에, 또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함이 없이, 또는 신중한 음미도 없이, 또는 오락삼아서 일하지 말라. 당신의 생각을 정교하게 장식하지 말며 수다를 떨지 말고 공연한 일로 수선을 피우지 말라. 또한 당신의 마음속의 신성(神性)을 삶의 수호자로 삼아라. 그래서 남자답고 성숙한 나이가 되어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로마인으로서 마치 죽음이 부르는 신호를 기다리다가, 어떠한 맹세나 증인도 필요 없을 만큼 담담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기 자신의) 지배자가 되라. 또한 쾌활하라. 그리고 남의 도움이나 남이 주는 안식을 구하지 말라. 따라서 스스로의 힘으로 곧바로 서야지 남의 힘을 빌어서 곧바로 서서는 안 된다.

6 인간의 생활 속에서 정의 · 진리 · 절제 · 불굴의 정신보다 더 좋은 일, 요컨대 당신이 올바른 이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과 당신의 호오(好惡)를 불문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제약들에 대해 당신의 마음이 자족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면, 다시 말하거나 위에서 말한 것보다 더 좋은 일을 보았다면, 당신의 모든 영혼을 이 일에 기울여서 당신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즐겨라.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신성, 당신의 모든 요구를 복종시키고 모든 상념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감각적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신들에게 순종하고 인류를 고려하게 하는 신성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면, 그 밖의 모든 것은 신성보다는 사소하고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신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말라. 만일 당신이 한번 흐트러져서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일에 기울어지게 된다면, 당신은 혼란을 겪지 않고서는 당신의 고유한 재산이며 바로 당신의 것인 선(善)을 존중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종류의 일, 곧 많은 사람의 찬양이나 권력이

나 추구 등이 이성적·정치적·실천적인 선과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올바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일은, 비록 어느 정도 보다 좋은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우월해져서 우리를 일탈(逸脫)하게 만든다. 그러나 나는 말하거나와, 당신은 단순하고 자유롭게 보다 좋은 일을 선택하고 이를 견지해야 한다. 그러나 유용한 것은 바로 보다 좋은 것임을 잊지 말라. 그렇다면 이성적 존재로서의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 있거든 이를 간직하라. 그러나 동물로서의 당신에게 유용한 것이 있거든 그렇다고 말하고 겸손하게 당신의 판단을 고수하라. 다만 주의를 기울여서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

7 약속을 어기고 자존심을 잃고 남을 미워하고 의심하고 저주하며 위선을 행하는 등, 벽과 커튼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평가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성과 신령(神靈)을 좋아하고 신령의 탁월함을 예찬하는 자는 비극적 역할을 하는 일이 없고 탄식하지 않으며, 고독하지도 않고 많은 교제가 필요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죽음을 추구하지도 피하지도 않으면서 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기간이 긴가, 또는 짧은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당장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 하더라도 마치 품위와 절도(節度)를 잃지 않고 항상 하는 일을 처리하듯이 담담하게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그의 사상이 이성적 동물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벗어나는 일이 없기만을 조심하면서.

8 정진(精進)과 정화(淨化)를 계을리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부패나 불결, 그 밖의 숨겨진 상처를 찾아낼 수 없다. 또한 그의 생애는 운명이 닥쳐왔을 때, 연극도 끝나지 않고 막도 내리기 전에 무대를 떠나는 배우처럼 불완전하지도 않다. 게다가 그에게는 비굴함과 허영심, 다른 일에 집착하거나 다른 일을 멀리하는 마음, 비난할 만한 일, 피신처를 찾아야 할 일은 없다.

9 의견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존중하라. 당신의 지배적 부분에 자연과 이성적 동물의 본질에 어긋나는 의견이 생기는가, 생기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이 능력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신중한 판단, 인간에 대한 우정, 신(神)에의 순종을 약속한다.

10 오직 소수의 일만을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버려라 또한 누구든 오직 지금의 이 순간이 불가분의 점(點)을 살고 있을 뿐이며 그 밖의 그의 생애는 지나가 버린 것이거나 불확실한 것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그가 사는 순간은 짧고,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의 작은 구석에 지나지 않는다. 사후(死後)의 명성도 잠시 동안 계속 될 뿐이니 이 명성조차도 필경은 곧 죽어야 하고, 오래전에 죽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가련한 인간에 의해 전승(傳承)되는 것이다.

11 지금까지 말한 충고에 한 가지만 더 덧붙이기로 하자. 당신에게 나타나는 사물을 정의하고 기술(記述)함으로써 그 사물이 그 실체(實體)에 있어서는, 그 나상(裸像)에 있어서는, 그 완전한 전체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고유한 이름을 붙여 그것을 구성했다가 다시 흩어지게 된 사물들의 이름을 가려내라.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에게 나타나는 모든 대상을 방법적으로 참되게 검토하고, 사물을 볼 때에는 언제나 이것이 우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물과의 관련 하에서는 어떠한 효용을 갖고 있으며, 만물은 전체와의 관련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모든 다른 국가가 모방하고 있는 최고 국가의 국민인 인간과는 어떠한 관련을 가지며 각각의 사물은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인상(印象)을 주고 있는 이 사물의 본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인가, 이러한 사물에 대해 관용·용기·진실·성실·소박·만족 등의 덕 중에서 어떠한 덕이 나에게 필요한가를 고찰하는 것처럼 마음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 든 이것은 신이 주신 것이며, 이것은 운명과 이와 비슷한 우연의 일치에 의해 할당되고 그 실로 짠 것이며, 동일한 계통·동족(同族)·동류(同類)—그러나 그의 본성에 따라 그러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중의 하나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러나 나는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연대(連帶)라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박애와 정의의 정신으로써 그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동시에 나는 관심이 없는 사물에 대해서도 각각의 가치를 확인하고자 노력한다.

12 당신이 진지하게 올바른 이성에 따르면서 정력적으로 침착하게 마음을 흐트러 뜨리지 않고 신성한 부분을 순수하게 간직하면서 목전에 닥친 일을 처리해 간다면, 또한 이와 같이 하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에 따르는 현재의 활동과 당신의 모든 말에 잠긴 영웅적인 진실에 만족한다면 당신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13 갑작스럽게 그의 기술을 발휘해야 할 때에 대비하여 언제나 기구와 메스를 정돈해 두는 의사처럼, 당신도 사물과 신과 인간을 이해시키고 신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유대를 명심하면서 매우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의 필수적인 원칙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성한 것과 관련을 맺지 않으면 당신은 인간과 관련되는 일을 훌륭하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과 관련을 맺지 않고서는 신성한 일을 잘 처리하지도 못한다.

14 공연히 방황하지 말라. 당신 자신의 비망록이든, 로마·그리스 선인(先人)들의 자서전이든, 혹은 노후를 생각해서 책에서 뽑아 놓은 발췌록(拔萃錄)이든 이를 읽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목전의 목적을 서둘러서 성취하라. 당신 자신을 돌보려고 한다면, 공연한 희망을 버리고 당신의 힘이 남아 있는 동안에 당신 자신을 도와라.

15 훔친다든지, 씨를 뿐린다든지, 매매한다든지, 조용히 지낸다든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통찰한다든지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를 당신은 모르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눈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통찰력에 의해서 밝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16 육체 · 영혼 · 이성—육체에는 감각이, 영혼에는 욕구가, 이성에는 원칙이 속해 있다. 짐승이라 할지라도 현상(現象)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야수나 여자로 변해 버린 인간이나 팔라리스⁵, 또는 네로 같은 사람도 욕망에 이끌릴 수 있다. 신들을 믿지 않고 나라를 배반하며 문을 닫아 걸고서 불결한 행동을 하는 자들도 적당한 일을 하는 지침으로서 이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 밖의 것도 위에서 내가 말한 것과 같은 것이라면 선인(善人)의 특성, 곧 어떠한 일든 운명의 실이 그를 위해 짜주는 것에는 즐거움과 만족을 느끼고 그의 가슴속에 깃들인 신성을 더럽히거나 무수한 상념으로 산란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마음속의) 신성을 신으로 여기고 이에 순종하며 진리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고 정의에 위배되는 행동은 하지 않음으로써 신성을 조용히 간직하는 특성만이 남는다. 그리고 만인이 그가 소박하고 겸손하며 만족한 태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더라도 선인(善人)은 결코 화를 내지 않으며, 또한 순결하고 조용하게 죽음에 대비하며 무리없이 자신의 운명과 조화를 이루며 살려는 자는 반드시 삶의 목표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

5 팔라리스는 기원전 6세기 초 시케리아 섬의 아크라가스의 참주(潛主).

제 4 장

1 마음속의 지배적 부분은, 그것이 자연에 따르는 일일 때에는 생기(生起)하는 사건들을 존중하므로, 가능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 언제나 쉽게 적응한다. 지배적 부분은 각별한 재료를 요구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 밑에서 그 목적을 향해 매진하며 반대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재료를 만들어 낸다. 마치 불속에 던져지는 물건이 활활 타 버리듯이. 이 물건은 작은 등불 정도라면 께 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불길이 셀 때에는 불은 곧 던져진 물건들을 재료로 삼아서 태워버리고, 바로 이 재료 때문에 불길은 더욱 강해진다.

2 어떠한 행동이든 목적이 없거나 그 기술의 완전한 원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

3 사람들은 전원이나 해변이나 산속에 있는 집을 은신처로 삼으려고 한다. 당신도 이러한 집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평범한 사람이라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당신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어느 곳에서보다도 자신의 영혼 속에서 가장 조용하게 모든 수심으로부터 풀려나 쉴 수 있으며, 특히 그것에 의지하기만 하면, 곧 완전한 평온을 얻을 수 있는 사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다. 나는 마음의 평정(平靜)은 바로 정신의 훌륭한 질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끊임없이 이러한 휴식을 취하며 자신을 쇄신(刷新)하라. 또한 당신의 원리는 간결하고 근본적인 것 이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 원리를 상기하자마자 영혼을 완전히 정화하고 당신이 주목하고 당신이 주목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불만을 씻어 내기에 충분할 것이다. 당신의 불만은 어떠한 것인가? 인간의 악에 불만을 느끼는가? 이성적 동물은 상호부조하는 존재이며, 따라서 서로 참는 것은 정의의 한 부분이고 인간은 부지중에 잘못을 저지를 뿐이라는 결론을 상기하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호 간의 적의 · 의심 · 증오 · 투쟁 때문에 무덤에 묻히고 새로 변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마침내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당신은 우주로부터 당신에게 할당된 일을 싫어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의 섭리가 있거나, 아

니면 원자(原子)만이 있어서 사물의 우연한 집합이 있을 뿐이라는 선언명제(選言命題)를 상기하라. 또는 세계는 일종의 정치적 공동체임을 증명하는 이론을 상기하라. 그러면 마침내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육체적인 것들이 아직도 당신을 속박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정신이 일단 자신을 분리하고 그 힘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온화하게 움직이든, 격렬하게 움직이든 정신은 호흡(육체)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지금까지 듣고 수긍해 온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마침내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명성을 구하는 욕망이 당신을 괴롭힐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잊히는가를 살피고 현재를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로 뻗어 간 시간의 혼돈, 박수갈채의 허망함, 친양하는 사람들의 판단은 쉽게 변하고 결점이 있다는 것,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의 협착함 등을 생각하라. 그러면 마침내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지구 전체가 한 점이며 계다가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은 이 점의 한 작은 구석에 지나지 않고, 또 당신을 친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을 명심하라. 당신 자신의 작은 영지(領地)로 물러나는 것을 잊지 말고 무엇보다도 괴로워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자유로워야 하며 만사를 남자로서,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유한자(有限者)로서 대하라. 그러나 신변에 있으면서 당신의 주목을 끄는 것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로 사물은 밖에 있는 것이고 고정된 것이므로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동요는 오직 마음속의 의견으로부터 일어난다. 둘째는 당신의 눈앞에 있는 만물은 곧 변화하여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많이 목격했는가를 항상 명심하라. 우주는 변화이며, 삶은 의견이다.

4 우리의 지적(知的) 부분이 공통된 것이라면, 우리는 이성적 존재라는 점에서 이성도 공통된 것이다. 만일 이와 같다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지시하는 이성도 보편적인 것이다. 또한 이와 같다면 보편적 법칙도 존재한다. 또한 이와 같다면 우리는 시민으로서 동료다. 또한 이와 같다면 우리는 어떤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또한 이와 같다면 세계는 일종의 국가다. 그 밖의 어떤 정치적 공동체

에 전 인류가 참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여기로부터, 이 보편적인 정치적 공동체로부터 우리의 지적 능력, 추리 능력, 법에 대한 능력이 생긴다.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나의 흙으로 된 부분은 흙으로부터 주어진 요소이고 물로 된 부분은 다른 원소로부터 생긴 것이고 뜨겁고 불타는 부분은 어떤 특수한 근원으로부터 생긴 것처럼 (존재는 비존재가 될 수 없듯이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생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적 부분도 어떤 근원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¹

5 죽음은 그 본질상 출생과 같은 것이며, 이는 자연의 신비다. 동일한 원소의 결합과 동일한 원소의 분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인간이 부끄럽게 여겨야 할 일아니다. 그것은 이성적 존재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으며 우리를 구성한 이법(理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6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는 필연성의 문제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화과나무가 액즙(液汁)을 분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당신이나 그 사람이나 잠시 후에는 죽는다는 사실을 언제나 명심하라. 그리고 곧 당신의 이름조차도 잊혀질 것이다.

7 당신의 의견을 버려라. 그러면 나는 해(害)를 입었다는 불평도 없어질 것이다. ‘나는 해를 입었다’는 불평이 사라지면, 해 그 자체도 없어질 것이다.

8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지 못하는 일은 그의 생애를 더 나쁘게 만들지 못하며 밖에서든 마음속에서든 그를 해치지 못한다.

1 그리스의 고대 자연철학자의 견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엔페도클레스, 아낙사고拉斯 등 다원론자(多元論者)와 데모크리토스 등 원자론자(原子論者)는 불변의 복수적인 원질(原質)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의 과정이 이 세계의 생성 소멸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9 보편적으로 유익한 것의 본성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한다.²

10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정당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고찰하라. 그러면 당신이 조심스럽게 관찰하는 한, 그와 같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생기(生起)의 순서에 관련될 뿐 아니라 그 정당성, 곧 마치 각각의 사물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것 같다는 점과도 관련된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한 관찰을 계속하라.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착하다는 것과 관련하여 누구든 그것이 착한 일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어떤 행동을 하든 이 점을 명심하라.

11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이나 당신이 해를 끼쳐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사물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지 말고 진리에 비추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12 우리는 언제나 다음 두 규칙에 따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첫째로 지배적이며 입법적(立法的)인 능력을 가진 이성이 인간에게 유용하다고 권유하는 일만을 할 것, 둘째로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어떤 의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거든 당신의 의견을 바꿀 것. 그러나 이러한 의견의 변경은 정의에 맞거나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한다는 확실한 신념으로부터 수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가 쾌락이나 평판에 있어서는 안 된다.

13 당신에게는 이성이 있는가? 물론이다. 그렇다면 왜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성이 본래의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밖에 더 바랄 것이 있을까?

2 이 부분은 원문에 상당한 누락이 있는 듯하다. 이 말만으로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14 당신은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당신은 이윽고 당신을 출생시킨 자 안에서 소멸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변전(變轉)에 의해서 생성(生成)의 원리로 되돌아간다고 할 수 있으리라.

15 같은 제단(祭壇)에 차려 놓은 많은 유향(乳香)의 난알들. 하나가 먼저 떨어지고 다음에 다른 것이 떨어진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을 것인가.

16 당신의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이성을 존중한다면, 당신은 10일 이내에 당신이 지금 짐승이나 원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신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17 만 년이나 살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 살아 있는 동안에, 능력이 있는 동안에 착한 일을 하라.

18 이웃 사람이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스스로 정의롭고 깨끗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수고를 더는가. 그런 사람은, 아가تون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타락한 도덕을 둘러보거나 곁눈질하지 않고 곧바로 길을 가는 사람이다.

19 사후의 명성에 대해 격렬한 욕망을 가진 사람은,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곧 죽게 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람들의 다음 세대들도 곧 죽어서 결국 모든 기억은 이를 찬양하다가 죽어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 전달되다가 마침내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이 명성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멸이고 그 기억 자체도 불멸이라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고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에 대해서라면, 찬양이 확실한 효용을 갖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쨌든 당신은 남이 당신에게 무어라 말할까 하는 데 집착한다면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의 선물을 거절하는 셈이 된다.

20 어느 면에서든 아름다운 것은 모두 그 자체가 아름다우며, 그 자체에 한계를 갖고 있고, 찬양을 그 본질의 한 부분으로 소유하고 있지는 않다. 찬양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더 나빠지거나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 나는 대중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 예컨대 질료적(質料的)인 사물이나 예술 작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주장한다. 진정 아름다운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법칙도 그렇고 진리도 그렇고 자비심이나 겸손도 그렇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찬양받았다고 해서 아름다워지고 비난받았다고 해서 손상되는 것이 있는가? 에메랄드는 찬양받지 못하면 본래의 아름다움이 손상되는가? 금, 상아(象牙), 자줏빛 예복, 수금(瑟琴), 작은 칼, 장미꽃 봉오리, 관목은 어떤가?

21 영혼이 소멸하지 않는다면, 대기(大氣)는 태곳적부터 어떻게 이 영혼들을 수용해 왔을까? 또한 대지는 아득한 옛날부터 그 속에 묻힌 시체를 어떻게 수용해 왔을까? 산더미 같은 시체는 어떠한 형태로든 얼마 동안 남아 있다가 분해되므로 다른 시체가 묻힐 장소가 생기듯이, 영혼은 대기 속에서 얼마 동안 존속하다가 변화하여 흩어지고 우주 생성의 이법(理法)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불과 같은 성질을 갖게 되며, 이렇게 해서 대기 속으로 새로운 영혼이 들어올 여지가 생긴다. 아마도 사람들은 영혼불멸이라는 가설에 대해 이와 같은 답변을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이 묻히는 시체의 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며, 매일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이 먹어치우는 동물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동물이 소비되고 또 이 짐승을 먹는 자들의 육신 속에 파묻히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이러한 시체들을 피로 바꾸고 공기 또는 불과 같은 성질의 원소로 변화시킴으로써 남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진리를 탐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물질과 형상(形相) 및 형상적인 것의 원인을 나누는 분석법(分析法)이다.

22 방황하지 말고, 어떤 행동을 하든 진리를 존중하고, 어떤 인상(印象)을 받을 때마다 파악과 이해의 능력을 동원하라.

23 오, 우주여, 그대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조화를 이룬다. 그대에게 적당한 시간에 일어난 일은 나의 경우에도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지 않다. 오, 자연이여, 그대의 계절에 따라 생기는 것은 나에게도 결실(結實)이다. 만물은 그대로부터 생기고 그대 안에 있으며 그대에게로 되돌아간다. 시인은 “케크로프스의 친애하는 도시여”³라고 말한다. 그대는 “제우스의 친애하는 도시여”라고 말하려는가?

24 철학자⁴는 말한다. 마음의 평정(平靜)을 가지려면 많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나 생각해 보라. 반드시 해야 할 일, 본성상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이성이 요구하는 일만을 이성에 따라서 하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함으로써 훌륭한 행동에서 오는 마음의 평정을 얻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일만 하는데서 생기는 마음의 평정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것은 대부분 불필요한 것이며,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여가를 갖고 불안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든 우리는 “이것은 불필요한 일이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불필요한 행동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상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25 선인(善人)의 생활이 어느 정도로 당신에게 적합한가를 시험해 보라. 만유(萬有)로부터 주어진 자기와 운명에 만족하고 자신의 정의로운 생활과 친절한 성질에 만족하는 사람의 생활을 시험해 보라.

26 이러저러한 일들을 본 적이 있는가? 이번에는 이런 일들을 보라. 마음을 흐트

3 그리스의 희극 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에서 인용한 구절인 듯하다. 케크로프스는 대지에서 나왔다고 하는 아테네인의 전설적인 시조.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아테네이다.

4 테모크리토스를 말한다.

러뜨리지 말라. 단순 소박한 마음을 가져라. 누가 당신에게 해를 입히는가? 그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개의치 말라. 태초부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로부터 당신에게 주어진 것이고 당신의 운명에 들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의 인생은 짧다. 당신은 이 성과 정의의 도움을 받아 현재로부터 이익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긴장을 풀었을 때에도 침착하라.

27 질서정연한 우주이든, 난잡하기 그지없는 카오스이든 우주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는 질서가 있는데, 만유에는 질서가 없는 상태가 과연 가능할까? 만물이 분리되고 흩어져서 감응(感應)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상태가 가능 할까?

28 음침한 마음! 여자 같으며 완고한 마음, 사납고 어린애 같으며 짐승 같고 어리석으며 교활하고 상스러우며 부정적이고 폭군적인 마음.

29 우주 안에 있는 사물을 알지 못하는 자가 우주에 대해서 나그네라면, 우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모르는 자 역시 나그네다. 사회적 이성으로부터 달아나려는 자는 도망자다. 이해의 눈을 감는 자는 장님이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생활에 유용한 모든 것을 스스로 얻지 못하는 자는 거지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불만을 느끼고 우리의 보편적인 본성이 이성으로부터 물려나서 이성을 버리는 자는 우주에 난 종기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이러한 본성에 따라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당신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유일한 이성적 동물의 영혼으로부터 떼어 내는 자는 국가로부터 떨어져 나간 보잘것없는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

30 어떤 사람은 옷도 입지 않고 철학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책도 없이 철학을 한

다. 또한 반라(半裸)의 철학자도 있다. 그는 “나는 뺑은 없지만 이성은 있다”고 말했다.⁵ 그리고 나는 학식으로부터 생계 수단을 얻지는 못하나 이성은 갖고 있다.

31 아무리 빈약하더라도 당신이 익힌 기술을 사랑하고 이에 만족하라. 그리고 온갖 심혈을 기울여 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여생을 보내라. 인간에 대해서는 폭군도, 노예도 되지 말라.

32 예를 들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⁶ 시대를 생각하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이 그때도 있었다. 그때 사람들도 결혼하고 아이들을 길렀으며, 병들고 죽고 싸우고 축제를 베풀었으며, 장사를 하고 땅을 일구고 아침을 했으며, 몹시 건방지고 의심하고 음모를 꾸몄으며, 어떤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현실에 불평을 품었으며, 서로 사랑하고 재물을 쌓고 집정관(執政官)의 지위나 황제의 권력을 탐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이제는 자취도 없다. 다시 트라야누스 황제⁷ 시대로 내려가 보자.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의 생활도 사라져 버렸다. 마찬가지로 다른 시대와 모든 민족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대한 노력을 기울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서 여러 원소들로 분해되어 버렸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주로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 빈들거리며 환락에 빠져서 그들의 고유한 본질에 맞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 이러한 생활에 집착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일에 대한 관심에는 각기 고유한 가치와 알맞은 정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하면 적합하지 못한 사소한 문제에 관심을 갖더라도 당신은 불만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5 키니코스 학파는 이성과 덕을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극단적인 금욕 생활을 실천하여 그 생활이 매우 간소했으며, 대자연이 유일한 책이라고 보고 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우렐리우스의 입장인 스토아 학파도 키니코스 학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글 중에 인용된 말은 출처가 분명치 않다.

6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폭군 네로가 몰락한 후인 69~79년에 재위한 황제로 정치·경제의 안정에 힘쓰고 콜로세움 등 여러 가지 공공건물을 지었다.

7 98~117년에 재위한 로마 황제.

33 예전에는 흔히 사용되던 말도 이제는 고어(古語)가 되었다. 또한 예전에 유명했던 이름들, 즉 카밀루스, 카에소, 볼레수스, 덴타투스, 약간 후대의 스치피오와 카토, 그 후의 아우구스투스, 또한 그 후의 하드리아누스와 안토니누스도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고어가 되었다.⁸ 무슨 일이든 순식간에 사라지고 옛 이야기가 되었다가 곧 완전한 망각에 묻혀 버리기 때문이다. 심지어 놀랄 만큼 명성을 떨쳤던 사람들도 이런 망각 속에 묻혀 버리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숨을 거두자마자 잊혀지고 아무도 그들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원히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뿐이다. 정의로운 사상, 사회적인 행동, 조금도 거짓을 모르는 말,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주의) 원리에 따라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연적이고 통상적인 일이라고 점차로 받아들이는 기질뿐이다.

34 운명의 여신 중 하나인 클로토⁹에게 즐거이 당신을 맡기고 여신의 뜻대로 당신의 운명의 실로 잣도록 하라.

35 기억하는 자든, 기억되는 자든 모두 하루살이다.

8 카밀루스는 4세기 전반에 활약한 로마의 대정치가이며, 장군. 카에소는 초기 로마의 귀족인 카에소 파비우스인 듯하다. 볼레수스는 로마 공화국 초기의 정치가인 듯하고, 덴타투스는 유명한 집정관이다. 안토니누스는 아우렐리우스의 양부인 안토니누스 피우스를 말한다.

9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운명의 여신 중 하나로 생명의 실을 잣는다.

36 만물은 변화 가운데서 생기는 것임을 언제나 잊지 말고, 우주의 본성은 존재하는 것들을 변화시키고 동일한 것을 다시 만들어 내는 일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라.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장차 존재하게 될 것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땅이나 모태(母胎)에 뿐려지는 씨앗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통속적인 생각이다.

37 당신은 조만간에 죽을 것이다. 그렇건만 당신은 소박하지도 않고 마음의 동요로부터 풀려나지도 못했으며, 외부의 사물로부터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버리지도 못했고, 모든 것을 친절하게 대하지도 못한다. 또한 정의로운 행동에만 지혜를 써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38 사람들의 지배적 원리, 특히 현인(賢人)의 그것을 검토하라. 그들이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39 당신에게 해로운 것은 다른 사람의 지배적 원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당신의 육체라는 외피(外皮)의 전환이나 변형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악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능력이 있는 그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이 그러한 의견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순조롭다. 그리고 그 부분에 가장 가까운 것, 곧 보잘것없는 육신이 잘리고 태워지고 고름이 나고 썩더라도 이러한 일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는 부분만은 냉정해야 하며, 또한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선도 악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자연에 어긋나게 사는 사람에게도, 또 자연에 따라 사는 사람에게도 동등하게 일어나는 일은 자연에 어긋나는 것도, 자연에 따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40 우주는 한 생명체이며, 하나의 물질 하나의 영혼을 갖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라. 또한 만물이 하나의 지각(知覺), 바로 이 생명체의 지각과 어떻게 관련되고 만물이 어떻게 하나의 움직임에 따라 활동하며, 만물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부원인(副原因)이 되는가를 살펴보라. 또한 이 (운명의) 실이 어떻게 끊임 없이 자아지고 직조(織造)되는가를.

41 에픽테토스¹⁰가 늘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은 육신이라는 옷을 입은 보잘것없는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

42 변화하는 사물로서 악한 것은 없고, 변화의 결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착한 것은 없다.

43 시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이루어진 강과 같은 격렬한 흐름이다. 어떤 사물이든 눈에 띠자마자 흘려보내고,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이것도 또한 흘려보내기 때문이다.

44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봄의 장미, 여름의 과일처럼 눈에 익고 잘 알려진 것들이다. 병과 죽음, 중상과 모반, 그밖에 바보들을 즐겁게 하고 괴롭히는 것들은 모두 이러한 것이기 때문이다.

45 계기(繼起)하는 것들은 항상 선행(先行)된 것과 잘 어울린다. 이러한 계기는 단순히 연속적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모든 사물이 조화를 이루며 배치되어 있듯이 장차 존재하게 될 사물들도 단순한 계승(繼承)에 그치지 않고 놀라운 관련성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10 1세기에 로마에서 산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 철학자.

46 “흙이 죽어서 물이 되고, 물이 죽어서, 공기가 되며, 공기가 죽어서 불이 되고 그 역순(逆順)도 가능하다”고 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을 항상 기억하라. 사람들은 이 길이 어디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잊고 있으며, 또한 이성에 대해 자주 토론을 하면서도 이성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것을 모르고, 매일 마주치는 것이 그들에게는 낯선 것으로 보인다고 한 그의 말도 생각하라. 마치 잠든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해서는 안 되며—잠잘 때에도 우리는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어버이에게 가르침을 받는 어린애들처럼 배운 그대로 소박하게 행동하고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라.

47 어떤 신이 당신은 내일이나 모레 죽을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당신이 가장 비열한 사람이 아니라면 모레든 내일이든 꽤념하지 말라. 그 차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마찬가지로 내일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을 더 살다 죽는다고 해서 이것이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48 끊임없이 생각하라.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환자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다가 죽었는가를, 얼마나 많은 점성가(占星家)가 거드름을 부리며 남의 운명을 예언하다가 죽었는가를, 얼마나 많은 철학자가 죽음과 불멸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벌이다가 죽었는가를, 얼마나 많은 영웅이 수천 명을 살해하고 나서 죽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폭군이 생살여탈권을 휘두르며 마치 영생이라도 할 듯이 무서운 오만을 부리며 살다가 죽었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시—예컨대 헬리케, 폼페이, 헤르쿨라네움¹¹ 그 밖의 무수한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변했는가를. 또한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남김없이 차례차례 헤아려 보라. 갑(甲)은 을(乙)을 묻어 주고 죽고, 병(丙)은 갑을 묻고 죽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요컨대 인간사(人間事)가 얼마나 덧없고 보람 없으며, 어제의 작은 점액(粘液)이 내일은 어떻게 미라나 재로 변하는가를 언제나 기억하라. 따라서 이 수유(須臾)나마 자연에

11 헬리케는 아카이아의 해안 도시로 기원전 373년 지진으로 바닷속에 침몰했다. 폼페이와 헤르쿨라네움은 기원후 79년 베스티스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 속에 묻혔다.

따라 살다가 만족한 가운데 여행을 마쳐야 한다. 올리브가 익으면 자연을 찬양하고 지금까지 키워 준 나무에 감사하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49 끊임없이 파도가 부서져도 끄떡없이 버티며 노한 물결을 달래는 갑(卿)처럼 살아라. 이러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천만에, 오히려 이러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더라도 나는 괴로움을 잊고 현재에 압도당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러한 경우에 고통을 잊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후자에게는 행운이 되는 것이 전자에게는 오히려 불운이 되는가? 그리고 당신은 어떤 경우에든지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불행이라고 부르는가? 또한 당신은 인간 본성의 의도에 어긋나지 않는 일을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일탈이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당신은 본성의 의도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일이 경솔한 의견이나 허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공정하고 관대하며 절도 있고 신중하며 확고한 태도를 가로막는가? 이러한 일이 겸손, 자유, 그 밖의 인간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가? 비탄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에 부딪히면 언제나 이것은 불운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품위 있게 견디어 내는 것이 행운이라는 원리를 적용하라.

50 삶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은 통속적이긴 하지만 죽음을 경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도대체 그들은 요절한 사람보다 무엇을 더 획득하게 될까? 그들도 결국은 어딘가 무덤 속에 누워 있게 되며 카디키아누스, 파비우스, 율리아누스, 레피두스¹² 그밖에 이들과 비슷한 사람들도 많은 사람을 묻어주고 나서 결국 그들 자신도 묻히고 말았다. 요컨대 탄생과 죽음 사이는 짧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며, 또한 얼마나 약한 몸으로 고생스럽게 지내는가를 생각해 보라. 삶을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12 카디키아누스, 파비우스, 율리아누스에 대해서는 미상. 레피두스는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등과 함께 3두 정치 때 집정관직(triumvir)에 앉았던 사람.

과거로 이어지는 무한한 시간과 미래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한계 없는 시간을 보라. 이러한 무한 속에서는 사흘밖에 못 산 사람과 세 세대를 산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51 언제나 첨경으로 달려라. 첨경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모든 일을 가장 전전한 이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하게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이 고난, 전쟁, 모든 놓간, 야비한 허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제 5 장

1 아침에 마지못해 일어날 때에는 ‘나는 인간다운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고 생각하라. 나의 존재의 의의이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의의 때문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한 그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불만을 느낄 까닭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잠옷을 입고 누워서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물론 이렇게 지내는 것이 보다 즐겁기는 하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의 쾌락을 취할 뿐, 어떠한 행동도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가? 당신은 작은 식물, 작은 새, 개미, 거미, 꿀벌 등이 우주 안에서 맡겨진 몇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일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가? 그런데도 당신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계획하려는가? 당신의 본성에 맞는 일을 서두르지 않으려는가? 물론 휴식도 필요하다.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자연은 휴식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 놓았다. 자연은 먹고 마시는 데에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 놓았건만, 당신은 이 한계를 벗어나 그 이상의 것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행동에 있어서는 먹고 마시는 경우와 달라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있다. 결국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신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의 본성과 그 의도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신의 몇 가지 기예(技藝)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목욕도 음식도 잊고 지칠 때까지 일하고 있다. 그러나 당신의 본성에 대한 당신의 평가는 녹로공(驥驥工)이 녹로 기술을, 무희가 무용 기술을, 배금배(拜金輩)가 돈을, 허명(虛名)에 연연한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명성을 존중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일에 열중할 때에는 침식을 잊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술을 완벽한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당신의 안목으로는 사회와 관련된 행동은 매우 수치스러운 것이어서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가?

2 귀찮거나 부적당한 생각을 물리치거나 씻어 낸 다음 곧 온전한 평온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인가.

3 자연에 따르는 모든 말과 행동은 당신에게 어울리는 것임을 명심하라. 또한 남들이 사후에 퍼부을 비난이나 그들의 말 때문에 마음을 흔들리게 하지 말고, 만일 어떤 행동, 어떤 말이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이 일이 가치 없다는 생각은 하지 말라.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도 원리를 갖고 있고 그들의 특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이에 개의치 말고 당신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인 자연에 따라 일직선으로 나아가라. 당신 자신의 본성과 보편적인 자연이 지시하는 길은 필경 동일한 것이다.

4 내가 매일처럼 흡수하는 원소를 호흡하다가, 아버지가 종자를, 어머니가 피를, 유모가 젖을 거둬들이고, 오랫동안 나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고 내가 짓밟고 여러 가지로 남용할 때에도 꾹 참아 준 대지 위에 쓰러질 때까지 나는 자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을 체험하겠다. 내가 쓰러져서 영원히 잠들 때까지.

5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예리한 재주를 칭찬할 줄 모른다고 말한다. 상관할 일이 아니지 않은가. 그러나 당신에게는 “나는 원래 그러한 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당신의 능력 안에 있는 이러한 장점을 보여 주어라. 성실, 근엄, 인내력, 쾌락에 대한 염오, 운명에 만족하고 허욕을 내지 않는 마음, 자비심, 솔직함, 소박한 생활, 대범하고 자유로운 정신 등을. 당신은 당장 발휘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이러한 장점들은 원래 무력하다든지 적합하지 못하다는 구실을 붙일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진해서 수준 이하에 머물러 있으려는가? 혹은 당신은 원래부터 결함이 있다고 불평하고 인색하게 굴며, 아첨을 하고 자신의 빈약한 육체에서 결함을 찾아내며 남들의 인기나 탐내고 허세를 부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불안에 떨며 살겠는가? 신에 맹세코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생활로부터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사실상 당신이 자신의 우둔한 이해력을 탓하기만 했더라도, 자신을 개선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이러한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우둔함을 즐기고 있다.

6 어떤 사람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 보답을 계산한다. 또 어떤 사람은 이와 같지는 않으나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을 채무자로 여기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잊지 않는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할 일조차도 잊어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포도나무와 같아서 포도송이를 열게 하고 그 열매를 제대로 익힌 다음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달리는 말이나 사냥하는 개나 꿀을 만드는 벌처럼 인간도 선행을 했을 때 남이 와서 보아 달라고 외치지 말고, 포도나무가 철이 되면 다시 포도송이를 맺는 것처럼 다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선행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은가. 사회적인 활동을 의식하고 사실상 사회의 동료들도 이러한 활동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회적 동물의 특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의 말은 옳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말하는 바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에서 말한 사람들 틈에 당신은 끼어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사람들도 일정한 이유를 제시하다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이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때문에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버려도 된다.

7 아테네 사람들의 기도—오, 거룩한 제우스여! 아테네 사람들이 일꾼들과 평야에 비를 내려 주소서, 비를 내려 주소서. 사실상 우리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기도는 아테네 사람들의 기도처럼 소박하고 고상해야 한다.

8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아스클레피오스¹는 어떤 사람에게 승마(乘馬), 냉수욕, 또는 신을 신지 말고 다니라는 처방을 내렸다고 하거니와, 우리는 이러한 처사를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의 본성에 어떤 사람에게 질병, 혹은 불구, 혹은 사망,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처방했다는 말을 듣더라도 이를 이해할

1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신(醫神)으로, 소크라테스가 이 신에게 빚진 닭 한 마리를 갚아 달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줄 알아야 한다. 앞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방’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곧 아스클레피오스는 그 사람에게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처방을 한 것이다. 뒤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곧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또는 적합한) 일은 그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운명에 적합한 것으로서 확정되어 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적합하다고 말할 때, 이 말은 숙련공이 네 모난 돌을 쌓으면서 이 돌은 벽, 또는 피라미드에 적합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의 적합성, 곧 조화가 있을 뿐이다. 우주는 모든 물체에 의해 현존하는 물체로 구성된 것처럼 필연(운명)도 현존하는 모든 원인에 의해 현재와 같은 원인으로 구성된 것이다. 불학 무식한 사람조차도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도 필연(운명)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는가. 따라서 이 일은 그에게 일어난 일이고 처방된 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처방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기로 하자. 물론 그의 처방 중에는 고통스러운 것도 많지만 우리는 건강을 바라면서 그의 처방을 받아들인다. 사물의 완성과 성취는 보편적인 자연도 시인하는 것이므로, 당신은 이를 당신의 건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고통스럽더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우주의 건강, 제우스(우주)의 번영과 지복(至福)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전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떠한 자연의 본성이든,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로 그것은 당신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처방된 일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과 관련된 것이고 태곳적의 원인에 의해 당초부터 당신의 운명에 들어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도 우주를 지배하는 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복과 완성, 아니 이를 지속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부분, 또는 원인의 결합과 연대 중의 어느 하나라도 끊어 버린다면, 전체의 완전성은 해손된다. 따라서 당신이 불만을 느낄 때,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러한 결합과 연대를 끊어 버린다면 어떤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9 모든 일에 있어서 올바른 원리에 따르는 행동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싫증을 내거나 실망하거나 불만을 품지 말라. 오히려 실패했을 때에는 다시 되돌아가서 당신의 대부분의 행동이 인간의 본성에 일치하거든 이에 만족하고 당신이 되돌아 간 원리를 소중히 여겨라. 그리고 마치 철학이 스승이나 되는 듯이 철학으로 되 돌아가지 말고 눈을 앓는 사람이 해면(海綿)과 달걀²을 사용하듯이, 또는 다른 환자가 고약이나 짐질을 이용하듯이 행동하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이성에 복종하고 이성에서 안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철학은 당신의 본성이 바라는 일만을 요구하는데, 당신은 본성에 맞지 않는 그 밖의 일들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을 명심 하라.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유쾌한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쾌락이 우리를 기만하는 원인이 아닌가? 그리고 관용·자유·소박·침착·경건 등이 보다 유쾌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당신의 이해와 인식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모든 안전과 행복한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혜 그 자체보다 더 유쾌한 것이 무엇일까?

10 사물은 일종의 은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탁월한 철학자들이 사물을 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조차도 사물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동의는 변경될 수 있다.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따라서 당신의 사유(思惟)를 대상 자체로 돌려 서 대상이 얼마나 덧없고 무가치한가, 다시 말하면 더럽고 비열한 놈, 매춘부, 도둑도 이 대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라. 그다음에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품행을 살펴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을 거의 지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다 유쾌한 사람들과도 참고 어울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이러한 암흑과 추악함, 그리고 실체와 시간, 운동과 운동체의 끊임없는 유전(流轉) 가운데에 지극한 찬탄을 받을만한 존재가, 진지하게 추구할 만한 대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연에 따르는 죽음을 기다리며 시간이 지체된다고 해서 화를 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원리로부터 마

2 당시에는 해면과 달걀로 눈병을 고치는 치료법이 있었던 것 같다.

음의 안정을 얻는 것은 인간의 의무다. 곧 첫째로 우주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나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로 나는 신이나 신령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을 나에게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11 지금 나 자신의 영혼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경우에나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하며, 지배적 원리라고 불리는 나의 이 부분을 나는 지금 어떤 일에 사용하고 있는가를 음미해야 한다. 지금 나의 영혼은 어떤 영혼인가? 어린애의 영혼, 혹은 젊은이, 혹은 연약한 여자, 혹은 폭군, 혹은 가축, 혹은 야수의 영혼인가?

12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함으로써 알 수 있다. 곧 어떤 것—예컨대 신중함, 절제, 정의, 용기 등—을 진실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고찰한 다음에는 ‘진실로 좋은 일과 조화되지 않는 것’³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를 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일을 우선적으로 고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희극 작가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러한 일을 매우 적당한 것이라고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도 앞에 말한 두 경우의 차이를 알고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희극 작가의 말⁵은 첫 번째 경우에 있어서 분노를 느끼게 하고 배척받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말을 부(富)와 사치와 명성을 증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인 경우에는 적절하고 재치있는 말로 여겨질 것이다. 따라서 우선 마음속으로 고찰할 때, 이렇게 물어야 한다. 곧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다만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안심할 여지가 없다”⁶고 한 희극 작가의 말에 꼭 들어맞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평가해도 좋은가를.

3 메난드로스의 『단편(斷片)』 중에 나오는 말이다.

4 메난드로스를 말한다.

5 ‘진실로 선한 것과 조화되지 않는 것’을 말함.

6 메난드로스의 말.

13 나는 형상적(形相的)요소와 질료적(質料的)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양자는 비존재로부터 존재가 생길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존재로 소멸되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은 변화에 의해서 우주의 어떤 부분으로 환원되고 다시 우주의 또 다른 부분으로 변하며 이러한 과정은 무한히 계속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나는 존재하며 나를 낳은 사람들도 그러하다. 이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는 다른 방향으로 영원히 계속된다. 비록 우주는 일정한 주기(周期)를 갖고 순환된다 하더라도, 앞에 말한 주장을 가로막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14 이성과 추리의 기술(철학)은 그 자체로서, 그리고 그 활동에 있어서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성과 추리의 기술은 그 자신의 제1원리에 따라 움직이고, 제시되어 있는 목적에 따라 전진한다.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행위를 ‘올바른 행동(Catorthoseis)’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카토르토세이스’라는 말은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15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개인에게 속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 이러한 일은 인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약속한 것도 아니며 인간의 본성을 완성시키는 수단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에는 인간의 목적—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돋는 것은 선이다—도 없고 인간의 목적 달성을 돋는 것도 없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것 중에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있다면, 인간이 이를 경멸하고 이에 반발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닐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사람도 찬양받을 만한 사람은 아닐 것이며,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선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것들, 또는 이러한 것들과 비슷한 다른 것들을 제거해 버리면 그럴수록, 혹은 이러한 것들 중의 어떤 것이 없을 때에 이 상실을 참을성 있게 견디어 내면 그럴수록 그만큼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16 당신이 늘 품고 있는 사상은 바로 당신의 정신적 특성이기도 하다. 영혼은 사상에 의해 염색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일련의 사상으로 당신의 영혼을 염색하라. 예를 들면 인간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서는 잘살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궁전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될 때에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또한 각각의 사물은 그 목적이 어떤 것이든 목적에 따라 구성되었고,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 목적은 각각의 사물이 지향하는 곳에 있으며, 그 목적이 있는 곳에는 각각의 사물의 우월성과 선이 있다고 생각하라. 그런데 이성적 동물의 선은 사회다.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점은 앞에서⁷ 이미 밝힌 바 있다. 약자는 강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그런데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보다 우월하고, 생명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은 이성을 가진 자다.

17 불가능한 일을 추구하는 자는 광인이다. 악인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18 인간에게는 그의 본성이 견디어 낼 수 없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동일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을 때, 그는 태연하며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무지(無知)와 독단(獨斷)이 지혜를 능가한다는 것은 수치다.

7 제2장에서.

19 사물 자체는 영혼과 접촉하지 못한다. 약간의 접촉도 갖지 못한다. 또한 사물 자체는 영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혼의 방향을 바꾸거나 움직이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전환시키고 움직일 수 있으며, 영혼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판단에 따라서 영혼에 나타나는 사물을 이 판단에 적응 시킨다.

20 어떤 점에서 인간은 나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다. 내가 인간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나의 본래의 활동을 방해하는 한, 인간은 태양이나 바람이나 야수와 마찬가지로 나와는 관계가 없는 존재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조건에 따라서 활동하고 변화하는 힘을 가진 나의 감수성이나 의도에 대해서는 방해물이 되지 못한다. 정신은 자신의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바꿔 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해물은 활동을 촉진하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전진을 촉구한다.

21 우주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성)을 존중하라. 이것은 모든 사물을 이용하고 만물을 지배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것을 존중하라. 이것은 우주의 그것과 동류의 것이다. 당신 자신의 경우에도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며, 당신의 인생은 이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22 국가에 해를 끼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한다. 만일 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국가가 해를 입지 않는다면, 나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이 원리를 적용하라. 그러나 국가가 해를 입더라도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말고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라.

23 존재하고 있는 것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스쳐 지나가 버리는 속도를 가끔 생각해 보라. 물질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과 같고, 사물의 활동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은 무한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정지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당신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곧 과거와 미래라는 무한한 심연(深淵)을 생각하라. 모든 것은 이 심연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사물들을 사랑하는 자, 또는 이러한 사물 때문에 괴로워하고 비참해하는 자는 얼마나 바보인가? 이러한 사물들이 그를 괴롭히는 시간은 잠시 동안, 일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24 우주의 실체를 생각하라. 당신은 이 실체의 미소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보편적인 시간을 생각해 보라. 보편적인 시간의 순간적인 불가분의 찰나가 당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운명에 의해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자신도 이 운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25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힐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해 볼 문제다. 그는 그 나름의 기질과 그 나름의 행동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보편적인 자연이 내가 갖기를 바라고 있는 것만을 갖고 있으며, 나의 본성이 바라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26 당신을 지도하고 지배하는 영혼이 육체의 움직임—그것이 쾌락이든 고통이든—에 의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영혼은 육체의 운동과 결합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명시하도록 하며, 육체의 정태(情態)는 그것이 속하는 부분에 국한시키도록 하라. 그러나 이러한 정태가 영혼과 일체를 이루면서 육체 속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공감작용(共感作用)에 의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감각에 저항하려고 애쓰지 말라. 이러한 감각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본질적인 지배적 부분(이성)이 이러한 감각에 대해 선 또는 악이라는 의견을 덧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

27 신들과 함께 살라. 자기의 영혼이 자기에게 할당한 일에 만족하고, 제우스신이 각자의 수호신 또는 인도자로 부여한 신령이 바라고 있는 그의 역할을 완수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신들에게 보여 주는 자는 신과 함께 사는 자다. 그런데 신령이란 바로 각자의 이해력이며 이성이다.

28 당신은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가? 입에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가? 이러한 좋지 않은 냄새들이 당신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는 이런 입, 이런 겨드랑이를 갖고 있고 반드시 이런 악취를 풍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도 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어떤 점에서 그가 남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나는 당신이 이런 점을 알고 있기를 바란다. 그런데 당신도 이성을 갖고 있다. 당신의 이성적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이성적 능력을 일깨워 주라. 그에게 잘못을 가르쳐 주고 타일러라. 그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그를 고칠 수 있고, 따라서 화를 낼 필요는 없다. 비극 배우나 매춘부인 경우에도 그렇다.

29 당신은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러한 생활을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 세상을 하직하라. 집에 연기가 차면 나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 이것을 귀찮다고 여겨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이러한 일이 나를 몰아내지 않는 한, 나는 이 세상에 남아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내가 바라는 바를 방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이성적·사회적 동물의 본성에 맞는 일을 선택하게 마련이다.

30 우주의 이성은 사회적이다. 따라서 우주는 강자를 위해서 약자를 만들어 냈고 강자끼리는 서로 협조하게 된다. 당신은 우주가 얼마나 정연한 상하관계·협조관계를 세워 놓았으며 각자에게 공평한 역할을 부여했는가,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은 서로 협조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

31 당신은 지금까지 신들, 부모, 형제, 자식, 스승, 어린애들을 돌봐 주는 사람, 친구, 친척, 노예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가? 지금까지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결코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⁸는 말을 듣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태도를 취해 왔는지 반성해 보라. 그리고 상기하라.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는가를, 얼마나 많은 일을 겪디어 낼 수 있었던가를, 당신의 생활 이야기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당신의 봉사도 끝났다는 것을,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아 왔는가를, 얼마나 많은 쾌락과 고통을 경멸해 왔는가를, 남들이 영광스럽다고 하는 일을 얼마나 멸시해 왔는가를, 그리고 심술궂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로 친절을 베풀어 왔는가를.

32 재주도 없고 무지한 영혼이 왜 재주와 지혜를 가진 영혼을 방해하는가? 도대체 어떤 영혼이 재주와 지혜를 갖고 있는가? 처음과 끝을 알고 있는 영혼, 모든 존재에 편재(遍在)하며 영원히 일정한 주기(순환)에 따라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이 법을 알고 있는 영혼이다.

33 얼마 후에, 순식간에 당신은 재(死)나 해골로 변하고 이름만 남든지 이름조차도 잊혀질 것이다. 이름은 단지 음향이요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살아 있는 동안에 몹시 소중히 여기던 것도 덧없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것이며, 장난삼아 싸우는 강아지나 말다툼을 하며 방금 웃다가 곧 울음을 터뜨리는 어린애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성실과 겸손과 정의와 진리는 광활한 대지를 버리고 올림포스 산⁹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을 이 세상에서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갑각적 대상은 쉽게 변하고 결코 지속되지 않으며, 갑각 기관은 애매해서 쉽게 착각을 일으키고, 가엾은 영혼조차도 혈액에서 나오는 증기(蒸氣)에 지나지 않기 때문일까? 그러나 이러한 세계 속에서 명성을 얻는 것은 공허한 일이다. 도대체 그것이 소멸 이든 다른 세계로의 이주(移住)이든 간에, 종말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가 오기까지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8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 중에서.

9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 중에서.

신을 섬기며 기도를 드리고 인간에게는 착한 일을 하고 관용과 자체를 실행하는 것, 이 이외에 또 다른 일이 있을까? 빈약한 육체와 호흡의 한계를 초월한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의 것이 아니며 당신의 능력을 벗어난 것임을 명심하라.

34 올바른 길을 걷고 올바르게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당신은 잔잔히 흐르는 물처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남의 방해를 받지 말 것, 그리고 정의를 행하려는 기질 속에 깃들인 선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질에 의해 모든 욕망을 억제할 것—이 두 가지는 신의 영혼과 인간의 영혼에 공통되는 것이며, 모든 이성적 존재의 영혼에 공통되는 것이다.

35 만일 그것이 나 자신의 부덕(不德)이나 부덕의 결과도 아니고 공공의 복지를 해치는 것도 아니라면, 왜 나는 이런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그리고 공공의 복지에 대한 해독이란 무엇인가?

36 경솔하게 사물의 현상(現象)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이러한 모든 현상을 도와주어라. 선악과 무관한 일 때문에 손해를 입더라도 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것은 나쁜 습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이 애들의 곁을 떠날 때 애들 중의 연장자에게 연장자임을 잊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처럼, 이 경우에 당신도 이와 같이 하라.

당신이 광장의 연단에서 열변을 토할 때, 사람들이여,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잊고 있는가?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흥미 있는 일이다”라고 당신은 말하리라.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이런 일 때문에 바보가 되려는가? 나는 한때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행운을 잃었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운이 좋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행운을 부여했다는 뜻을 갖고 있고, 행운은 바로 영혼의 좋은 경향, 좋은 정서, 좋은 행동이다.

제 6 장

1 우주의 실체는 온순하고 유연하다. 그리고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에는 악을 행할 원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성은 사심(邪心)이 이성에 의해 해를 입는 것은 이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완성에는 악을 행할 원인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성은 사심이 없고 어떠한 것에도 해를 입히지 않으며,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물은 이 이성에 따라 만들어지고 완성된다.

2 당신이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춥든 따뜻하든, 졸리든 숙면을 했든, 악평을 듣든 칭찬을 듣든, 죽음에 직면했든 그 밖의 다른 일에 직면했든 개의치 말라.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위도 삶을 위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도 눈앞에 닥친 일을 잘 처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3 내면을 살펴보라. 그것이 무엇이든 특별한 성질이나 그 가치를 간과하지 말라.

4 혼존하는 모든 사물은 곧 변화하며, 정녕 모든 실체가 하나라면 수증기로 환원되거나 사라져 버릴 것이다.

5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은 자기 자신의 경향과 자기 자신이 하는 일, 또 어떠한 자료를 갖고 일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6 최선의 복수는 악행을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7 한 가지 일, 곧 신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서 즐거움을 찾고 이러한 즐거움 속에서 안식을 얻어라.

8 지배적 원리는 자기 자신을 각성시키고 그 방향을 바꾸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형성하게 하고, 동시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게 하는 원리다.

9 우주의 본성에 따라서 각각의 사물이 완성된다. 각각의 사물의 완성은 외부적으로 우주의 본성을 포함하는 자연이나, 이러한 본성에 내포되어 있는 자연이나, 이러한 본성 밖에 독립해 있는 자연 등 다른 자연에 따르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10 우주는 혼란 · 사물의 착종(錯綜) · 이산(離散)이거나, 아니면 통일 · 질서 · 섭리다. 만일 전자라면, 사물의 우연한 결합과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살기를 바랄 까닭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나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가 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을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흩어져 버린다면 마음의 불안을 느낄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후자의 가정이 옳다면, 나는 우주를 지배하는 자를 공경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하며 이 지배자를 신뢰해야 한다.

11 주위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에는 재빨리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와서 필요 이상으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으로 되돌아옴으로써 당신은 조화를 더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 의모(義母)와 생모(生母)가 다 살아 계신다면, 당신은 의모를 섬기면서도 항상 생모의 곁으로 돌아가려고 하리라. 지금 당신의 경우, 궁정과 철학을 의모와 생모에 비교할 수 있다. 자주 철학으로 되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라. 그러면 당신이 궁전에서 겪는 일도 참을 수 있고 또 당신 자신도 궁전 안에서 괴팍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13 눈앞에 고기나 고기와 비슷한 음식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물고기의 주검이고 새 또는 돼지의 주검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또한 팔레르누스¹산(產產) 포도주는 작은 포도의 즙에 지나지 않고, 이 자주색 옷은 조개를 염료로 해서 염색한 양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또한 둥침할 때에도 그것은 성기(性器)의 마찰과 일종의 경련에 따르는 점액의 사출(射出)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러한 인상들이 사물 자체에 도달하고 사물 자체에 침투함으로써 우리는 그 사물의 정체를 알게 된다. 우리는 일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태도로 행동해야 하며, 가장 찬양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사물을 대해서도 이 사물을 벗겨 놓고 그 무가치함을 보며, 이 사물을 추켜세우는 말들을 박탈해야 한다. 이성을 가장 교란시키는 것은 허세이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일에 관계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 당신은 허세의 속임수에 걸려들기 쉽다. 따라서 크라테스가 크세노크라테스에 대해서 한 말²을 생각하라.

14 대중이 찬양하는 것은 대체로 돌,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올리브처럼 응집력(凝集力)이나 자연적인 조직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대상과 관련된다. 그러나 좀더 이성적인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양 떼나 소 떼처럼 생명의 원리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대상과 관련된다. 좀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은 이성적 영혼—그러나 보편적 영혼이 아니고 어떤 종류의 기술에 숙달했거나 또는 다른 면의 전문가라는 점에서, 또는 단지 많은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적이라고 일컫는 것이다—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정치적 생활에 적합한 이성적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 이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곧 무엇보다도 이성과 사회적 생활에 맞는 상태에서 활동하도록 그의 영혼을 유지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한다.

15 어떤 것은 존재를 서두르고 어떤 것은 사멸을 서두른다. 생성되고 있는 것도 이

1 캄파니아의 마스크스 산기슭에 있는 유명한 포도의 산지.

2 크라테스(365~285 B.C.)는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 크세노크라테스(396~314 B.C.)는 잘케돈 출신으로 플라톤의 제자. 크라테스가 크세노크라테스에게 한 말은 불명.

미 그 일부는 사멸을 겪고 있다. 시간의 끊임없는 진행이 영원한 시간을 항상 새롭게 하는 것처럼 운동과 변화는 세계를 끊임없이 갱신한다. 모든 것을 휩쓸며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서둘러서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 과연 있을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날아가는 제비를 열애(熱愛)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 제비는 시야에서 사라져 버린 경우와 같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인생이며, 말하자면 피의 증발이나 공기의 흡수와 흡사한 것이다. 어제, 또는 그저께 당신이 태어날 때 받은 호흡 능력 전체를 처음으로 호흡한 대기(大氣)에 되돌려 주는 것(죽음)은 결국 국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일이거니와, 일단 공기를 들이마셨다가 내뱉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16 식물처럼 호흡하거나, 가축 또는 야수처럼 호흡하거나, 사물의 현상을 통해 인상을 받아들이거나, 꼭두각시를 실로 조종하듯 욕망에 따라 움직이거나, 무리를 이루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런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이것은 음식물의 쓸데없는 부분을 떼어 내서 버리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박수를 받는 일? 아니다. 또한 갈채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칭찬은 대부분 혀끝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당신이 명성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무가치한 것들을 버렸다면, 도대체 가치 있는 것으로서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의견으로는 당신의 고유한 본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제(自制)하는 것이다. 모든 일, 모든 기술도 이러한 본질을 따르고 있다. 모든 기술은 목적에 알맞은 기능을 갖도록 사물을 제작하는 데 그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 재배자나 말의 조련사(調練師), 개의 조련사도 이러한 목적을 추구한다. 그러나 청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바로 이 점에 교육과 훈련의 가치가 있다. 만일 교육이 훌륭하다면 당신은 앞에서 말한 것 이외의 일은 추구하지 않으리라. 그런데도 당신은 계속해서 다른 많은 일을 소중히 여기려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자유롭지도 행복하지도 못하며, 정념으로부터 풀려나지도 못한다. 당신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선망과 질투와 의혹을 느낄 것이고,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원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신들을 자주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당신 자신의 정신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만족하고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신들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들이 부과하고 명령한 모든 일을 찬양할 것이다.

17 원소의 운동에는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또는 선회가 있다. 그러나 덕의 운동은 이와 다르다. 그 길은 보다 신성하며 알아볼 수 없는 길을 통해 즐겁게 걸어간다.

18 인간은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가. 사람들은 같은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후세 사람들, 아직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바라며 후세의 칭찬을 매우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선인(先人)들이 당신을 칭찬하지 않았다고 해서 슬퍼하는 것과 같다.

19 당신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인간에게 가능하고 또 그 본성에 맞는 일이 있으면, 당신도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20 체육 연습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하게 여기거나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교활한 놈이라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을 조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거나 의혹에 찬 눈으로 경계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공격을 조용히 피해야 한다. 다른 생활 분야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으리라. 체육관의 상대자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대하게 대하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의 공격을 조용히 피하고 의혹이나 증오를 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1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올바르게 행동하지도 못한다고 나에게 설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즐거이 나의 태도를 바꾸겠다. 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으며, 진리로 말미암아 해를 입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류와 무지에 안주하는 사람은 해를 입는다.

22 나는 나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밖의 일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그 밖의 일은 생명이 없는 일, 이성이 없는 일, 방황하면서 제 길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23 이성이 없는 동물, 일반적으로 이성이 없는 사물이나 대상에 대해서 당신은 이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것들은 이성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아량 있고 관대한 정신으로 대하라.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는 그들도 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사회적 정신으로 행동하라. 그리고 어떤 경우에든 항상 신에게 기도하고 그 일을 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 일에 세 시간 정도 소비하면 충분할 것이므로.

24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그의 마부도 죽은 다음에는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그들은 우주의 동일한 생성의 원리에 귀속되었거나, 아니면 한결같이 원자로 분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25 똑같은 찰나에 우리 모두에게 육체와 영혼 양면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유일하면서 전체적인 것, 곧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 속에 더 많은 것, 아니 오히려 생성되는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놀라지 않으리라.

26 어떤 사람이 안토니누스라는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고 당신에게 물으면 퉁명스

러운 목소리로 글자 하나하나를 말하려는가? 상대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도 화를 내겠는가? 침착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말해 주겠는가?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어서도 모든 의무는 일정한 부분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알고 나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 같이 화를 냄으로써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당신의 방식에 따라 눈앞에 닥친 일을 수행하며 완료하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

27 사람들에게 그들의 본성에 맞고 유익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진인한 일일 것인가!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못을 범했을 때 당신이 화를 낸다면, 어떤 의미에서 당신은 그들에게 이러한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들은 본성에 맞고 유익한 일이라고 믿으면서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본성에 맞고 유익한 일이 아니지만, 따라서 화를 내지 말고 가르치고 타일어야 한다.

28 죽음은 감각을 통한 인상(印象), 욕망을 일으키는 충동, 사상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움직임, 육신에 대한 봉사의 양도(讓渡)다.

29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은 굴복하지 않았는데 영혼이 먼저 굴복한다면 그것은 수치다.

30 카이사르와 같은 사람이 되거나 카이사르의 염료(사상)에 염색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따라서 단순하고 선량하고 순수하고 진지하고 허세를 부리지 말며, 정의의 편에 서고 신들을 공경하고 친절하고 자애롭고 모든 의무에 충실하라. 철학을 통해 배운 인간성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라. 신들을 존중하고 인간을 도와라. 인생은 짧다. 지상의 생활에서 맺는 유일한 열매는 경건한 자세와 사회적 활동뿐이다. 안토니누스의 제자답게 모든 일을 피하지 말라. 이성에 따르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의 지조, 공평하게 만사를 처리하는 그의 마음가짐, 그의 경건함, 그의 온화한 표정, 그의 쾌활함,

헛된 명성에 대한 그의 경멸, 사물을 이해하려는 그의 노력을 항상 상기하라. 또한 그는 어떠한 일이든 간과하지 않고 가장 면밀하게 검토하여 명백히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부당하게 그를 비난하는 자에게 비난을 되돌려주지 않고 참았다는 것을, 서두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중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것을,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고 소심하지 않았으며 의심하지도 않았고 소피스트가 아니었다는 것을, 집 · 침대 · 옷 · 음식 · 노예 등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을, 얼마나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있었는가를, 간소한 식사로 저녁때까지 견딜 수 있었고 정해진 시간이 아니면 아무리 급해도 자리를 떠나 변소에 간 적이 없다는 것을, 그의 확고하고 변함없는 우정을, 그의 의견에 반대하는 자에게 언론의 자유를 허용했다는 것을, 더 좋은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즐거워했는가를, 매우 종교적이면서도 미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을 상기하라. 임종의 시간이 왔을 때 그와 같이 떳떳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31 건전한 정신으로 되돌아가 자기 자신을 회복하라.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당신을 괴롭힌 것이 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깨어 있을 때에 당신 주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라.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꿈을 꾸었지만…….

32 나는 작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은 육체는 만물의 차이를 모른다. 육체는 그 차이를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력에 대해서는 오직 이해력의 작용에 속하지 않는 것만이 중립적이다. 그러나 이해력의 작용에 속하는 것은 모두 이해 능력의 범위 안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중에서도 현재와 관련되는 것만이 그 대상이 된다. 정신의 미래, 또는 과거의 활동은 현재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33 손이나 발로 하는 노동은, 발이 할 일을 발이 하고 손이 할 일을 손이 하는 한,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할 일을 인간이 하는 한, 인간 일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의 노고(勞苦)는 자연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노고가 그의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노고가 인간에게 해가 되지도 않는다.

34 강도, 존속 살해자, 폭군 등은 얼마나 많은 쾌락을 누려 왔는가.

35 직공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 기술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과 손을 맞추지만, 그의 기술의 이성(원리)을 견지하고 이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는가? 건축기사나 의사가 인간과 신에게 공통된 이성보다도 자기 자신의 기술의 이성(원리)을 더 존중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36 아시아도 유럽도 우주의 한 모퉁이다. 모든 바다는 우주 속의 물방울이다. 아토스 산³은 우주의 작은 흙덩어리다. 현재는 영원에서 본다면 한 점(點)에 지나지 않는다. 만물은 미소(微小)하고 가변적(可變的)이며 소멸한다. 만물은 그곳으로부터, 곧 보편적인 지배적 힘으로부터 직접 생기거나 연쇄를 통해 생긴다. 따라서 사자의 찍 별린 입이나 유독한 것, 가시나 진흙처럼 해로운 것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것의 모조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지 말고 만물의 근원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형성하라.

37 현재 속에 있는 것들을 본 사람은 만물, 곧 무한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 무한히 존재하게 될 모든 것을 본 것이다. 만물은 동류이며 유일한 형상(形相)을 가졌기 때문이다.

3 트라키아의 칼카디케 반도에 있는 험준한 산. 높이는 약 2,033m.

38 우주 속에서 만물이 관련되어 있는 유래와 만물 상호 간의 관계를 자주 생각해 보라. 어떤 의미에서 만물은 서로 얹혀 있고, 이런 점에서 만물은 서로 친숙하기 때문이다. 실체의 능동적 운동, 상호 협조, 그 통일성 때문에 사물은 질서정연하게 순서에 따라 발생한다.

39 당신의 운명이 부여한 것에는 적응하라. 운명에 의해 주어진 사람들—그들을 사랑하라.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랑하라.

40 모든 도구·연장·용기(容器)는 그 용도에 알맞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만, 이 것을 만든 사람은 내재(內在)해 있지 않다. 그러나 자연에 의해서 구성된 사물에는 이 사람을 만든 힘이 내재해 있고 그 안에 현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힘을 존경해야 하며 이 힘의 의도에 따라서 살고 행동한다면 만사는 이성에 따르게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우주 안에서 이러한 힘에 속해 있는 것은 이성에 일치한다.

41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것 중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 또는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싫어하는 일이 닥치거나 좋아하는 것을 잃었을 때 당신은 반드시 신들을 비난하고, 불운 또는 상실의 원인이 되었거나 그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증오하게 된다. 사실상 우리는 이와 같이 사물을 구별함으로써 많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 안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만 선악을 판단한다면, 신을 탓하거나 인간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이유는 없다.

42 우리는 예외 없이—어떤 사람은 이 목적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잠자는 사람도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의 실현자(實現者)요 협력자라고 말했거니와⁴ 우리는 잠잘 때에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협력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비난하는 자, 반대하는 자, 심지어 방해하는 자도 왕성한 협력을 하고 있다. 우주는 이러한 사람들도 협력자로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어떤 종류의 협력자에 끼어 있는가를 인식해야 한다. 만물을 다스리는 자는 당신을 정당하게 이용하고, 당신을 협력자로서, 또 유일한 목적을 실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자로서 받아들일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리십포스⁵가 언급하고 있는 극중(劇中)의 ‘야비하고 가소로운 밀’에 해당하는 역할은 하지 말라.

43 태양이 비의 역할을 하고 아스클레오피스가 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수 많은 별은 어떤가? 이 별들은 각기 다르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위해 협력하지 않는가?

44 신들이 나에 대해, 그리고 나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 결정을 내렸다면, 신들의 결정은 바람직한 것이라. 선견지명이 없는 신은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면 어째서 신들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을까? 나에게 화를 입힌다고 해서 신들이나 또는 신들의 각별한 섭리의 대상인 전체에 대해 어떠한 이익이 생기는가? 그러나 신들이 나에 대해 개별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신들은 전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정을 내렸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예정에 따라 일어나는 일을 나는 즐거이 받아들이고 이에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신들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부도덕

4 헤라클레이토스의 단편(斷片)에 “잠자는 자도 일하고 있다. 우주에 일어나는 일에 협력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5 크리십포스(282~206 B.C.)는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 제논을 계승한 크레안티스의 제자로 스토아 철학의 확립에 공헌이 많았다.

한 자가 아니라면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우리가 이를 믿어야 한다면 우리는 제물을 바치거나 기도하거나 신의 이름으로 맹세할 필요는 없고 마치 신이 현존하여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듯이 행동할 필요는 없다—하여튼 신이 우리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 나는 나 자신을 결정할 수 있고 유익한 것을 추구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이 본질과 본성에 따르는 것은 만인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런데 나의 본성은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내가 안토니누스인 한 나의 도시와 나의 조국은 로마이고, 내가 인간인 한 그것은 우주가 아닌가. 따라서 이러한 도시에 유익한 것만이 나에게도 유익하다.

45 각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주를 위한 일이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앞에서 한 말이 일반적인 진리임을 인정하게 되리라. 그러나 여기서 ‘유익하다’는 말은 선악을 가릴 수 없는 중립적인 사물에도 적용되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진 말임을 주목하라.

46 원형 극장(圓形劇場)이나 이와 비슷한 곳에서는 동일한 구경거리가 되풀이되어 관객은 획일성에 진저리를 낸다. 인생 전체도 마찬가지다. 천상천하(天上天下)의 온갖 일은 동일하며, 동일한 것으로부터 생겼기 때문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되려는가?

47 여러 민족에 속해 있으면서 다기다양한 욕망을 추구했던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라. 필리스티온 · 포이부스 · 오리가니온⁶에게까지 이 생각이 미쳐야 한다.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보자. 수많은 대웅변가, 헤라클레이토스 · 피타고拉斯 · 소크라테스 등 수많은 고상한 철학자, 예전의 수많은 영웅들, 그 후에는 수많은 장군들, 에우독소스 · 힙파르코스 · 아르키메데스⁷ 이외에도 예민 · 활달 · 근면 · 다예(多藝)하며 자신에 넘치는 수많은 천재들, 인간의 하루살이 같은 허망한 삶을 조소하던 메닙포스⁸ 일파 등을 배출한 나라를 보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땅속에 묻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가? 그 이름조차도 완전히 잊혀진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진리와 정의를 지키며, 거짓말과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관대한 태도로 대하면서 사는 것—여기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 한 가지뿐이다.

48 쾌활해지고 싶을 때에는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덕을 생각하라. 예를 들면 갑의 능동성(能動性), 을의 겸손, 병의 도량, 정(T)의 그 밖의 장점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풍부하게 덕을 나타낼 때, 이 덕의 본보기보다 더 유쾌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람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49 내가 상상하건대, 당신은 체중이 3백 리투라⁹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불만스럽지는 않으리라.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수명만큼 살고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것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라. 당신에게 주어진 물질의 양에 만족하듯이 당신은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50 우선 사람들을 설득해 보라. 또한 그들이 양해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의의 원

6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문맥으로 보아 아우렐리우스가 최근에 죽은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7 에우독소스(408~355 B.C.)는 그리스의 탁월한 수학자, 천문학자. 힙파르코스(C. 190~125 B.C.)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천문학자. 아르키메데스(C. 287~211 B.C.)는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리스의 과학자.

8 메닙포스는 키니코스 학파의 철학자로 풍자에 뛰어났다고 한다.

9 리투라는 그리스에서 청동(青銅)을 달 때 쓰이던 무게의 단위.

칙에 맞는 일이면 실행에 옮겨라. 그러나 폭력으로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맞고 방해가 없는 다른 일을 하고, 동시에 목전의 방해는 다른 덕을 발휘하는데 이용하라. 불가능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 당신의 행동이 시작되었음을 잊지 말라. 도대체 당신이 바라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이 바랐던 일이 실현되었다면, 당신은 당신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다.

51 명성을 탐내는 자는 다른 사람들의 활동을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 쾌락을 탐내는 자는 자기 자신의 감각을 이용한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자는 이성의 활동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52 사물에 대한 의견을 갖지 않고 따라서 영혼을 교란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가능하다. 사물 자체에는 우리의 의견을 형성시키는 자연적 힘이 없기 때문이다.

53 다른 사람의 말을 조심스럽게 듣는 습관을 길러라. 가능한 한 그 말을 하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들어라.

54 별 데에게 좋지 않은 것은 한 마리의 꿀벌에도 좋지 않다.

55 선원이 조타수를 혹사하거나 환자가 의사를 혹사한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이성)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조타수가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 의사가 자기를 찾아오는 환자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56 나와 함께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갔는가.

57 황달 환자에게는 물이 쓰고, 미친개에 물린 사람에게는 물이 공포의 대상이다. 공은 어린이에게 훌륭한 물건이다. 그런데 도대체 나는 왜 화를 내는가? 사이비 의견이 황달 환자의 담즙(膽汁)이나 미친개에 물린 사람의 독보다 그 힘이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58 당신이 당신 자신의 본성에 깃들인 이성에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없다. 보편적 자연의 이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59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에 의해 아첨을 할까? 시간은 얼마나 재빠르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빼앗아 갔는가.

제 7 장

1 악은 무엇인가? 당신이 자주 보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자주 보아 온 일임을 잊지 말라. 천상천하 어디를 보아도 동일한 것이 있을 뿐이다. 이 동일한 것이 고대(古代)와 중세와 현대의 역사를 가득 채우고 있고 현재의 도시들과 집들도 가득 채우고 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예부터 잘 알고 있는 순간적인 것들이다.

2 우리의 원리에 대응하는 인상(사상)이 말살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의 원리가 소멸될 수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사상을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는 힘은 당신에게 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모든 일에 대해 나는 이와 같은 의견을 가질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나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가? 나의 마음과 떨어져 있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한 당신은 의연할 수 있다. 새로운 삶도 당신에게 달려 있다. 사물을 지금까지 보아 온 대로 다시 보라.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삶이 가능해진다.

3 공연한 과시(誇示), 무대 위의 연극, 양 떼, 소 떼, 창(槍) 연습, 강아지에게 던져 준 뼈, 어항 속의 뺑 조각, 개미의 근면과 짐 나르기, 겁먹은 생쥐의 우왕좌왕, 실제로 조종되는 인형—이것이 삶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둘러싸여서 거드름을 피우지 말고 훌륭한 유머를 보이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 그러나 각자의 가치는 그의 정진(精進)하는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라.

4 토론을 할 때에는 남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하고, 행동을 할 때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이 어떠한 목표와 관련되는지를 즉각 알아야 하고, 토론을 할 때에는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음미해야 한다.

5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이해력은 충분한가, 그렇지 못한가? 만일 충분하다면 나는 이 이해력을 보편적 자연이 부여한 도구로서 이 일에 이용한다. 그러나 충분치 못하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내가 물려나서는 안 될 이유가 없는 한,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거나 나의 지배적 원리의 도움을 받아 일반적 선(善)에 적절하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조수로 삼아서 능력껏 처리한다. 혼자서 하든, 다른 사람의 힘을 빌 든 내가 하는 일은 사회에 유익하고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6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화려한 명성을 떨쳤으면서도 결국은 망각 속에 묻혀 버렸는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들의 명성을 친양하다가 오래전에 이미 이 세상을 떠났는가.

7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도시를 공격하는 병사처럼 의무를 완수하는 것이 당신의 직무이기 때문이다. 만일 불구하고 혼자서는 성벽을 기어오르지 못하지만 전우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한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8 미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라. 당신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눈앞에 닥친 일을 처리하는 그 이성에 의해서 미래의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9 만물은 서로 관련되어 있고 이 유대는 신성하다. 이 세상에는 서로 관련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으리라. 만물은 조정(調整)되어 있고 서로 결합해서 동일한 우주(질서)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만물로 구성된 유일한 우주, 만물을 섭리하는 유일한 신, 유일한 실체, 유일한 법칙, 모든 이성적 동물에 공통된 유일한 이성, 유일한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동류의 것으로서 동일한 이성을 분유(分有)하고 있는 모든 동물에 대해 유일한 완전성이 있다면 진리도 하나다.

10 질료적인 것은 모두 순식간에 만유(萬有)의 실체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형상적인 것은 모두 순식간에 보편적 이성으로 환원된다. 모든 기억은 순식간에 시간 속에 묻혀 버린다.

11 이성적 동물에 있어서 자연에 따르는 것과 이성에 따르는 것은 동일한 행동이다.

12 의연(毅然)하라. 아니면 남의 힘을 빌려서라도 의연해져라.

13 신체의 각 부분이 유기적인 것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이성적 존재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성적 존재는 협동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 자신에게 자주 “나는 이성적 존재라는 조직의 melos(지체)”라고 말한다면, 이러한 관계는 더욱 분명하게 인식될 것이다. 그러나 1 대신 r을 사용하여 meros(부분)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충심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자비심도 그 자체 때문에 당신을 유쾌하게 만들지 못한다. 당신은 예의로서 자비심을 베풀 뿐, 아직 자기 자신에게 선(善)을 행하고 있지는 않다.

14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의 영향을 받는 부분(육체)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라. 영향을 받는 이 부분들은 원한다면 불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를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나는 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15 누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든 나는 항상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치 금이나 에메랄드나 자폐(紫貝)는 “누가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에메랄드……임에는 변함이 없고 색깔도 바뀌지 않는다”고 항상 말하는 것처럼.

16 지배적 능력은 자기 자신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곧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능력에 위협을 가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개의치 말라. 지배적 능력 자체는 자기 의견에 의해 이러한 상태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육체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게 하고, 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를 말하도록 하라. 그러나 영혼 자체는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기는 하지만, 두려움이나 고통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는 완전한 힘을 갖고 있으므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다. 영혼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는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지도적 원리는 스스로 결합을 만들어 내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도적 원리가 자기 자신을 흐트러뜨리거나 방해하지 않는 한 당신은 당황하거나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17 행복(eudaemonia)은 좋은 신령이거나 좋은 일이다. 그런데 상상력이여, 도대체 그대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는 다른 곳에서 온 나그네이므로 신의 이름으로 간청하거나와 이제 떠나가라. 나는 그대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옛날 방식을 쫓아서 접근해 왔다. 나는 그대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다만 떠나가라.

18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도대체 변화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보편적이성에 대해 보다 만족스럽고 보다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장작이 변하지 않아도 당신은 목욕을 할 수 있는가? 음식이 변화하지 않아도 당신은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가? 그밖에 유익한 것으로서 변함없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 자신이 변하는 것도 동일한 경우에 속하며, 마찬가지로 보편적 자연에 있어서도 변화는 필수적임을 당신은 모르는가?

19 모든 물체는 그룹에 떠내려가듯 우주의 실체에 실려 흘러간다. 마치 신체의 각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듯이 그 본성에 따라 전체와 유기적 관련을 맺고 협력하면서. 시간은 크리십포스 같은 인물, 소크라테스 같은 인물, 에픽테토스 같은 인물을 얼마나 많이 삼켜 버렸는가? 모든 사람에 대해 이와 같이 생각하라.

20 인간의 본질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인간의 본질이 허용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나의 유일한 걱정이다.

21 당신은 머지않아 만사를 망각하게 되리라. 모든 사람은 머지않아 당신을 잊으리라.

22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사랑하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들도 당신과 동류(同類)이고 무지로 밀미암아 부지중에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들이나 당신이나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특히 그들이 당신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았다고 생각하라. 그들은 당신의 지배적 능력을 이전보다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23 보편적 자연은 보편적 물질로부터 마치 밀랍(蜜蠟)을 만들어 내듯이 이제 말(馬)을 만들어 내고 그 후에는 말을 해체하여 그 재료로 나무를 만들고, 다음에는 사람을, 그다음에는 다른 것을 만든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사물들은 잠시 동안 존재할 뿐이다. 그릇을 부숴 버리기는 쉽다. 그릇을 구워 내는 일이 어렵지 않듯이.

24 짹그린 얼굴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자주 짹그리면 모든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결국은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다시는 아름다워질 수 없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짹그린 얼굴은 자연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려라.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른다면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25 만유를 지배하고 있는 자연은 당신의 눈앞에 있는 만물을 곧 변화시키고 이것을 재료로 삼아 다른 사물을 만들 것이며, 두 번째로 만든 것을 재료로 삼아 또다시 다른 것을 만들 것이다. 이 세계가 영원히 젊음을 간직하도록.

26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즉시 선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졌기에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가를 생각해 보라. 이 점을 알게 되면 그를 동정하게 되고 놀라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 자신도 그가 저지른 것과 똑같은 일을 선이라고 생각하거나 이 일과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일을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를 용서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대해서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면 잘못을 범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기는 더욱 쉬울 것이다.

27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는 듯이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당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내고, 만일 이것마저도 갖고 있지 못했다면 얼마나 갈망했을까를 반성해 보라. 동시에 아주 기쁜 나머지 습관적으로 이것을 과대 평가하고, 이것을 잊으면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

28 당신 자신으로 돌아가라. 당신을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와 본성은 올바른 일을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만족한다.

29 상상력을 벼려라. 남의 조종을 받지 말라. 현재에 충실하라. 당신과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충분히 이해하라. 모든 대상을 원인(형상)과 질료로 나누어서 분류하라. 임종의 시간을 생각하라. 사람들이 저지른 과오는 그 과오가 일어난 곳에 남겨 두어라.

30 사람들이 하는 말에 주의하라. 일어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자를 충분히 이해하라.

31 소박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미덕과 악덕의 중간에 놓여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당신 자신을 연마하라. 인류를 사랑하라. 신에게 복종하라. 어떤 시인¹은 법칙이 만물을 지배한다고 말한다. 법칙이 만물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32 죽음에 대하여—그것이 소산(消散)이든, 원자로 분해되는 것이든, 절멸(絕滅)이든 소멸이나 변화일 뿐이다.

33 고통에 대하여—참기 어려운 고통은 넋을 잃게 한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고통은 참을 수 있다. 그리고 정신은 스스로를 지킴으로써 평정(平靜)을 유지하며 지배적 능력은 나빠지지 않는다. 그러나 해를 입는 부분(육체)은 가능한 경우 고통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도록 하라.

34 명성에 대하여—명성을 구하는자의 마음을 살펴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그들은 어떤 일을 회피하며 어떤 일을 추구하는지를 인식하라. 모래 더미 위에 모래를 부으면 먼저 있던 모래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삶에 있어서도 먼저 일어난 사건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 곧 가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

1 원자론자 데모크리토스를 말한 듯하다. 시인이라고 한 것은 당시의 철인들이 운문으로 저술을 했기 때문이다.

35 플라톤의 《대화편》에서—“고매한 정신으로 시간과 실체의 모두를 굽어보는 사람도 인생이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할까?” “불가능 합니다”라고 그는 대답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이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야” “물론 그렇습니다.”²

36 “좋은 일을 하고 욕을 먹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안티스테네스의 말)

37 외면적으로는 정신의 명령을 좇아 온순하고 단정하며 침착하면서도, 마음은 단정하지도 침착하지도 않다면 비열한 사람이다.

38 “사물 자체에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도 사물을 알지 못하므로.”³

39 영생하는 신과 우리에게 기쁨을 달라.

40 “벼가 익으면 거둬들이듯 삶을 거둬들여야 한다. 이 사람은 태어나고 저 사람은 죽는다.”⁴

41 “신께서 나와 내 자손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⁵

42 “선(善)과 정의는 나의 편이다.”⁶

43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격렬한 감정에 동조하지 말라.”⁷

2 플라톤의 《공화국》 중에서 인용.

3 그리스의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의 말.

4 에우리피데스의 말.

5 에우리피데스 《안티오페》 중에서 인용.

6 에우리피데스의 말.

7 출전 불명(出典不明).

44 플라톤의 《대화편》에서⁸—“그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 약간이라도 훌륭한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위협을 헤아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면서 오직 올바른 행위를 하느냐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 곧 선량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악한 사람이 할 일을 하느냐 하는 것만 고려해야 합니다.’”

45 “아테네인 여러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최선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부서에 배치받았든 또는 지휘관에 의해 배치되었든 간에 내 생각으로는 어떠한 위험도 무릅쓰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며, 비열하게 자기 부서를 이탈하지 말고 죽음이나 그 밖의 일은 고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⁹

46 “그러나 나의 좋은 친구여, 고상하고 선(善)한 것은 자기가 남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구별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가 진정한 남자라면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하는 고려나, 타인이나 자기의 생명을 구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며 생명에 집착해서는 안 될 걸세. 오히려 이 문제는 신에게 맡겨 놓고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여자들의 말을 믿으며,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추구해야 할 걸세.”¹⁰

47 마치 당신도 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별들의 운행(運行)을 살펴보고 원소 상호 간의 변화를 끊임없이 고찰하라. 이러한 사색은 지상 생활의 오예(汚穢)를 씻어 주기 때문이다.

8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중에서 인용.

9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중에서 인용.

10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중에서 인용.

48 플라톤의 말은 참으로 훌륭하다. “인간을 논하는 자는 마치 높은 곳에서 굽어 보듯이 지상의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군집(群集), 집단, 농경(農耕), 결혼, 조약, 탄생, 사망, 법정에서 외치는 소리, 불모(不毛)의 땅, 무수한 야만족(野蠻族), 축제, 비탄, 시장(市場), 이러한 모든 것의 혼합과 상반되는 것들의 질서정연한 결합이라는 면에서 지상의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¹¹

49 과거를 돌아보라, 정치적 지배권의 무상한 변천을. 당신은 미래의 일도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일도 분명히 과거의 일과 동일한 형태를 취할 것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질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40년 동안 인간의 생활을 관조(觀照)하는 것은 1만 년 동안 관조한 것과 같다. 고찰해야 할 일이 더 이상 남아 있을까?

50 “대지에서 생긴 것은 대지로, 하늘에서 생긴 것은 하늘 나라로 돌아간다.”¹² 이 말은 원자 복합(複合)의 분해, 또는 이와 동일한 비감각적 원소의 소산(消散)을 보여 준다.

51 “음식을 바치고 주문을 외며 죽음이라는 운명의 흐름에서 벗어나려고 한다.”¹³ “하늘에서 불어오는 미풍을 달갑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노고에도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¹⁴

11 플라톤의 말이라고 했으나 출전 불명. 서두에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였으나 전승 과정에서 탈락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가 유력하다.

12 에우리피데스의 《크리십포스》 중에서 인용.

13 에우리피데스의 《구원을 비는 여인들》 중에서 인용.

14 출전 불명.

52 적을 쓰러뜨리는 데는 다른 사람이 월등한 솜씨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사회적 유대나 겸손이나 온갖 일에 대처하는 훈련에 있어서는 뒤떨어지며, 이웃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취하지 못한다.

53 신과 인간에 공통된 이성에 따라 일을 하는 경우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의 본질에 맞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를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이다.

54 현재의 상황을 경건한 마음으로 묵묵히 받아들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여, 정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현재의 사상을 연마하는 것, 그것은 당신이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다.

55 다른 사람들의 지배적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두리번거리지 말고 어떤 본성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는가를 직시하라.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나타나는 보편적 본성과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당신 자신의 본성을 직시하라. 누구든 본질에 적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다른 사물은 이성적 존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마치 비이성적 사물에 있어서 약자는 강자를 위해 존재하고 이성적 존재는 상호 협조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서 인간 본질의 첫째 원리는 사회적인 것이다. 둘째는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밝히고 감각이나 욕망의 운동에 압도되지 않는 것은 이성 및 지성의 운동이 갖는 특별한 역할이다. 감각과 욕망은 동물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성의 운동은 우월성을 요구하고 다른 운동에 압도되지 않는다. 또한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도 갖고 있다. 지성의 운동은 본질적으로 다른 모든 운동을 이용하도록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 본질의 셋째 원리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기만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적 원리로 하여금 앞에서 말한 원리들을 견지하면서 전진하도록 하라. 그러면 이성은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다.

56 나는 죽은 몸이다. 오늘로서 나의 일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남은 생애를 자연에 순응하며 살아라.

57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 당신의 운명이 부여하는 것만을 사랑하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58 당신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든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했고 이 일을 얼마나 생소하게 여겼으며 또 얼마나 비난했는가를 생각하라.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 있는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가? 당신은 왜 자연에 어긋나는 이러한 교란을, 이러한 일을 일으키고 이러한 교란 때문에 동요하는 자들에게 맡겨 놓지 못하는가? 당신은 왜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용하는 올바른 길로 들어서려고 하지 않는가? 올바른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당신은 이 일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은 당신의 활동 소재가 될 것이다. 오직 자기 자신을 주목하라. 또 어떤 일을 하든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라. 그리고 기억하라……(원문 누락).

59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라. 내 마음속에는 선(善)의 샘이 있고, 이 샘은 아무리 길어 내도 결코 마르지 않는다.

60 육체를 견실하게 가끔으로써 그 행위나 태도에 불규칙한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 정신은 지성적이고 기품 있는 표정을 유지할 때 얼굴에 드러나거나와, 이것은 육체 전체에 대해서도 요구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허식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61 산다는 것은 무희(舞姫)의 재주보다는 레슬러의 기술에 더 가깝다. 예측할 수 없는 불의의 공격에 대비하여 항상 꿋꿋이 서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62 당신은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또 그들은 어떤 사람들 인가를 항상 반성하라. 그들의 의결과 욕구의 원천을 알게 되면, 당신은 부지중에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비난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63 “모든 영혼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진리를 빼앗긴다”¹⁵고 어떤 철학자는 말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정의, 절제, 자비심, 또는 그 밖의 것들도 빼앗긴다.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더욱 온화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64 고통을 겪을 때에는 항상 생각하라, 고통은 수치가 아니며 지배적 지성을 타락 시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그의 지성이 합리적인 한, 또 그의 지성이 사회적인 한 고통은 지성에 손상을 입히지 못한다. 고통을 당할 때에는 “당신의 고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명심하라. 상상에 의해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는 한, 참을 수 없거나 영속하는 고통은 없다”¹⁶는 에피쿠로스의 말을 상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많은 일, 예컨대 아주 졸리다든지, 몹시 덥다든지, 식욕이 없다든지 하는 것도 사실은 고통의 일종이며 단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도 잊지 말라. 따라서 이러한 일로 해서 불쾌해질 때에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라. 너는 고통에 굴복했다고.

15 에픽테토스의 《어록(語錄)》 중에서 인용.

16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올바른 인식에서 정신적 폐력을 구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342~270 B.C.)의 말이다.

65 비인간적인 자들에게 그들이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과 동일한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66 텔라우게스¹⁷가 소크라테스보다 인격이 탁월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소크라테스가 보다 고상한 죽음을 맞이했고 소피스트들을 보다 교묘하게 반박했으며, 추운 밤에도 태연히 밤을 새웠고 살라미스의 레온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고¹⁸ 거만한 태도로 거리를 활보했다¹⁹—이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사실이지만—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오히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영혼이 어떠한 영혼이었는가를 음미해야 한다. 인간의 사악 때문에 공연한 범민을 하지 않고 인간의 무지의 노예가 되지 않고 우주로부터 그의 운명에 할당되는 것을 생소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또 견디기 어려운 것을 참아 낸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이성이 비참한 육신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는 참으로 인간에게는 공정하고 신에게는 경건하게 살았는가를 검토해야 한다.

67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일을 처리할 수 없을 만큼 자연은 지성과 물체의 구성을 혼합시키지는 않았다. 신성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능하건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라.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심하라. 그리고 변증가(辨證家)가 되지 못하고 자연에 관한 지식에 조예가 없더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자유롭고 결손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신에게 순종하며 살고 싶다는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68 온 세상이 마음껏 당신을 욕하고 야수들이 물질을 혼합해서 만든 당신의 지체

17 피타고라스의 아들. 그러나 전설적인 인물이다.

18 살라미스의 레온은 아테네의 30인 독재 정치 때 반역죄로 몰려 무고하게 처형당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레온을 체포해 오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소크라테스의 변명》 참조.

19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 참조.

(肢體)를 갈기갈기 찢더라도 당신은 모든 강제로부터 풀려나 가장 평온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 속에서도 정신이 평정을 유지하고 주변의 사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하고 혼존하는 대상을 능숙하게 이용하며, 따라서 판단이 관찰되는 사물들을 향해 “인간의 의견에 대해서 그대들은 여러 가지 종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이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대상을 이용하는 능력은 수중에 장악된 것을 향해 “그대는 바로 내가 찾고 있던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무엇이 정신을 가로막을 것인가. 혼존하는 모든 것은 이성적·정치적 덕의 소재이며, 요컨대 인간과 신이 갖고 있는 기술의 재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 또는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새로운 것도 아니고 다루기 어려운 것도 아니며 오히려 잘 알고 있는, 다루기 쉬운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69 하루하루를 임종의 날로 여기며 살고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무기력해지지 말고 또한 위선자가 되지 않을 때, 도덕적 인격이 완성된다.

70 불멸의 신들은 장구한 시간에 걸쳐 끊임없이 오늘날과 같은 인간들, 그리고 수많은 악인에게 관용을 베풀면서도 싫증을 내지 않는다. 또한 신들은 모든 방법으로 인간을 돌본다. 그러하거늘 당신이, 순간을 살도록 운명 지어진 당신이 악인들에게 싫증을 내는가? 게다가 당신도 이러한 악인의 동료가 아닌가?

71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악은 보지 못하고 남의 악만 피하려고 하는 것은 우습지 않은가. 자기 자신의 악은 피할 수 있지만 남의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72 이성 및 정치적 (사회적) 능력이 지성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고 밝혀 놓은 사물을 열등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73 당신이 선행을 하고 상대방이 당신의 도움을 받았을 때, 왜 당신은 바보처럼 그

외의 제3의 사태를 열망하는가? 선행을 했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인가, 또는 대기를 받기 위해서인가?

74 유익한 일에 지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자연에 따르는 행위는 유익한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남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남이 당신에게 유익한 일을 해 주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

75 만유의 본성은 질서정연한 우주를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계열에 따라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지배적 힘이 운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사물조차도 이성적 원리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8 장

1 전 생애에 걸쳐서, 또는 적어도 청년 시대 이후로 철학자로 지낸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었고 다른 많은 사람은 물론 자기 자신조차도 철학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부질없는 명예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당신은 이미 세속에 물들이 철학자라는 명성을 쉽게 얻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깨달았을 때에는 남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은 버리고 남은 생애를 당신의 본성이 바라는 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라. 어디서도 행복을 찾지 못한 채 삼단논법(三段論法), 부(富), 평판, 향락, 그 어느 것에서도 행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한 경험을 잊지 말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다. 어떻게 하면 본성이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의 욕구와 행동으로부터 우러나온 원리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다. 어떤 원리인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원리다. 곧 인간을 정의, 절제, 남자다움, 자유로 이끌지 못하는 것은 선이 아니며, 이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이끌지 않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신념이다.

2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 행동은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행동을 후회하지 않을까?—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잠시 후에 나는 죽고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린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성적 존재, 사회적 존재, 그리고 신과 함께 동일한 법칙하에 놓여 있는 존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그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인가?

3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폼페이우스도 디오게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소크라테스와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한가? 후자들은 사물과 그 원인(형상)과 질료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의 지배적 원리는 동일했다. 그러나 전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열망했고 또 얼마나 많은 것에 사로잡혀 있었던가?

4 당신이 가슴을 찢는 듯한 슬픔에 잠겨 있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하라.

5 중요한 것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만물은 우주의 본성을 따르며 잠시 후에는 당신도 하드리아누스나 아우구스투스처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당신은 당신이 하는 일을 응시하여 그 정체를 파악하라. 동시에 착한 사람이 되어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지체 없이 행해야 한다는 당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리고 따뜻한 호의를 갖고 신중하고 거짓 없이 당신에게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말하라.

6 자연의 본성이 하는 일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기고 이를 변화시키며, 여기에 있는 것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만물은 변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것과 마주칠 염려는 없다. 만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사물의 배합(配合)은 변함없이 동일하다.

7 모든 본성은 순조롭게 발휘되지만 하면 이에 만족한다. 그리고 그 사상이 거짓 또는 불확실한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 운동이 다만 사회적 행동에 집중되고 그 욕망과 염오가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어 보편적 본성에 의해 할당된 모든 것이 만족할 때, 이성적인 본성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한다. 모든 특수한 본성은 보편적 본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잎의 본성은 식물의 본성의 한 부분이다. 식물에 있어서 그럴 뿐 아니라 잎의 본성은 지각과 이성이 결여되어 장애를 받고 있는 자연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장애를 받지 않는, 지성적이며 공정한 자연의 한 부분이다. 이 자연은 각 사물에 그 가치, 시간, 실체, 원인(형상), 활동, 사건에 따라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러나 사물들을 개별적으로 비교하여 모든 면에서 균등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사물의 전체를 다른 사물의 전체와 비교해서 검토하라.

8 당신에게는 독서할 여가나 능력은 없다. 그러나 당신은 오만을 저지할 여가나 능력을 갖고 있다. 쾌락과 고통을 극복할 여가도 있다. 명예욕을 극복하고 어리석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 아니 그들을 무시해 버릴만한 여유도 갖고 있다.

9 당신이 궁정 생활을 비난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하라. 당신 자신도 들어서는 안 된다.

10 후회는 유익한 일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일종의 자책(自責)이다. 그런데 선은 유익한 것이므로 유덕(有德)한 사람은 미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유덕한 사람은 감각적 쾌락을 거부한 다음 이를 후회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쾌락은 선도, 유익한 것도 아니다.

11 이 사물의 본성, 또는 본질은 무엇인가? 그 실체와 질료는 무엇인가? 그 원인적(原因的) 본성(형성)은 무엇인가? 이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랫동안 존재할 것인가?

12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에는 사회적 활동의 수행은 당신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에 적합한 일이지만, 잠은 비이성적 동물에게도 공통되는 것임을 상기하라. 각자의 본성에 맞는 일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참된 것이고 본성에 더욱 어울리는 것이며 사실상 더욱 즐거운 것이다.

13 끊임없이, 그리고 가능하다면 영혼이 어떤 인상을 받아들일 때마다 자연학(自然學)과 윤리학 및 변증법의 원리를 응용하라.

14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선악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라고 자문(自問)해 보라. 그가 쾌락과 고통과 그 원인, 명성과 불명예, 생과 사에 대해 이리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고 그가 이리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놀라거나 의아하게 여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면 된다.

15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달린 것을 보고 놀라면 수치인 것처럼, 의사와 선장이 환자나 역풍(逆風)에 놀란다면 그것도 수치다.

16 당신의 의견을 바꾸고 잘못을 바로잡아 준 사람을 따르는 것은 오류를 고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에 속한다. 당신 자신의 욕구와 판단에 따라, 특히 당신의 이성에 따라 행해진 활동은 당신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17 당신이 그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당신은 굳이 그 일을 하려는가? 그러나 타자(他者)의 능력에 속한 일이라면 당신은 누구를 비난하려는가? 원자(우연) 또는 신을? 모두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은 아무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에게 가능한 일이라면 당신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최소한 그 일 자체라도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비난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18 죽은 자는 우주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우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이 우주 안에서 변화하여 고유한 원소—이것은 우주의 원소이고 동시에 당신을 구성한 원소다—로 분해된다. 그리고 이 원소는 다시 다른 것으로 변하지만, 원소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19 모든 것은—말(馬)이든, 포도나무든—일정한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 이 점을 왜 의심하는가? 태양조차도 “나는 일정한 목적을 갖고 존재한다”고 말할 것이며, 신들도 같은 말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쾌락을 즐기는 것인가? 상식이 이런 생활을 허용하는가를 생각해 보라.

20 자연은 만물의 발단과 그 과정만이 아니라 그 종말도 섭리한다. 마치 공을 던진 사람처럼. 그런데 공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아래로 내려오다가 마침내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해롭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또 물거품이 이는 것은 좋은 일이고 물거품이 없어지는 것은 해롭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생명의) 빛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21 육신의 실상(實相)을 밝히고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라. 육신은 늙었을 때, 또 병들었을 때, 숨을 거둘 때는 어떻게 되는가?

칭찬하는 자와 칭찬받는 자, 기억하는 자와 기억되는 자, 이들은 모두 잠시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모두 이 세계의 한 모퉁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 모퉁이에서도 만인이 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 심지어 자기 자신이 한결같은 의견을 갖는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지구 전체는 단지 한 점에 불과하지 않은가.

22 눈앞에 닥친 문제—그것이 의견이든, 활동이든, 말(言語)이든—를 직시하라. 당신이 이러한 역경에 부딪힌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을 착하게 사는 것보다는 내일을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23 지금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인류에 대한 공헌을 고려하며 이 행동을 하고 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신들 및 만물의 근원—이것이 모든 일의 원인이다—과 관련시킨다.

24 당신은 목욕을 하면서 올리브유(油), 땀, 때, 더러운 물 등에 메스꺼움을 느낄 것이다. 일상생활의 각 부분이나 만물의 각 부분도 이러한 것들과 다름이 없다.

25 루킬라¹는 베루스²의 임종을 지켜봤으나 루킬라도 죽었다. 세쿤다³는 막시무스⁴의 임종을 지켜봤으나 세쿤다도 죽었다. 에피틴카누스⁵는 디오티무스⁶의 임종을 지켜봤으나 에피틴카누스도 죽었다. 안토니누스⁷는 파우스티나⁸의 임종을 지켜봤으나 안토니누스도 죽었다. 첼레르⁹는 하드리아누스¹⁰의 임종을 지켜봤으나 첼레르도 죽었다. 그리고 저 예리한 사람들, 저 예언자들, 저 거만한 사람들, 예를 들면 예리한 카락스, 플라톤 학파의 데메트리우스, 에우다에몬¹¹ 그 밖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루살이와 같이 별씨 오래전에 죽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곧 잊혀졌고 어떤 사람들은 전설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전설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명심하라. 이 작은 살덩어리, 곧 당신 자신도 사라지고 당신의 가련한 호흡도 끊어져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질 운명임을.

26 사람은 인간다운 활동을 할 때 만족을 느낀다.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고 감각적

1 루킬라는 아우렐리우스의 생모(生母).

2 베루스는 아우렐리우스의 실부(實父).

3 세쿤다는 막시무스의 아내.

4 막시무스는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로 아우렐리우스에 의해 집정관으로 임명되었다.

5 불명.

6 디오티무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총애했던 해방 노예라고 전해진다.

7 안토니누스는 아우렐리우스의 양부(養父).

8 파우스티나는 안토니누스 황제의 비.

9 첼레르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시종이며 웅변가.

10 로마의 유명한 황제.

11 카락스는 불명. 데메트리우스는 그리스의 키니코스 학파 철학자(여기서 플라톤 학파라고 한 것은 후대에 와서 잘못 삽입된 것이라고 하는 학자가 많다). 에우다에몬은 그리스의 저명한 점성가(占星家).

욕망을 경멸하며, 그럴듯한 현상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우주의 본성과 우주 안에 있는 사물들의 본성을 관조하는 것이 인간다운 활동이다.

27 당신과 다른 사물 간에는 세 가지 관계가 있다. 첫째는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와의 관계이고, 둘째는 만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원인과의 관계이며, 셋째는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다.

28 고통은 육체에 해롭거나—이 경우에는 육체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케 하라—영혼에 해롭다. 그러나 영혼에는 태연자약함을 유지하고 고통을 악으로 여기지 않는 능력이 있다. 모든 판단과 욕망과 염오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며, 어떠한 악도 마음 속에 침투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29 “나는 지금 어떠한 악도 내 영혼 속으로 숨어들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어떠한 욕망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으며 텔끝만한 마음의 동요도 없다. 오히려 눈앞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그 본성을 가려내고 그 가치에 따라 이용하고 있다.”—자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타이르면서 모든 상상을 씻어 내라. 자연은 이러한 능력을 당신에게 부여했다는 점을 명심하라.

30 원로원(元老院)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편견을 갖지 말고 공정한 말을 하라. 평이한 논법(論法)을 사용하라.

31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궁전, 그의 아내, 딸, 자손, 선조, 자매, 아그립파, 친척, 측근, 친구, 아레이우스, 아이체나스¹², 의사, 신관(神官) 등—궁전 전체가 사라져 버렸다.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폼페이의 경우와 같은 일족의 멸망을 고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해 보라. 묘비에 ‘일족 중 최후의 사람’이라는 말을 남겨 놓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선조들이 자손을 남기려고 얼마나 애썼겠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누군가는 ‘최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필연적인 사실임을 잊지 말라. 또한 전 인류의 멸망도 생각해 보라.

32 하나하나의 행동을 잘 처리함으로써 당신의 인생을 정연(整然)하게 만드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행위가 의무를 이행하거든 이를 만족하라. 의무를 이행하는 당신의 행위를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없다. 그러나 외적(外的)인 것으로서 방해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당신의 정당하고 견진 하며 신중한 행동을 저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능동적인 힘이 방해하지 않을까?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방해물을 묵인하고 가능한 일로 노력을 돌림으로써 방해받고 있는 활동 대신에 다른 활동을 할 기회가 곧 생길 것이고, 이러한 활동이 바로 앞에서 밀한 ‘정연한 인생’에 알맞은 것이다.

33 자만심 없이 부나 재산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아낌없이 버릴 각오를 하라.

12 아그립파와 아레이우스, 아이체나스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정치 고문. 아레이우스는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로 황제의 친구이기도 하다.

34 손이나 발이나 머리가 잘려나가 동체로부터 따로 떨어져 뒹구는 광경을 본 적이 있는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비사회적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당신이 자연의 통일성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하자. 당신은 자연의 일부로 만들어졌건만 스스로 자연과 절연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어서 당신은 자연의 통일성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신은 인간 이외의 다른 것에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간 것을 다시 결합시키는 능력을 허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간을 뛰어나게 한 신의 자비를 잊지 말라. 신은 인간을 우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간이 우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 다시 돌아와 일체를 이루고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맡을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았는가?

35 우주의 본성이 이성적 존재에게 모든 능력을 부여했거니와, 다음과 같은 능력도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곧 보편적인 본성은 방해하고 저항하는 것을 모두 주어진 자리로 되돌아오게 해서 자신의 일부로 삼는 것처럼, 이성적 물은 모든 방해물을 예정된 목적을 달성시키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36 당신의 전 생애를 생각해 보고 괴로워하지 말라. 당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여러 가지 고난을 한꺼번에 걱정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에서 참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를 초월한 면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해 보라. 이런 면이 있다고 자인하면 부끄러움을 누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에는 미래나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당신을 괴롭힌다는 점을 명심하라. 그러나 이러한 괴로움은 당신이 현재의 일에 전념하면, 그리고 현재의 일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당신의 마음을 질책하면 최소한으로 감소된다.

37 판테이아와 페르가무스¹³는 지금도 베루스의 무덤 앞에 끓어앉아 있을까? 카브

13 판테이아는 베루스의 애첩. 페르가무스는 베루스가 측근에 두었던 해방 노예.

리아스¹⁴나 디오티무스는 지금도 하드리아누스의 무덤 앞에 끓어앉아 있을까? 생각하기조차 우스운 일이다. 자, 그들이 무덤 앞에 끓어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자. 고인이 알고 있을까? 고인이 알고 있다면 그들은 기쁠까? 또 기뻐한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할까? 그들도 처음에는 노파나 노인이 되었다가 결국은 죽고 말 운명이 아니었던가? 그들이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모두 부질없고 하찮은 것이다.

38 어떤 철학자¹⁵가 한 말처럼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거든 잘 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라.

39 나는 이성적 본질의 동물에서 정의와 상반되는 덕을 찾아낸 적이 없다. 그러나 나는 쾌락에 반대하는 덕을 보았다. 절제가 그것이다.

40 당신을 괴롭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버린다면, 당신은 절대로 안전하다. 이러한 자아는 무엇인가? 이성이다. 그러나 나는 이성 그 자체는 아니다. 그렇다면 이성 자체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나 당신의 다른 부분(육체)이 고통을 받는다면, 고통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도록 하라.

41 감각적 지각에 대한 장애는 동물의 본성에 대해서는 악이다. 운동(욕망)에 대한 장애도 역시 동물의 본성에 대해서는 악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식물의 구조에 대해 역시 장애가 되고 악이 되는 것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성을 방해하는 것은 지성적 본성에 대해서는 악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보라. 고통이나 감각적 쾌락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점은 감각이 알고 있으리라. 목적을 달성하려는 당신의 노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가? 만일 당신의 노력이 절대적인 것(무조건적인 것, 또는 유보가 없는 것)이라면, 분명히

14 카브리아스는 디오티무스처럼 하드리아누스의 애첩 이었던 듯하다.

15 불명.

이러한 장애는 이성적 동물인 당신에게는 악이다. 그러나 사물의 통상적인 과정을 고려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해를 입거나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성에 적합한 일은 아무도 방해하지 못한다. 불도, 강철도, 폭군도, 치욕도, 이성에 상처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성은 일단 원형¹⁶이 된 다음에는 항상 원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42 내가 나 자신에게 고통을 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타인에게도 고의로 고통을 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43 여러 가지 일이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나 나의 기쁨은 나의 지배적 능력이 전전하여 다른 사람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싫어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며 그 응분의 가치에 따라 활용하는 데 있다.

44 현재 시간에 충실하라. 후세의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후세의 사람들도 그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고 또 후세의 사람도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후세의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든, 또는 당신에 대해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품든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16 그리스인은 가장 완전한 모양이 원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성이 인간의 지배적 부분, 지배적 능력, 또는 지배적 원리라고 일컬어지므로 가장 완전한 것이며, 따라서 그 모양은 원형이라고 생각하였다.

45 나를 불잡아서 당신 마음대로 집어던져라. 나는 그곳에서도 나의 신성한 부분의 평정(平靜)을 유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유한 본질에 따라 생각하고 활동하는 한 만족할 것이다. 이러한 장소의 이동은 내 영혼의 불행, 악화, 타락, 탐닉, 위축, 경악의 충분한 원인이 될 수 있는가? 또는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원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46 비인간적인 사건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 황소에게는 황소의 본성에 맞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돌에는 돌의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물에 대해 통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왜 당신은 불평을 하는가? 보편적인 본성은 당신이 견디어 낼 수 없는 일은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47 외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판단이다. 당신은 이러한 판단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당신의 의견의 교정(矯正)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당신은 왜 불평을 그치고 행동하지 않는가? 제거할 수 없는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슬퍼하지 말라. 그러나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살 보람이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충분한 활동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처럼 장애물에 대해 화를 내지 말고 만족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라.

48 지배적 능력이 침착하게 자기 자신에 만족하고 바라지 않는 일은 고집을 부려서라도 피한다면, 지배적 능력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다면 지배적 능력이 이성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을 내렸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므로 정념(情念)에 흔들리지 않는 정신은 요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요새보다 더 견고한 것은 없다. 일단 그 안으로 피신하면 금후로는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요새로 도피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49 최초의 인상 이상의 것을 마음에 담아 두지 말라. 어떤 사람이 당신에 대해 혐담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이것은 전해 들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말엔 당신이 이 혐담 때문에 해를 입었다는 말은 들어 있지 않다. 나는 내 아들이 앓는 것을 본다. 그러나 내 아들이 위독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항상 최초의 인상만을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다른 의견을 첨가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처럼 논평하라.

50 쓴 오이가 있다. 오이를 버려라. 길 가운데에 가시덤불이 있다. 비켜서 가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비웃을 것이다. 당신이 목수나 제화공의 작업장에 가서 대팻밥이나 가죽 조각이 널려 있다고 해서 꾸짖으면 웃음거리가 되듯이. 목수나 제화공은 대팻밥이나 가죽 조각을 버릴 곳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인 자연에는 여분의 공간이 없다. 그러나 자연은 이와 같이 여유가 없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시들거나 노화(老化)하거나 무용지물이 되면 이를 받아들여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자연은 밖에서 물질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쓰레기를 버릴 장소도 필요하지 않다. 자연은 현재의 공간, 현재의 기술로 자족한다.

51 우둔한 행동, 조리 없는 대화, 사상적 방황, 영혼의 내적인 분란과 외적인 혼란, 여가가 없을 정도로 분망한 생활은 금물이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고 사지를 찢고 저주를 한다고 상상해 보라. 이런 일이 정신을 순결하고 현명하며 건전하고 올바르게 가꾸려는 당신의 노력을 방해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투명하고 맑은 샘물 옆에 서서 이 샘물을 저주하더라도 이 샘물은 변함없이 식수를 공급 할 것이다. 그리고 진흙이나 오물을 집어 넣더라도 샘물은 이를 재빨리 흘려 보내고 그 자국을 씻어 내므로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신은 평범한 우물이 아니라 그치지 않고 샘솟는 영원한 마음의 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하고 소박한 생활 속에서 항상 자유로우면 된다.

52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존재하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이며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지도 말할 수 없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찬양의 박수갈채를 피하거나 탐낸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53 당신은 매시간 세 번씩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의 칭찬을 받고 싶은가?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고 싶은가? 자기 자신의 모든 행동을 회의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

54 당신의 이성은 이제 당신을 둘러싼 공기를 호흡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만물을 포용(包容)하는 이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성의 힘은 각 부분에 퍼져서 이성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것에 편재(遍在)하는 것으로서, 호흡하는 자에 대한 공기의 힘에 못지않은 것이다.

55 일반적으로 말해서 악은 우주에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어떤 사람의 악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한다. 악은 다만 원하기만 하면 곧 악으로부터 풀려날 수도 있는 사람(자기 자신)에게만 유해하다.

56 이웃 사람의 자유 의지는 그의 가엾은 호흡과 살덩어리와 마찬가지로 나의 자유 의지와는 관계가 없다. 우리는 각별한 상호 의존의 관계에 있지만, 각자의 지배적 힘은 독자성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사람의 악이 나에게 해를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원하지 않는다.

57 쏟아져 나와서 사방으로 분산되는 것 같지만 유출(流出)은 아니다. 이러한 분산은 연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선’이라고 부른다. 태양의 빛은 연장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좁은 틈을 통해 암실로 흘러들어오는 태양 빛을 보면, 광선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광선은 직선으로 연장되고 고체가 앞을 가로막아 공기의 유통을 방해하면 굴절한다. 그러나 빛은 여기서 정지하는 것이지 미끄러져 나가거나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 이성의 전개나 확산(擴散)도 이와 같아서 유출이 아니라 연장이어야 하며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난폭하고 격렬한 충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또한 추락하지 않고 정지해서 이성을 받아들이는 자를 비추어야 한다.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물체는 조명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58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감각의 상실이나 다른 종류의 감각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감각을 상실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떠한 위험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만일 다른 종류의 감각을 획득하게 된다면 당신은 다른 종류의 생물로서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생존이 끝난 것은 아니다.

59 사람들은 서로 협조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참아라.

60 화살과 정신이 운동하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 그러나 정신은 주의력을 집중하거나 탐구에 열중할 때에는 화살과 마찬가지로 대상을 향해 직진(直進)한다.

61 모든 사람의 지배적 능력을 살펴보아라.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지배적 능력을 검토하게 하라.

제 9 장

1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편적 본성은 이성적 동물로 하여금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서로 돋고 서로 해를 입히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본성의 의도를 무시하는 자는 분명히 최고의 신에게 불경죄(不敬罪)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역시 이 신에게 불경죄를 범한다. 보편적 본성은 현존하는 사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존하는 사물은 장차 존재하고 있는 만물과 관계를 맺고 있다. 더 나아가 보편적 본성은 진리라고 불리며 모든 진실한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자는 기만에 의해 부정한 행동을 하므로 불경죄를 범한다. 또한 부지 중에 거짓말을 하는 자는 보편적 본성과 모순을 일으키고 세계의 본성에 도전하여 그 질서를 교란시키므로 불경죄를 범한다. 진리의 본성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허위와 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을 자연으로부터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능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허위와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리고 쾌락을 선이라고 하여 추구하고 고통을 악이라고 하여 회피하는 자도 불경죄를 범한다. 이러한 사람은 반드시 보편적 본성을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악인이 쾌락을 누리고 쾌락을 산출하는 사물을 소유하는 데 반해 선인은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통을 일으키는 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 것으로 보아, 보편적 본성은 공과(功過)에 따라 악인과 선인에게 사물을 분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또한 고통을 두려워하는 자는 때로는 이 세계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데 이것도 불경죄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는 서슴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는데, 이것도 명백한 불경죄다. 그런데 보편적 본성이 공평하게 다루는 대립물에 대해서는 자연을 따르려고 하는 자도 보편적 본성과 같은 정신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 대립물을 공평히 다룰 수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 본성은 대립물을 창조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통과 쾌락, 생과 사, 영광과 불명예—보편적 본성은 이러한 것을 공평하게 다룬다—에 대해서 공평한 처사를 할 수 없는 자는 명백히 불경스러운 행동을 하는 자다. 그런데 나는 ‘연속적’인 계열에 따라 생기(生起)하는 것과 또한 섭리와 근원적 요구에 따라 이러한 생기를 계승하는 것에 대해 “대립물이 생긴다”고 말하는 대신 “보

편적인 본성이 대립물을 공평하게 다룬다”고 말한 것이다. 한편 보편적 본성은 섭리의 근원적 욕구에 따라 장래의 사물에 대한 원리를 파악하고 존재와 변화와 그 밖의 계기(繼起)를 산출하는 힘을 결정하면서 그 시초로부터 현재의 사물의 질서에 이르기까지의 전개를 주관하고 있다.

2 거짓말, 위선, 사치, 오만을 맛보지 않고 인류와 차별을 고한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행복한 운명이리라. 그러나 이러한 것에 싫증이 났을 때 숨을 거두는 것은 두 번째로 좋은 여행이리라. 당신은 악덕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는가? 이 악역(惡疫)으로부터 피신하지 않을 셈인가? 이성의 파괴야말로 악역이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오염이나 변질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후자는 동물의 동물다운 본질에 대한 악역이지만, 전자는 인간의 인간다운 본질에 대한 악역이기 때문이다.

3 죽음을 경멸하지 말라. 죽음도 자연이 원하는 것이므로 이에 만족하라. 청년이 되고 나이 들고 성장하고 장년이 되고, 이가 나고 수염이 나고 백발이 생기고 임신하고 분만하는 등 그 밖의 인생의 각 단계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자연의 작용도 역시 소멸이다. 따라서 죽음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성급하지 않고 거만한 태도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연 작용의 한 갈래로 여기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것이 사려 깊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당신이 아내의 태내에 있는 어린애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이 (육체라는) 외피(外皮)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시간에 대비하라. 그러나 당신의 마음을 달래 줄 통속적인 위안이 필요하다면 바야흐로 떠나려고 하는 이 세상이 어떤 것이며, 앞으로는 당신의 영혼이 관계를 갖지 않게 될 이 세상 사람들의 품성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함으로써 죽음과 최대한으로 화해하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며 오히려 그들을 돌봐주며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과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 만일 우리와 같은 원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허용된다면—이런 일이 가능하다면—이것만이 우리를 세상으로 돌려세우고 생에 집착하게 하는 유일

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인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라. “죽음이여, 어서 오라, 내가 나 자신을 망각하기 전에”라고.

4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부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다.

5 어떤 행동을 할 때만이 아니라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때에도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6 현재의 의견이 이성에 따라 형성되어 있고 현재의 행위가 사회적 선을 지향하며 현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7 상상력을 제거하라. 욕망을 억제하라. 관심을 버려라. 지배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라.

8 이성을 갖지 못한 동물들에게는 오직 생명이 분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성적 동물들에게는 오직 이성적인 영혼이 분배되어 있을 뿐이다. 지상적(地上的) 인 본성을 가진 모든 사물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의 지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시각이 있고, 생명이 있는 우리는 누구나 유일한 빛을 통해 보고 공기를 호흡한다.

9 공통된 것을 분유(分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 동일한 것을 욕구한다. 흙의 성질을 가진 것은 모두 흙을 욕구하고, 물의 성질을 가진 것은 어울려서 흘러 가며, 공기의 성질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것들을 분리시키려면, 폭력이 필요할 정도인 것이다. 사실상 불은 불의 원소의 성질 때문에 상승하는 성질을 갖고 있고 지상의 온갖 불과 함께 타오르며 약간 건조한 물체는 발화를 방해하는 요

소가 적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발화될 정도인 것이다. 따라서 공통된 이성적 본성을 분유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또는 그 이상으로 동일한 것을 욕구한다.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때 탁월하므로 그만큼 더 쉽게 동류(同類)와 혼합되고 융합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이성이 결여된 동물 가운데에서도 별레나 가축의 무리를 찾아볼 수 있고 어미 새가 새끼를 기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성적 동물 간에는 정치적 공동체, 우정, 가족, 전시(戰時)의 동맹과 휴전이 있다. 그러나 별을 보면 알 수 있거니와 보다 탁월한 것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일종의 통일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그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분리된 사물 간에 일종의 공감 작용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라. 오직 이성적 동물만이 이러한 상호 간의 욕구와 열의를 막강하고 있으며, 또한 합류(合流)하는 성질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간이 이러한 결합을 기피하더라도 그들은 아직도 이러한 결합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들은 결합하려는 본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잠시 숙고해 보면 내가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따라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보다는 어떠한 흙의 성질과도 관계가 없는 흙의 성질을 가진 사물을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10 인간과 신과 우주는 열매를 맺는다. 각기 적당한 계절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각별히 포도나무, 그 밖의 나무에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이성은 만유(萬有)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데, 이성 자체와 동일한 종류의 열매가 열린다.

11 가능하다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타일러서 바로잡아라. 그러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위해서 당신에게 관용이 부여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신들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관용을 베푼다. 또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 건강과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을 돋는다. 이와 같이 신들은 친절하다. 또한 당신도 친절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 당신을 방해할 것인가?

12 땀 흘려 일할 때, 비참한 사람처럼 처신하지 말라. 또한 여인을 구하는 사람, 찬양을 구하는 사람처럼 처신하지도 말라. 다만 사회적 이성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고 극기하는 것만을 염원하라.

13 오늘 나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풀려났다. 아니 차라리 모든 근심을 몰아냈다고 해야 하리라. 왜냐하면 근심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내 의견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14 만물은 동일하다. 경험에 있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시간에 있어서는 하루살이와 같은 것이며 재료로서는 무가치한 것이다. 우리가 묻어 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 있어서나 지금이나 만물은 변함이 없다.

15 사물은 자기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또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으면서 따로따로 떨어져서 우리의 외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사물들에 대해 판단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은 지배적 능력이다.

16 이성적 · 사회적 동물의 선과 악은 피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이다. 그의 덕과 악덕이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처럼.

17 던져진 돌에 대해 낙하(落下)가 악이고 상승(上昇)이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18 사람들의 지도적 원리에 침투하라. 그러면 당신은 어떤 심판관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심판관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관인가를 알 수 있다.

19 만물은 변화하고 있다. 당신 자신도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는 파괴 속에 있다. 전 우주도 마찬가지다.

20 다른 사람의 과오를 눈감아 주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21 활동 정지, 욕구와 의견의 단절, 말하자면 죽음은 악이 아니다. 지금은 오직 당신의 생애, 예컨대 유아기 · 청년기 · 장년기 · 노년기를 생각해 보라. 이러한 각 시기에 있어서도 모든 변화는 죽음이었음을 알게 되리라. 이러한 변화는 두려운 것일까? 할아버지 밑에서 지내던 시절, 어머니 밑에서 지내던 시절, 아버지 밑에서 지내던 시절을 생각해 보라. 그래서 많은 차이점과 변화와 결말을 발견하거든 “이것은 두려운 것인가?”라고 자문해 보라.

마찬가지로 당신의 전 생애의 결말이나 단절이나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22 급히 당신 자신의 지배적 능력과 우주의 지배적 능력과 이웃 사람의 지배적 능력을 검토해 보라. 당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의 지배적 능력을, 당신이 우주의 어떤 부분인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주의 지배적 능력을 검토하라. 그리고 이웃 사람이 무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가려내고 그의 지배적 능력도 당신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의 지배적 능력을 검토하라.

23 당신 자신이 사회 조직의 구성 요소인 것처럼 당신의 모든 행동도 사회생활의 구성 요소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행동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회적 목표와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행동은 당신의 생활로부터 동떨어지고 통일을 유지하지 못하며 일종의 반란 행위가 될 것이다. 마치 대중 집회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자가 일반적인 협조에서 제외되듯이.

24 어린애의 말다툼과 그들의 유희, 시체를 메고 다니는 가엾은 영혼—모든 것은 이와 같다. 따라서 저 네큐이아의 비의(秘儀)¹가 생생하게 눈앞에 떠오른다.

1 정해진 의식에 따라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는 신비한 의식.

25 어떤 대상의 형상적(形相的) 성질을 고찰하려면 이 성질을 질료적(質料的) 부분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킨 다음 이를 관조하라. 다음에는 시간을, 곧 이 독특한 형상을 가진 사물이 자연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속 시간을 부여받았는가를 밝혀라.

26 당신의 지배적 능력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때, 이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수한 고난을 겪어 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 않은가.

27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고 증오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방할 때, 그들의 가엾은 영혼에 접근하여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라. 당신은 이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품었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온화한 태도를 취하라. 그들은 본성상 당신의 친구이기 때문이다. 신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곧 꿈이나 신탁에 의해서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성취하도록 돋고 있다.

28 우주의 주기적(周期的) 운동은 변함이 없다. 영원히 ‘올라가는 길’과 ‘내려가는 길’²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우주의 이성이 개별적인 결과를 야기시키면서 움직인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주 이성의 결과에 만족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주 이성의 활동 결과에 만족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주의 이성은 단 한 번 움직이고 그 밖의 모든 일은, 말하자면 계기(繼起)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혹은 불가분의 원소가 만물의 근원이 되리라. 요컨대 신이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만일 우연이 존재한다면, 우연의 지배를 받지 말라.

잠시 후에는 흙이 우리 모두를 덮어 주리라. 그러나 흙도 변화하고 이 변화로부터 생긴 것은 영원히 변화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물결이 밀려오듯 연속되는 이러한 변화와 변형, 그리고 그 속도를 반성해 보는 사람은 이와 같이 사라져 버리는 모든 것을 경멸하리라.

2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자들이 우주의 생성 원리를 설명 할 때 사용한 말로, 대체로 ‘올라가는 길’은 생성의 길이고 ‘내려가는 길’은 소멸의 길이다.

29 보편적인 원인(우주 생성의 원인)은 말하자면 격류(激流)이다. 모든 것을 휩쓸어 간다. 그러나 정치 문제에 관여하고 철학자인 체하는 저 가련한 많은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모두 철없는 소리를 지껄이는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여, 자연이 요구하는 바를 수행하라. 가능한 한 활동을 계속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라. 또한 플라톤의 '이상 국가'도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사소한 일이라도 순조롭게 진행되면 만족하고 이 일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라. 누가 인간의 의견을 변경시킬 수 있는가? 의견의 변화가 없는 한, 오직 순종하는 척하면서 불평을 말하는 노예와 같은 인간들이 있을 뿐이 아닌가? 자, 나에게 알렉산드로스, 필립포스, 팔레론의 데메트리우스³에 관한 이야기를 해다오. 그들은 보편적인 본성이 요구하는 바를 알아내고, 이에 따라 수양을 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이 비극의 주인공처럼 행동했다면 나에게 그들을 모방한다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철학은 소박하고 겸손한 생활을 가르친다. 나태와 오만을 배우지 않도록 하라.

30 무수한 사람의 떼, 무수한 의식(儀式), 폭풍우와 맑은 날을 가리지 않는 무수한 항해, 태어나서 함께 살다가 죽어 가는 사람들의 천태만상—이를 부감(俯瞰)해보라. 그리고 고대인의 생활, 미래의 생활, 현재 야만인들의 생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모르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곧 당신의 이름을 잊게 될 것인가, 또한 지금은 당신을 친양하는 사람들이 곧 당신을 비난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후세의 명성이나 평판이나 그 밖의 것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3 알렉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필립포스(382~336 B.C.)는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팔레론의 데메트리우스(C. 350~? B.C.)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정치가, 저술가. 팔레론은 아테네 남쪽의 항구 및 그 일대의 지명.

31 외부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일에 대해서는 동요하지 말라. 내부적 원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정의에 따라 대처하라. 다시 말하면 사회적 행동에 국한해서 이를 욕구하고 실천하라. 사회적 행동은 당신의 본성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32 당신을 방해하는 것 중에는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무용지물이 많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전적으로 당신의 의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전 우주를 파악하고 영원한 시간을 관조하며, 모든 개별적 사물의 신속한 변화를 생각하고,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기간이 얼마나 짧으며 생성 이전의 시간과 소멸 이후의 시간은 얼마나 무한하고 끝없는가를 생각함으로써 당신은 충분한 여유를 획득할 수 있다.

33 당신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재빨리 소멸될 것이며, 이러한 소멸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장수(長壽)한 사람이나 요절한 사람이나 동일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34 이 사람들의 지도적 원리는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랑과 존경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가련한 영혼을 적나라하게 폭로시켰다고 상상해 보라. 그들이 그들의 비난에 의해 해를 입히고 그들의 친양에 의해 이익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부질없는 생각인가!

35 상실은 바로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본성은 변화를 좋아하며, 따라서 보편적 자연에 순종하면 모든 일은 순조롭다. 영원한 옛날부터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어 왔고 앞으로도 무한히 되풀이될 것이다. 그래도 당신은 이렇게 말하려는가? 만물은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언제나 악하고 무수한 신이 이러한 태를 교정하려고 했으나 혓된 노력이었으며, 세계는 끊임없는 악 속에 묻혀 있도록 저주받았다고.

36 물질의 부패, 그것은 만물의 기본이다! 물 · 먼지 · 뼈는 오물로부터 생긴 것이고 대리석은 흙의 응고이며, 금과 은은 침전물의 축적이고 의복은 한 줌의 털로 짠 것이며, 자색(紫色)의 염료는 혈액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 밖의 모든 것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의 호흡(생명)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37 불행한 삶, 불평불만, 원숭이 같은 잔재주에 진저리가 나지 않는가? 왜 당신의 마음은 동요하는가? 어디에 새로운 것이 있는가? 무엇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가? 사물의 형상(形相)인가, 또는 질료(質料)인가? 잘 살펴보라. 형상과 질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이제는 신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더욱 소박하고 훌륭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사물의 세계를 백 년 동안 검토하거나 삼 년 동안 검토하거나 결과는 같지 않을까?

38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입힐 뿐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과오를 저지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39 만물은 유일한 이성적 근원으로부터,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각 부분은 전체에 유익한 일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혹은 오직 원자가 존재하고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마음의 동요를 느끼는가? 당신의 지배적 능력에게 말하라. “그대는 죽었고 그대는 부패했으며, 그대는 위선을 행하고 그대는 짐승이 되어 짐승 뼈와 함께 살며 풀을 먹지 않는가?”라고.

40 신들은 힘이 없거나 또는 힘이 있거나 둘 중의 하나다. 만일 신들에게 힘이 없다면 왜 당신은 신들에게 기도하는가? 그러나 신들에게 힘이 있다면 왜 당신은 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시고 원하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게 해 주시며 고통을 받지 않게 해 주소서.” 두려움이나 욕망이나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든지, 또는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만일 신들이 분명히 인간에게 협력할 수 있다면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신들이 나에게 이러한 목적을 주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노예와 같은 비열한 태도로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보다는 자유인으로서 가능한 일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인간에게 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신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어쨌든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할 수 있습니까?”라고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하고 싶다는 욕망을 누를 수 있습니까?”라고 기도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갓난애를 잊지 않을까요?”라고 기도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자식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까요?”라고 기도한다. 요컨대 이와 같이 기도해 보라. 그러면 그 결말을 알게 될 것이다.

41 에피쿠로스는 “병상에 있는 동안, 나는 나의 육체의 고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병문안을 온 사람과도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본성에 대한 토론을 계속했고, 인간의 정신이 보잘것없는 육체의 이러한 운동(병)에 관여하면서도 동요를 느끼지 않고 고유한 선을 행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삼았다”고 말한다. 또한 그는 “의사들에게 마치 위대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엄숙한 표정을 나타낼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생활은 순조롭고 행복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당신도 병상에 누웠을 때, 또는 그 밖의 다른 재난에 부딪혔을 때 에피쿠로스와 마찬가지로 행동하라. 어떠한 사건이 닥치든 철학을 포기하지 않고 무지한 사람, 또는 자연을 잘 모르는 사람과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철학의 모든 학파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 일을 하는 수단에 대해서만 고려해야 한다.

42 어떤 사람의 염치없는 행동 때문에 화가 나거든, 즉시 자문(自問)하라. “염치없

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말라. 이 사람도 반드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염치없는 사람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악한이나 믿을 수 없는 자나 그 밖의 잘못을 범하는 자를 만날 때에도 이러한 고려를 잊지 말라.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당신은 이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보다 따뜻한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즉시 자연이 인간에게 부여한 덕 중에서 이러한 온갖 악행(惡行)과 상반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도 유익하다. 자연은 인간에게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해독제로서 관용을,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힘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든 빗나가는 사람을 타일러서 바로잡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목적을 상실하고 그래서 빗나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 점에서 해를 입었는가? 당신은 당신을 화나게 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당신의 정신을 나쁘게 만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당신에게 해악(害惡)이 생긴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육받지 못한 사람답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어째서 해롭고 신기할 것인가? 오히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기대했던 당신 자신을 비난해야 한다고 생각하라. 당신에게는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추리할 수단이 이성에 의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이 사람의 과오를 보고 경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없다거나 은혜를 모른다고 비난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난을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한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약속을 지키리라고 믿은 것도, 또 친절을 베풀면서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는 것도, 또 친절을 베풀고 당장 이익을 거두지 않은 것도 결국은 당신 자신의 실책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봉사했을 때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당신의 본성에 맞는 행동을 한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대가를 바라는가? 이것은 마치 눈이 시력에 대한 보상을, 발이 보행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원래 눈이나 발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고, 그 본래의 역할에 따라 활동할 때 본래의 기능

을 가장 잘 발휘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비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그 본성이며, 그가 자비를 베풀었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했을 때에는 그는 자신의 본질에 따라 행동한 것이고 그의 본성을 충분히 발휘한 것이다.

제 10 장

1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착하고 단순하며 단일하고 적나라하여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육체보다 더 뚜렷해지지 않으려는가? 그대는 자애롭고 만족한 심정을 즐기지 않으려는가? 그대는 충실(充實)하여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열망하지 않으며, 또한 쾌락을 위해서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생명이 없는 것이든 아무것도 욕구하지 않게 되려는가? 더 오래 쾌락을 누리기 위한 시간이나 장소나 쾌적한 환경이나 뜻이 맞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를 더 이상 원하지 않게 되려는가? 오히려 그대는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고 그대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기쁨을 느끼려는가? 그리고 그대는 “나는 모든 것을 갖고 있고 이것은 신이 준 것이며, 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 그리고 완전한 생명체, 곧 착하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자—만물을 생성하고 유지하며, 또한 이것이 분해되면 다시 동일한 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 만물을 포용하는 자—를 보여주기 위해 신들이 일으키는 일은 무슨 일인 나에게 좋은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려는가? 그대는 신들과 인간을 비난하지 않고, 또한 그들의 규탄을 받지 않으며 그들과 화목하게 살려는가?

2 당신이 오직 자연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한,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살펴라. 그리고 당신이 생명체이고,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이 당신을 나쁘게 만들지 않는 한 이 요구를 실천하고 시인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생명체로서 당신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 이 요구에 의해 이성적 동물로서 당신의 본성이 나빠지지 않는 한, 당신 분신의 요구를 허용하라. 그런데 이성적 동물은 정치적(사회적) 동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원칙을 지키고 그 밖의 일로 상심하지 말라.

3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본성적(本性的)으로 견딜 수 있는 방식으로, 또는 본성적으로 견딜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당신이 본성적으로 견딜 수 있는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본성에 따라 참고 견뎌라. 그러나 본성적으로 견딜 수 없는 일이더라도 불평하지 말라. 이 일은 당신을 소모시킨 다음에는 소멸해 버

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신은 본성적으로 모든 일을 견디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참고 견디어 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당신의 의견에 달려 있다. 곧 이 일은 당신에게 유익한 것이며, 또한 참고 견디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해야 한다.

4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히 타이르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라.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신 자신을 탓하거나, 아니면 아무도 탓하지 말라.

5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일은 유구한 옛날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옛날부터 유구한 당신의 존재를 조성(造成)해 왔고 당신의 존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성하고 있다.

6 우주가 원자의 집합이든, 질서있는 체계이든, 우선 나는 자연이 지배하는 만유의 한 부분이라고 확신해야 한다. 그다음에 나는 나와 같은 종류의 것인 다른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하라. 내가 만유의 한 부분인 한, 우주로부터 나에게 할당되는 일에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것이 우주에 유익한 일이라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본성은 앞에서 말한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우주의 본성에는 이 원칙이 외에도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도 있다. 따라서 나는 이러한 우주의 한 부분임을 상기함으로써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나와 같은 종류의 것인 다른 부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한 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며 나와 같은 종류의 것들을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공공의 이익에 해로운 일은 삼가게 되리라. 이와 같은 태도로 일을 처리하라. 그러면 삶은 반드시 행복해지리라.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동료 시민을 위해 유익한 활동을 계속하고 국가가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든 이에 만족하는 시민의 생활이 행복한 것과

마찬가지다.

7 우주의 부분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우주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된다. ‘소멸된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라. 그러나 소멸이 부분에 대해 해가 되고 동시에 불가피한 것이라면, 부분은 변화하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멸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전체는 계속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자연은 고의로 자신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물에 해를 끼치고 악으로 기울어지게 만들고 반드시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연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까? 이 두 가지 가정은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운동의 힘으로서의)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러한 일은 ‘자연적’이라고 말하더라도, 우주의 부분들은 본성적으로 변화하게 마련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마치 자연에 어긋나는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특히 개개의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사물이 분해될 때에—놀라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리라. 왜냐하면 사물의 분해는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소로 흩어지거나, 아니면 고체가 흙으로, 기식(氣息)이 공기로 변해서 부분들이—불에 의한 주기적인 소진(消盡)을 통해서든, 또는 영원한 변화에 의한 갱신을 통해서든—보편적이성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체, 또는 기식이라는 부분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에게 속해 있던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 고체나 기식은 모두 어제나 그저께 음식이나 들이마신 공기로부터 부착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착물은 변화하나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어날 때 어머니에게서 받은 것은 당신을 특수한 변화의 성질을 가진 다른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시킨다고 생각하라. 앞의 말과 상반되지 않는다.

8 착하고 겸손하며 진실하고 이성적이며 침착하고 도량이 큰 사람이라는 명칭을 획득했을 때에는, 이 명칭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이러한 명칭을 잃거든 빨리 회복하도록 하라. 또한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사물을 분별하는 주의력을 의미하고 경솔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침착’은 보편적 본성에

의해 당신에게 부여되는 일을 자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며, ‘도량이 크다’는 것은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육체의 감각을 넘어서서, 그리고 명성·죽음 등으로 불리는 보잘것없는 것을 넘어서서 지성적 부분이 고양(高揚)되는 것임을 잊지 말라.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명칭으로 불리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당신이 이러한 명칭을 보존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종전과 다름없는 인간으로 남아있고 종전과 같은 생활에 젖어서 더럽혀진다는 것은 우둔하고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성으로, 이러한 사람은 마치 야수와 싸우다가 반쯤 넋이 나간 투사—상처에서 흐른 피를 온몸에 뒤집어썼으면서도 또한 내일도 똑같은 발톱과 이빨에 만신창이가 될 것이 뻔한데도 제발 내일까지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투사—와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몇 가지 명칭을 고수하라. 할 수만 있다면 마치 당신이 행복한 사람들로 살고 있는 섬으로 이사라도 간 것처럼 이러한 명칭을 고수하라.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상실하고 충분히 장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명칭을 보존할 수 있는 구석으로 용감하게 물러나거나, 또는 정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단순하고 자유롭고 겸손하게 이 세상에서 떠나가라. 적어도 이와 같은 훌륭한 태도만은 이 세상에 보여 주고 떠나가라. 그러나 이러한 명칭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신들을 생각하고, 신들은 아첨이 아니라 모든 이성적 존재는 신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잊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일을, 개는 개의 일을, 꿀벌은 꿀벌의 일을,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9 미미¹ · 전쟁 · 공포 · 혀탈 · 굴종은 매일 당신의 성스러운 원리들을 지워 버릴 것이다. 자연을 배우지 않은 채 당신은 얼마나 많은 일을 상상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계획했는가?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완벽하게 만드는 동시에, 관조의 능력을 발휘하고 과시하거나 숨기지 않으면서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생긴 확신을 견지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다. 당신은 언제 소박해지고 신중해질 것인가? 또 당신은 언제 개별적인 사물에

1 미미는 로마 무대극의 일종.

대해 그 실체는 무엇이며 우주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며 그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이 사물을 주거나 빼앗아 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데 대한 지식을 획득할 것인가?

10 거미가 파리를 잡았을 때 자랑스러워하듯이, 어떤 사람은 산 토끼를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은 그물로 작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은 멧돼지를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은 곰을 잡았을 때, 어떤 사람은 사르마티아 사람²을 잡았을 때 자랑스러워한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음미해 보면 그들은 강도가 아닐까?

11 만물이 어떻게 서로 변화하는가를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고 끊임없이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이 분야의 철학을 연구하라. 도량이 넓어지는 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육체를 무시한다. 또한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해야 한다는 것을—얼마나 재빨리 다가오는가—알고 있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남겨 놓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전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에 전념하고 그 밖의 일에 있어서는 보편적 본성에 따른다. 그러나 그는 남들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 또는 어떤 비난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는 현재 하는 일이 정의에 어긋나지 않고 또 현재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일에 만족하면 이 두 가지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온갖 열망을 버리고 법칙에 따라 곧바로 전진하고, 이러한 전진에 의해 신의 뜻에 따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2 당시 야만족의 하나. 현재의 폴란드로부터 러시아에 걸쳐 살고 있던 슬라브족의 일족.

12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늘, 어째서 주저하고 두려워하는가? 목적을 명백히 인식하거든 뒤돌아보지 말고 만족한 마음으로 이 목적을 향해 전진하라. 그러나 목적을 명백히 인식할 수 없을 때에는 멈춰 서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의 충고를 들어라. 그러나 어떤 일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으면 사태를 냉정히 고찰하고 정의의 원리를 지키면서 당신의 능력에 따라 전진하라.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고 실패한 때에는 적어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를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사에 있어서 이성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도 활동적이고 쾌활하면서도 침착하다.

13 잠에서 깨어나면 즉시 자문(自問)해 보라, 남들이 비난한다고 해서 정의롭고 올바른 행동이 달라지는가를.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거만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자들은 잠자리에 누워 있거나 식탁에 앉아 있는 자들임을 당신은 잊지 않았으리라. 또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꾀하며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훔치고 빼앗아 가는가를 잊지 않았으리라. 그들은 손이나 발로 훔치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중한 부분, 다시 말하면 원하기만 한다면 성실·겸소·겸손·진리·법칙·착한 신령·행복을 산출할 수 있는 부분(이성)을 이용하여 훔치고 빼앗아 가는 것이다.

14 교양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고 또 거두어 가는 자연을 향해 말한다. “그대가 바라는 것을 주고. 그대가 바라는 것을 거두어 가라”고. 그러나 그는 거만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분고분한 태도로 말하고 자연에 귀의한다.

15 당신의 여생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 산 위에서 사는 사람처럼 생활하라. 인간은 어디서든 이 세상의 국가(정치적 공동체)에서 산다면, 여기서 살든 저기서 살든 차이가 없다. 자연에 따라 사는 진정한 인간을 보여주고 또 인식시켜라. 만일 남들이 이 사람을 싫어하거든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죽이게 하라. 그들처럼 사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16 이미 착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토론할 때는 지났다. 그러한 인간이 되어야 할 때인 것이다.

17 시간의 전체, 실체의 전체를 끊임없이 관조하라. 또한 모든 개별적인 사물은 실체에 비교하면 무화과나무의 열매에 지나지 않고 시간에 비교하면 나사를 한 번 돌리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18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이미 분해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것—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말하자면 부패하고 있고 흩어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만물은 소멸을 본성으로 삼고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

19 사람들이 먹고 잡자고 애를 낳고 배설할 때,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라. 또한 그들이 전제적(專制的)이고 무례하며 높은 자리에 앉아 화를 내고 질책 할 때, 그들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그들이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수다한 사람들에게 속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또한 잠시 후에는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

20 보편적 본성이 각 사물에 부여하는 것은 그 사물에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이 부여하는 바로 그때에 유익한 것이다.

21 “대지는 소나기를 좋아하고 숭엄한 하늘도 소나기를 좋아한다.”³ 그리고 우주도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을 실현시키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나는 우주를 향해 “나도 당신과 같은 기호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 일, 또는 저 일이 야기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하는 말도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

3 에우리피데스의 『단편(斷片)』 중에서 인용.

22 당신이 여기서 사는 데 익숙해졌든, 또는 바야흐로 떠나가려고 하든, 또는 이미 죽어 가는 몸이어서 의무로부터 풀려났든, 그것은 당신의 뜻에 달려 있다. 이 세 가지 경우 이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기운을 내라.

23 이 땅 조각은 다른 땅 조각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산 위에 있는 것, 바닷가에 있는 것, 그밖에 당신이 원하는 어떤 곳에 있는 것과도 동일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산속의 목장에서 살고 있는 목자(牧者)처럼 이 도시의 성벽 안에서 산다”⁴고 한 플라톤의 말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24 지금 나의 지배적 능력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이 능력을 어떤 상태로 가꾸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능력을 어떤 목적에 이용하고 있는가? 이성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을까? 사회생활로부터 동떨어져서 방황하지는 않는가? 이 능력은 보잘것없는 육체로 용해되고 혼합되어서 육체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지는 않는가?

25 주인 몰래 달아나는 자는 도망자다. 그런데 법률은 주인이다. 따라서 법을 어기는 자는 도망자다. 또한 슬퍼하거나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는 자는 만물을 지배하는 자가 지정해준 일, 또는 자금 명령하는 일, 또는 장차 명령하게 될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다. 그런데 만물을 지배하는 자는 ‘법칙’이며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할당한다. 따라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화를 내는 자는 도망자다.

4.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 중에서 인용. 그러나 원문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아우렐리우스가 적당히 고쳐 놓은 것이다.

26 남자는 모태(母胎)에 씨를 뿌리고 떠나간다. 그다음에 다른 원동력이 일을 맡아서 공들여 태아를 키운다. 얼마나 절묘한 일인가! 또한 갓난애가 목으로 음식을 삼키면 다음에는 다른 원동력이 일을 맡아서 지각과 운동을 만들어 내고 생명력과 힘, 그 밖의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런 일은 어디서나 볼 수 있거니와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따라서 이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물체를 상승시키거나 낙하시키는 힘을 보듯이, 이 힘을 주시하라. 육안으로 볼 수는 없더라도 명석하게 인식하라.

27 현존하는 만물과 동일한 사물이 어떻게 과거에도 존재했었는가 하는 점을 항상 숙고하라. 또한 미래에 있어서도 동일하리라는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의 경험을 통해, 또는 옛날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웠든 동일한 형태로 반복되는 연극과 무대 전체를 잊지 말라. 예를 들면 하드리아누스의 궁전 전체, 안토니누스의 궁전 전체, 필립포스, 알렉산드로스, 크로이소스⁵의 궁전 전체를. 이러한 사람들이 보여준 연극도 현재 우리가 보는 연극과 동일하며 다만 배우가 다를 뿐이다.

28 슬퍼하거나 불평을 말하는 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땅을 차고 비명을 올리는 돼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 또한 침대에 묵묵히 누워서 우리를 연결하는 유대를 한탄하는 자도 이 돼지와 같다. 오직 이성적 동물만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자진해서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러나 단순한 순종은 만물에 부과된 필연임을 기억하라.

29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잠시 멈춰 서서 자문해 보라. “죽음은 이런 일들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는 것일까?”라고.

5 크로이소스는 리다아의 메름나스 조(朝)의 최후의 왕(재위 560~546 B.C.). 그는 방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유명하다.

30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화가 났을 때에는 곧 당신 자신을 돌이켜 보고 당신 자신이 그 잘못을 범한 것처럼 반성해 보라. 예를 들면 돈이나 쾌락 같은 보잘것없는 명성 등을 소중히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이러한 점에 주목함으로써 당신은 “이 사람도 강요에 못 이겨서 저지른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화도 재빨리 가라앉게 된다. 또는 가능하다면 그가 당하고 있는 강요를 제거해 주라.

31 소크라테스 학파의 사티론을 보면 에우티케스나 히멘을 생각하고, 에우프라테스를 보면 에우키온이나 실바누스를 생각하며, 알키프론을 보면 트로파이오포로스를 생각하고 크세노폰을 보면 크리톤이나 세베루스⁶를 생각하라. 그리고 당신 자신⁷을 바라볼 때에는 카이사르를 생각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라. 또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도 잊지 말라. 그들은 지금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고, 또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당신은 언제나 인간사(人間事)를 연기요 무(無)라고 생각하게 되리라, 특히 일단 변화한 것은 영원히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리라는 것도 아울러서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당신의 존재는 얼마나 순간적인 것인가? 그런데 왜 당신은 만족한 마음으로 이 짧은 순간을 평탄하게 지내지 못하는가? 활동을 하면서 피해야 할 문제나 기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모든 일을 자세히 관찰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의 본성을 검토해 볼 때, 결국 모든 일은 이성을 훈련하는 소재에 불과하지 않은가? 따라서 튼튼한 위장이 모든 것을 소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빛을 내는 것처럼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까지 인내하라.

32 당신은 남들이 소박하지도, 착하지도 않다는 말을 떳떳이 하는 경우가 없도록

6 에우프라테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총애하던 철학자. 세베루스는 아우렐리우스의 의형제. 크리톤과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 밖의 사람은 불명.

7 이 책은 자성록(自省錄)이다. 따라서 이 책에 나오는 ‘당신’이란 호칭은 사실은 아우렐리우스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저(카이사르)를 생각하라고 한 것이다.

하라. 오히려 당신에 대해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하라. 당신은 이렇게 할 능력을 갖고 있다. 당신이 소박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방해할 사람은 없지 않은가. 소박하고 착하게 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당신이 소박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성도 당신의 생존을 허용치 않을 것이다.

33 이 재료(우리의 생명)를 갖고 우리가 이성에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 일이 어떠한 것이든 당신은 그 일을 수행하거나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방해를 받고 있다는 구실을 붙이지 말라. 당신에게 맡겨지고 눈앞에 닥친 일을 인간의 본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치 쾌락을 추구하는 자가 사치를 탐내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까지 당신의 비탄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본성에 따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진정한 향락뿐이라고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서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원주(圓柱)는 어디서나 고유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물·불, 자연의 또는 비이성적 영혼의 지배를 받는 그 밖의 것들도 마찬가지다. 앞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것들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과 이법(理法)은 모든 장애물을 본성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돌파할 수 있다. 불은 위로 치솟고 돌은 낙하하며 원주는 굴러떨어지는 것처럼, 이성은 만사를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지 말라. 다른 장애물은 모두 시체와 마찬가지인 육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억측으로 말미암아 이성 자체가 굴복하지 않는 한, 이성을 파괴하거나 이성에 해를 입히지 못한다. 만일 이러한 장애물이 당신의 이성에 해를 입힌다면, 이러한 장애를 받는 당신은 당장 나빠질 것이다. 그런데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물들은 해를 입게 되면 심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뜻쓰게 된다. 그러나 똑같은 경우라도 인간은 이러한 돌발사(突發事)를 올바르게 이용함으로써 보다 뛰어난 자, 또는 보다 칭찬을 받을만한 자가 된다. 그리고 끝으로 진정한 국민인 경우에, 국가에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은 그에게도 해를 입히지 못하며 법(질서)에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해를 입히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들

이 재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법에 해를 입히지 못한다. 따라서 법에 해를 입히지 못하는 것이 국가나 시민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다.

34 진정한 원리에 투철한 자는 가장 간결한 교훈, 게다가 진부한 교훈을 들어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는다. 예를 들면, 나뭇잎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 또한 나뭇잎은 마치 믿고 칭찬할 만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 또는 반대로 저주를 퍼붓고 몰래 비난하며 비웃는 사람들, 또한 나뭇잎은 어떤 사람의 명성을 듣고 후세에 전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든 일은 어떤 시인의 “봄이 오면 새싹이 돋는다”⁸는 말과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바람은 새싹을 날려 버리고 다음에는 그 자리에 다른 잎이 돋는다. 그러나 잠시 머무르다 사라져 버리는 운명은 만물에 공통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마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피하고 어떤 일을 추구하는가? 잠시 후에는 당신도 눈을 감게 되리라. 그리고 당신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곧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묻히게 되리라.

35 건강한 눈은 보이는 것 전부를 보아야 하며 푸른 것을 보고 싶다고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푸른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눈이 병들었다는 징후이기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청각, 건강한 후각은 들리는 것, 냄새나는 것 전부를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건강한 위는 물레방아가 방아에 짚을 수 있는 것으면 어떤 것 이든 짚는 것처럼 모든 음식을 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건강한 이성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내 귀여운 자식을 살려 주십시오’ 또는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마치 눈이 푸른 것을 탐내고 이(齒)가 부드러운 것을 원하는 것과 같다.

8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중에서 인용.

36 임종의 자리에서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나 이와 같이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그는 착하고 슬기로운 사람이었다고 가정하자. 그렇지만 “아, 결국은 선생님한테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구나. 선생님은 누구한테나 모질게 굴지는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은 말없이 우리를 질책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 걸”—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나 이것은 훌륭한 사람의 경우다. 우리의 경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지배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따라서 당신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분투하고 기도하며 배려했던 친구들조차도 내가 죽으면 작은 이익이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떠나게 되었구나. 도대체 인간은 ‘왜 좀 더 오래 세상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가?’—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하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불친절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며, 당신의 성품을 지켜 우정에 넘치고 관대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이며 떠나가라. 또한 마치 그들로부터 끊겨 나가는 것처럼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 할 일을 다 하고 편안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 가엾은 영혼은 쉽게 육체로부터 해방되거니와, 당신도 이와 같이 친구들과 이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이 당신을 그들과 맺어주고 사귀게 했으나 이제 자연은 그들과의 인연을 끊어 버리지 않는가? 그렇다. 나는 지금 가까운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지만 저항하면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스스로 떠나가는 것이다. 죽음도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37 가능하다면 남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마음속으로 다음과 같이 물어보는 습관을 길러라. 곧 “무슨 목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라고. 그러나 우선 당신 자신의 행동부터 살피고 당신 자신의 행동을 음미하라.

38 그 (인간이라는 인형의) 줄을 잡아당기는 자가 마음속에 숨어 있다는 점을 명심 하라. 그것은 설득의 힘이고 생명이며, 말하자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당신 자신 을 관조할 때, 당신을 담고 있는 그릇(육체)과 이 그릇에 붙어 있는 도구들은 포함 시키지 말라. 이러한 도구들은 도끼와 같은 것으로, 다만 육체에 붙어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움직이고 저지하는 원동력이 없다 면, 이러한 부분들은 방직공(紡織工)의 북, 작가의 펜, 마부의 채찍과 마찬가지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 11 장

1 이성적 영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곧 영혼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분석하며, 원하는 대로 자기 자신을 바꾸고 자신이 이루어한 성과를 스스로 거두며(식물의 열매나 동물에 있어서 이 열매와 대등한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두지만), 생애의 종말이 언제 닥치든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무용이나 연극 등은 중단되면 그 동작 전체가 불완전해진다. 그러나 이성적 영혼은 이와는 달라서 어디서 중단되더라도 모든 부분이 자기에 맡겨진 역할을 완전히 수행하며, 따라서 “나는 내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성적 영혼은 전 우주와 우주를 둘러싼 공간을 내왕하며 그 형태를 고찰하고, 무한한 시간 속에서 뻗어 나가 만물의 주기적 쇄신(周期的刷新)을 탐구하고 파악한다. 또한 이성적 영혼은 후대의 사람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보는 것은 아니고 또한 전대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본 것은 아니며, 오히려 40세가 되고 조금이라도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존재했고 또 미래에 존재하게 될 만물을, 그 지배적인 제일성(齊一性) 때문에 다 본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이웃과 진리와 겸손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가장 존중하는 것—이것이 이성적 영혼의 특성이며 동시에 법칙의 특성이다. 따라서 올바른 이성과 정의의 이법(理法)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2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신은 즐거운 노래나 댄스나 팬크라티온¹을 경멸하게 될 것이다. 화음(和音)을 개별적 소리로 분해해 놓고 “과연 이 소리들이 나를 매혹시킬 수 있을까?”라고 자문(自問)한다면, 당신은 음악을 경멸하게 될 것이다. 그 소리를 매혹적이라고 자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댄스의 경우에도 하나하나의 동작과 자세를 분리시킨다면 마찬가지다. 팬크라티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당신은 덕과 덕에 의한 행동을 무시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개별적 부분에 전념하게 되고, 이러한 분해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경멸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이 원리를 당신의 전 생애에 적용하라.

1 권투와 레슬링을 겸한 고대 그리스의 경기.

3 어느 순간에 육신에서 분리되어 소멸하거나 흩어지거나 영생하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각오를 갖춘 영혼은 얼마나 훌륭한가. 이러한 각오는 인간 자신의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며 기독교도²처럼 단순히 순종함으로써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각오는 신중하고 품위 있는 판단에 의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비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형성된다.

4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떤 기여를 했는가? 만일 기여한 바가 있다면, 나는 그 보상을 이미 받았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고 잠시도 선행(善行)을 면추지 말라.

5 당신의 기술은 무엇인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보편적 원리들—어떤 것은 우주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인간의 고유한 본질에 관한 것이다—무시하고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6 처음에는 무대에서 비극이 상연되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객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이러한 사건은 자연에 따라 일어나는 필연적 사건이며, 따라서 무대에서 보았을 때에는 당신을 즐겁게 만들던 그 사건이 보다 넓은 무대(인생)에서 실제로 일어나더라도 괴로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다. 당신은 이러한 사건은 반드시 그러한 결말을 맺게 마련이고, 또 “오, 키타이론이여!”³라고 울부짖은 사람조차도 이러한 사건들을 참고 견뎌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또한 비극 작가들은 좋은 말을 많이 남겨 놓았는데, 그중 가장 경청할 만한 말을 예로 듣다면 다음과 같다.

2 기독교도라는 말은 후세에 첨가된 것 같다.

3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중에서 인용. 오이디푸스는 태어나자 곧 키타이론 산에 버려진다. 그러나 목자(牧者)의 은정으로 목숨을 건지고 후에 친아버지를 죽이고 테바이의 왕이 되어 친어머니를 아내로 맞이한다. 이러한 운명은 키타이론 산에서 구원을 받은 데서 비롯되므로 “키타이론이여!”라고 절규한다.

신께서 나와 내 자손을 돌보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⁴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노심초사해서는 안 된다.⁵
벼가 익으면 거둬들이듯 삶을 거둬들여야 한다.⁶

이러한 말은 얼마든지 있다.

비극 다음에는 초기의 희극이 상연되었는데, 희극은 오만하게도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행사했고, 매우 솔직한 표현 때문에 오만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데는 안성맞춤이었다. 이와 같이 솔직한 태도를 취하기 위해 디오게네스⁷도 희극 작가의 형식을 본받았다.

다음에는 중기(中期)의 희극에 대해서 이 희극들이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새로운 희극이 상연되었는가를 검토해 보라. 새로운 희극들은 점차로 단순한 모방적 기교로 타락하고 말았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이 작가들도 좋은 말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 이러한 극작법(劇作法)의 전체적 계획은 결국 어떠한 효과를 노리고 있었던가?

7 철학 하는 데 있어서 현재 당신이 처해 있는 생활 조건보다 더 적절한 생활 조건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명백한 사실인가.

8 나뭇가지를 옆의 나뭇가지로부터 떼어 내면 이 나뭇가지는 반드시 나무 전체로부터 떨어지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때 사회 전체로부터 격리된다. 그러나 나뭇가지는 나뭇가지 아닌 것이 베어내지만, 인간은 이웃 사람을 미워하거나 배신할 때 자신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격리된다. 그러나

4 에우리피데스의 말.

5 에우리피데스의 말.

6 에우리피데스의 말.

7 키니코스 학파의 디오게네스를 말한다. 그는 일곱 편의 비극을 썼다고 전하는데, 작품은 남아 있지 않고 사실 여부도 의심스럽다.

그는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로부터 격리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구성시킨 제우스가 준 특권만은 남아 있다. 이웃과 협력해서 다시 전체의 완성을 돋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리가 자주 일어나면, 이탈자가 다시 복귀해서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끝으로 처음부터 나무와 함께 자라나고 나무와 함께 동일한 생활을 해 온 나뭇가지와 일단 베어낸 다음에 다시 접목시킨 나뭇가지는 같을 수 없다. 정원사는 접목시킨 나뭇가지는 나무와 함께 여생을 보내지만 나무와 똑같은 마음을 갖지는 못한다고 말하거니와, 이 말은 인간에게도 해당된다.

9 당신이 올바른 이성에 따라 행동할 때, 당신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당신을 건전한 목적으로부터 빗나가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관대한 감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라. 오히려 두 가지 문제, 곧 확고한 판단과 행동, 그리고 당신을 방해하거나 그 밖의 일로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들의 방해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은 두려운 나머지 당신의 행동 방향을 빗나가게 하고 물러서는 것과 같이 혀약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공포 때문에 자기 자리에서 이탈하는 자나 본성적으로 동포요 친구인 자들을 껴리는 자나 모두 도망자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0 자연은 결코 인간의 기술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인간의 기술은 사물의 본성을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완전하며 모든 본성을 포섭하는 자연은 재주나 기술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모든 기술은 강자를 위해서 약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본성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에 정의의 근원이 있고 다른 덕은 정의를 토대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중성적 사물(선악과 관계가 없는 사물)을 다루거나, 쉽게 기만당하고 경솔하며 마음이 들떠 있거나 할 때에는 정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1 사물이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고, 이러한 사물의 추구 또는 회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마음이 흐트러지면, 당신 스스로 사물에 다가가라. 그리고 이 사물에 대한 일체의 판단을 삼가라. 그러면 사물도 조용히 머물러 있으리라. 또한 당신이 추구하고 회피하는 태도도 남의 눈에 띠지 않으리라.

12 영혼이 대상을 향해 뻗어 나가거나 안으로 위축되거나 흩어지거나 가라앉지 않고 빛을 통해 진리—만물의 진리와 영혼 자체의 진리—를 보고 밝힐 때, 영혼의 원형(圓形)⁸은 그 형태를 유지한다.

13 어떤 사람이 나를 경멸했다고 가정하자.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나는 경멸받을만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상관하지 말기로 하자. 나는 모든 사람을 온화하고 관대한 태도로 대하고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 주면 된다. 그러나 비난하거나 나의 참을성을 뽐내는 태도를 나타내지 말고 포기온처럼—그가 위선자가 아니었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이다—우아하고 정직한 태도로 잘못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인간의 열등한 부분은 이와 같이 되어야 하며 신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본성에 알맞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리고 당신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성취되어야 할 일을 하도록 현재의 위치에 배치된 인간이므로 이 순간에도 우주의 본성에 따라 일어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면, 당신이 어째서 해를 입겠는가?

14 사람들은 서로 비웃으면서 서로 아첨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각기 뛰어나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겸양의 덕을 보인다.

8 고대 그리스인들은 원형이 가장 완전한 형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가장 숭고한 영혼의 형태는 원형이라고 생각했다.

15 “나는 공정한 태도로 당신을 대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량하고 성실치 못한가. 인간이여, 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앞에서 말한 것은 주의를 환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 아닌가. 저절로 밝혀질 사실인 것이다. 이런 태도는 이미에 분명히 적혀 있다. 마치 애인은 애인의 눈에서 모든 것을 판독하듯이, 자기의 마음가짐을 즉시 눈에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성이다. 정직하고 착한 사람은 강한 향기를 풍기는 사람과 같아서 그의 옆으로 가까이 오는 사람은 싫든 좋든 이 냄새를 맡게 마련이다. 그러나 소박한 체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늑대의 우정(거짓 우정)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이러한 우정을 피하라. 착하고 소박하며 관대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마음가짐을 눈에 나타내며 여기에는 조그만 착오도 있을 수 없다.

16 당신의 영혼이 선악과 관계없는 사물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가장 훌륭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은 당신의 영혼 속에 간직되어 있다. 영혼이 선악과 관계없는 사물을 개별적으로 보든, 총괄적으로 보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심한다면 무관심한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이러한 사물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사물들에 대한 의견을 형성시키지 못하고 이 사물들은 부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며, 이 사물들에 대한 판단을 형성하는 자는 우리 자신이다. 말하자면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판단을 내리고 마음속에 기록해 놓았어도 이를 지워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건만, 그대로 기록에 남겨 두고 있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또한 잠시 동안만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면 되고 삶은 곧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러한 태도를 취한다면 번거롭게 살 필요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사물들이 자연에 따르는 것이면 이를 즐겨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하리라. 그러나 자연에 어긋나거든 당신의 본성에 맞는 일을 찾아라. 비록 그것이 명성을 얻게 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노력을 기울여라. 각자에게는 각자의 선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17 만물은 어디서 생기고 무엇으로 구성되었으며, 무엇으로 변하고 변한 다음에는 어떤 것이 되는가를 생각하라. 또한 이러한 사물들은 해(害)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명심하라.

18 화가 났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첫째, 나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돋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또한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양 떼는 수놈이 감독하고 소 떼는 황소가 감독하듯이 나는 그들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만물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는 자는 자연이다. 그렇다면 약자는 강자를 위해 존재하고 강자끼리는 서로 돋게 마련이다”라는 제1원리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고찰하라.

둘째, 식탁에 앉아 있거나 잠자리에 들어 있거나 할 때, 그들이 어떤 인간들인가를 생각해 보라. 특히 그들의 의견이 어떠한 강요에 의해 형성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자만심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라.

셋째, 그들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경우에는, 그들은 억지로, 또는 무지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영혼은 억지로 진리를 빼앗기는 것처럼, 각자가 그 나름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도 억지로 빼앗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부정하다든지, 감사할 줄 모른다든지, 탐욕스럽다든지, 한마디로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때 고통을 느낀다.

넷째, 당신도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다른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라. 가령 당신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겁하거나 명성에 대한 관심,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동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 하더라도, 당신에게는 아직도 잘못을 저지를 경향은 남아 있다.

다섯째, 당신은 그들이 정말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모르고 있다. 대체로 무슨 일이든 환경과의 관련 밑에서 행해지기 때문이다. 요컨대 다른 사

람의 행동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여섯째, 뽁시 괴롭거나 슬플 때에는 인간의 생애는 한순간에 지나지 않고 잠시 후에 우리는 모두 땅속에 묻히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하라.

일곱째,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지배적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의견이 우리를 괴롭힌다. 따라서 이러한 의견을 버리고 그러한 행동을 극악으로 여기는 당신의 판단을 삼가도록 결심하라. 그러면 분노는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러한 의견을 버릴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광신이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수치가 악이 아니었더라면, 당신도 반드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 것이고 강도도 되고 그 밖의 것도 되었을 테니까.

여덟째, 우리가 화를 내거나 귀찮아하는 행동 자체보다도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분노나 괴로움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라.

아홉째, 착한 마음은 거짓 미소나 연기가 아니고 순수한 것이라면 무적의 절임을 명심하라.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는 사람에게 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용히 타이르며 당신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면 “여보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당신 자신이 해를 입게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잘못을 침착하게 바로잡아 준다면, 가장 난폭한 사람도 당신에게 해를 입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부드럽고 재치 있게 보편적 원리에 의해 앞에서 한 말이 사실이며, 꿀벌이나 그 밖의 군거(群居)하는 본성을 가진 짐승들도 그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타일러라. 그러나 빈정거리거나 나무라지 말고 아무 원한도 품지 않은 정다운 태도로 타일러야 한다. 또한 마치 훈계하거나, 동석한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가 혼자 있는 틈을 타서 타일러야 한다.

이상의 아홉 가지 원칙은 뮤즈가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 있는 동안은 참된 인간이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라. 그러나 사람들에게 아첨하거나 그들을 귀찮아해

서는 안 된다. 이러한 태도는 비사회적인 태도이고 결국은 화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격렬한 분노로 흥분한 순간에도 정념에 흔들리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며, 온화하고 관대한 태도는 인간의 본성에 더 잘 어울리는 것인 동시에 남자답기도 하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라. 그리고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힘과 강인성과 용기를 갖고 있으나, 정념과 불만의 변덕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의 마음은 정념으로부터 해방되면 될수록 더욱 강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고통이 무력감(無力感)을 나타내듯이 분노도 무력감을 나타낸다. 고통에 굴복하는 자나 분노에 굴복하는 자는 상처 입은 자요 항복한 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이 원한다면 뮤즈의 지도자(아폴로 신)의 열 번째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열 번째 선물은 다음과 같다. 나쁜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광인이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방관하면서 당신에게는 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비합리적이고 폭군적인 태도다.

19 당신이 끊임없이 조심해야 할, 탁월한 능력[이성]의 네 가지 중요한 일탈 현상(逸脫現象)이 있다. 이러한 일탈 현상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고 그때마다 이렇게 말하라. “이 사상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상은 자칫하면 사회적 단결을 파괴하기 쉽다. 이 사상은 내가 진정한 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간이 자신의 진정한 사상을 말하지 않는 것은 가장 불합리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네 번째 일탈 현상은 당신이 어떤 일로 해서 당신 자신을 비난할 때 야기된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비난한다는 것은 당신 마음속의 신성한 부분[이성]이 가장 불명예스럽고 사멸하게 마련인 부분, 곧 육체와 그 야비한 탐욕에 압도당하고 굴복했다는 역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20 당신의 기식(氣息), 그리고 당신 체내에 흘어져 있는 불의 원소들은 원래 상승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주의 배치에 순종하여 여기, 복합적 조직(육체) 속에 갇혀 있다. 또한 당신 체내에 있는 흙의 원소나 물의 원소는 모두 낙하하는 성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가서 본래의 성질에 어긋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원소들은 보편적 본성에 순종하고 있다. 이 원소들은 어떤 장소에 일단 강제로 배치되면 보편적 본성이 다시 분해의 신호를 울릴 때까지는 그 자리를 피탈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지성적 부분만이 반항하고 자신의 위치에 불만을 말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지성적 부분에는 어떠한 강제도 가해지지 않고 당신의 지성적 본성에 맞는 일만이 일어난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순종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부정, 무절제, 분노, 비통, 공포 등을 지향하는 움직임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일탈하는 자의 행동이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적 부분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불만을 느낄 때 자기 위치에서 이탈한다. 원래 지배적 부분은 신과 정의를 경애(敬愛)하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품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총체적 만족에 포섭되는 것이 사실상 정의로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21 생의 목적이 항상 동일하지 못한 사람은 생애를 통해서 한결같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보충 설명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한 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으나 다만 한 가지 일, 다시 말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통되는 (사회적인) 정치적 목표를 우리 자신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노력을 이러한 목적에 기울이는 사람은 그 행동이 한결같고 따라서 그 자신도 변함이 없을 것 이기 때문이다.

22 시골 쥐와 서울 쥐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서울 쥐의 경계심과 공포를 생각해 보라.⁹

23 소크라테스는 대중의 의견을 라미아¹⁰라는 이름으로 불렀는데, 라미아는 어린 애들이 무서워하는 도깨비다.

24 라케다이몬 사람들은¹¹ 공식 행사 때 외국 손님의 자리를 그늘에 마련하고 그들 자신은 아무데나 앉았다.

25 소크라테스는 페르디카스¹²의 초대를 받았을 때 “나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싶지는 않다”는 구실로 거절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은혜를 받고 보답하지 못 할 바에는 처음부터 은전(恩典)을 거절하겠다는 것이다.

26 에페소스¹³ 사람들의 저술에는 덕을 실천한 선인(先人) 중의 한 사람을 항상 생각하라는 교훈이 있다.

27 피타고拉斯 학파에는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라는 규칙이 있다. 영원히 동일한 상태로 동일한 방식에 따라 운동하는 저 천체들을 상기하고 또한 그 순결성과 적 나라한 모습을 상기하기 위해서였다. 별을 가리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9 《아이소포스(Aisopos) 우화》에 나오는 시골 쥐와 서울 쥐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듯하다.

10 고대 그리스의 민간 전설에 나오는 괴물.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피를 뺏아먹는다.

11 스파르타 사람들을 말한다.

12 마케도니아의 왕으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

13 고대 그리스의 이오니아 지방의 도시. 헤라클레이토스의 고향.

28 크산티페¹⁴가 소크라테스의 망토를 갖고 나갔을 때 소크라테스가 양가죽을 입고 나온 모양을, 또한 친구들이 그의 옷차림을 보고 부끄러워서 달아났을 때 그가 친구들에게 한 말을 상상해 보라.

29 읽고 쓰는 데 대해서 당신 자신이 숙달되기 전에는 남을 가르치지 말라. 인생에 대해서 이 말은 훨씬 더 타당하다.

30 “당신은 노예다. 따라서 자유로운 언론은 당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¹⁵

31 “그리고 내 마음은 몰래 웃었다.”¹⁶

32 “그는 거친 말로써 덕을 저주하게 되리라.”¹⁷

33 “겨울에 무화과를 찾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다. 아이를 낳지 못할 나이가 되었으면서 아이를 바란다면, 그 사람도 역시 미친 사람이다.”¹⁸

34 에피테토스가 말했다. “어린애와 입을 맞출 때에는 ‘아마도 내일은 너도 죽을 거야’라고 중얼거려라. 그러나 이 말은 불길한 말이 아닌가. 역시 에피테토스가 말했다. 자연의 작용을 표현하는 말에는 불길한 말이 없다. 만일 이런 말이 불길하다면 벼 이삭이 익었다고 하는 말도 불길한 말이다.”

35 “델 익은 포도, 무르익은 포도송이, 건포도—이러한 모든 것은 변화이다. 그러

14 소크라테스의 아내. 이 이야기는 출처 불명의 이야기다.

15 비극 작가의 작품에서 인용한 말인 듯하나 출전 불명.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중에서 인용.

16 헤시오도스의 『일과 나날』 중에서 인용.

17 에피테토스의 『어록(語錄)』 중에서 인용.

18 에피테토스의 『어록(語錄)』 중에서 인용.

나 무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없던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다.”¹⁹

36 “아무도 우리의 자유 의지를 빼앗지 못한다.”²⁰

37 “사람은 동의(同意)하는 기술(또는 원칙)을 발견해야 한다. 또는 욕구에 대해서는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관심과 일치하고 대상이 갖는 가치에 부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는 이를 전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또한 거부(혐오)의 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이러한 태도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²¹

38 “이 논쟁은 공통된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한 것이다.”²²

39 소크라테스는 늘 이런 대화를 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이성적 인간의 영혼인가, 아니면 비이성적 인간의 영혼인가?” “이성적 인간의 영혼입니다.” “이성적 인간 중의 어떤 인간인가? 건전한 인간인가, 또는 불건전한 인간인가?” “건전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은 그러한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는 이미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싸우고 말다툼을 하는가?”²³

19 에픽테토스의 《어록(語錄)》 중에서 인용.

20 에픽테토스의 《어록(語錄)》 중에서 인용.

21 에픽테토스의 《어록(語錄)》 중에서 인용.

22 에픽테토스의 《어록(語錄)》 중에서 인용.

23 출전 불명.

제 12 장

1 당신이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이제 우회로를 통해 도달하고자 한 모든 목적물을 획득할 수 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미래는 섭리에 맡겨 둔 채 경건하고 정의롭게 현재에 충실하다’는 뜻이다. 당신에게 부여된 운명—자연은 당신을 위해 운명을 설계했고 운명을 위해 당신을 탄생시켰다—에 만족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한다. 항상 자유롭고 숨김없이 진리를 말하고 법칙에 따라서 각자의 보람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워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사악(邪惡), 어떤 의견 또는 평판,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보잘것없는 육체의 감각 등이 당신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러한 수동적 부분은 방해할 틈을 엿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언제 닥치든, 당신의 지배적 부분(이성)과 마음속의 신성(神性)만을 존중하고 그 밖의 일은 모두 무시한다면, 또는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자연에 따라 사는 생활을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당신을 탄생시킨 우주에 알맞은 인간이 될 것이고 조국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매일매일의 사건에 대해 마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처럼 경악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2 신은 물질적인 외양이나 외피, 불순물을 벗겨 낸 다음, 적나라한 상태에서 모든 인간의 정신(지배적 원리)을 검토한다. 신의 이성적 부분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와 인간의 육신으로 흘러들어 간 인간의 이성뿐이기 때문이다. 당신도 신처럼 육체를 무시한다면, 허다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보잘것없는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은 옷, 집, 명성, 그 밖의 외부적인 사치 때문에 변민하는 일은 없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3 당신은 작은 육체, 덧없는 기식(氣息·생명), 이성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육체와 기식은 그것을 돌보는 것이 당신의 의무인 동안에만 당신의 것이고 이성만이 당신의 본질적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당신 자신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당신의 이성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언행(言行), 당신의 과거의 언행, 장래의 일로서 당신

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육체 및 본성적으로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기식(생명)에서 생겨나서 당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당신에게 부속되어 있는 것들, 소용돌이치며 맴도는 외부의 혼란 등을 분리시키고, 그래서 지성적 능력이 운명적인 사물들에 대한 면역성을 갖게 되며, 깨끗하고 자유롭게 살며 올바른 일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말한다면, 다시 말하면 당신의 지배적 능력으로부터 감각적 인상에 의해 부착된 것, 미래의 일과 과거의 일을 분리시키고 엠페도클레스가 말하는 자신을 둘러싼 고독을 즐기고 또한 완전히 둑근 구체¹(球體)로 되어 진정한 당신의 삶을 살기 위해, 곧 현재에만 충실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은 임종의 사각까지 남은 생애를 마음의 동요 없이 고상하게, 당신 자신의 신령(당신 마음속에 있는 신)에게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다.

4 누구는 자기 자신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어째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자기의 의견보다 다른 사람과의 일을 더 존중하는가? 나는 이 점을 의아하게 생각해 왔다. 만일 신이나 현명한 스승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서 생각하자마자 말로 나타낼 수 없는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존중한단 말인가?

5 신은 인류를 위해서 관대하게도 매사를 잘 조정해 놓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 게다가 매우 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신과 가장 깊이 사귀고 경건한 행동과 종교적 의식을 통해 신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다시는 태어나지 못하고 완전히 소멸해 버린다는 이 사실을 신이 어떻게 간과할 수 있었을 것인가?

1 고대 그리스인들은 구형을 가장 완전한 형체로 보았고 따라서 인간의 최고 부분인 영혼도 구형이라고 보았다. 여기서는 완전하고 순수한 영혼이라는 뜻.

그러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신에게 다른 방도가 있었다면 그 방도를 택했을 것이 틀림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린 일도, 자연에 따르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이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가장 착한 사람들도 완전히 소멸해 버리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확신하라. 당신의 지금 이 문제는 신들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올바르지 않다면 신과 담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신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올바르다면 신들은 우주의 질서를 세울 때 정의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일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6 도저히 달성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말라. 연습 부족 때문에 다른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원손도 말 굴레만은 바른 손보다 더 힘차게 붙잡지 않는가. 원손은 이 일만은 늘 연습해 왔던 것이다.

7 인간이 죽음에 압도당할 때, 그 육체와 영혼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리고 생명의 덧없음, 과거와 미래로 뻗은 시간의 무한한 심연(深淵), 모든 물질의 취약함을 생각하라.

8 걸껍데기를 벗겨 내고 사물의 형상적(形相的) 원리(형상)를 관조하라. 사물의 여러 가지 활동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음미하라. 고통은 무엇이며 쾌락 · 죽음 · 명성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인간은 누구 때문에 불안해지는가를 생각하라. 어째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가를 생각하라. 모든 것은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9 당신의 원리를 적용할 때, 당신은 검객(劍客)이 아니라 레슬링 선수처럼 행동해야 한다. 검객은 손에 쥔 칼을 놓치면 죽게 되지만, 레슬링 선수는 손을 사용할 수만 있으면 그 밖의 것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10 사물을 물질·형상·목적으로 구분하고, 이 사물을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인가를 검토하라.

11 신이 허용하는 일만 하고 신이 부여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은 얼마나 고상한가.

12 우리는 자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을 비난하지도 말고(신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잘못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는 인간을 비난하지도 말아야 한다(인간은 무지하지 않으면 잘못을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13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는 일에 깜짝 놀라는 자는 얼마나 우습고 이상한 사람인가.

14 이 우주에는 운명적 필연성과 불가침의 질서 또는 자비로운 섭리가 있을 뿐이거나, 아니면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는 혼란이 있을 뿐이다.² 만일 불가침의 필연성이 있을 뿐이라면 우리는 왜 저항하는가? 그러나 화해(和解)가 가능한 섭리가 있다면,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라. 그러나 지배자 없는 혼란이 있을 뿐이라면 이러한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은 지배적 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만족하라. 그리고 폭풍우가 당신을 휩쓸어 가더라도 보잘것없는 기식, 그 밖의 것은 휩쓸어 가게 하라. 적어도 이성만은 휩쓸어 가지 않을 것이다.

15 등불은 꺼질 때까지 광채를 잃지 않고 빛난다. 그런데 당신 마음속의 진리와 정의와 절제가 당신의 죽음에 앞서서 사라질 것인가?

2 제4장 27항 참조.

16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에는 자문(自問)해 보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임을 아는가?”라고. 그리고 설사 그가 정말로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가 자신을 단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아는가? 만일 스스로 단죄하고 있다면 “자기 얼굴을 할퀴는 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라. 악한으로 하여금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은 마치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를 열지 못하게 하고 갓난아이가 울지 못하게 하며 말이 울부짖지 못하게 하고 그 밖의 필연적인 일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과 같다. 악한은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당신이 성급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성질을 고쳐라.

17 올바른 일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 진실한 말이 아니면 말하지 말라. 욕구는 언제나 당신으로부터 나오고 당신에게 속해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³

18 어떤 사물을 보든, 항상 당신에게 현상화(現象化)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항상 질료, 목적 그 현상이 사라지게 될 시간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밝혀내라.

19 당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결과를 야기하는 것, 말하자면 당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신성한 것이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왔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공포, 또는 의심, 또는 욕망,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20 첫째, 경솔하게 목적 없이 행동하지 말라. 둘째 사회적 목적과 관련되지 않는 행동은 하지 말라.

3 조지 롱의 영역에는 “당신의 노력은 다음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이하의 원문이 결손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의 번역에는 “욕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했다.

21 머지않아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당신의 눈앞에 있는 현존하는 사물도, 또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물들도 머지않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다른 사물들이 끊임없이 계기(繼起)하기 위해서, 만물은 변화하고 전환하며 소멸하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22 모든 것은 의견에 지나지 않고, 의견은 당신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 따라서 당신이 원할 때에는 의견을 포기하라. 그러면 당신은 선원처럼 온화하고 안정되며 파도가 없는 항구를 발견할 것이다.

23 그것이 어떤 행동이든 적절한 때에 행동을 그만둔다면, 이 행동을 중단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또한 이 행동을 하던 사람도 이 행동이 중단되었다고 해서 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체, 곧 우리의 생명도 적절한 때에 중단된다면, 중단되었다고 해서 해를 입지는 않는다. 또한 일련의 행동을 적시에 그만두는 사람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적절한 시간과 한계는 자연이 결정한다. 노령의 경우처럼 인간의 특수한 본성이 결정하는 때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보편적 본성이—본성의 각 부분의 변화에 의해서 전 우주는 항상 싱싱하고 완전할 수 있다—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편적 본성에 유익한 것은 언제나 좋은 것이고 적절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자 생명의 중단은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고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지도 않으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따라서 악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적시에 일어난 것이고 보편적 본성에 유익하며 또 일치하는 것이므로 선이다. 따라서 신과 같은 길을 가고 충심으로 신과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는 자는 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다.

24 항상 다음의 세 원칙을 지켜라. 행동에 있어서는 경솔하거나 정의 자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말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연히 또는 ‘섭리’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연을 탓하거나, ‘섭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씨가 뿌려진 때로부터 영혼을 받기까지, 영혼을 받았다가 이를 되돌려 줄 때 까지 모든 존재는 어떠한 상태에 있고 모든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 분해된 다음에는 무엇이 되는가를 생각해 보라. 셋째, 갑자기 하늘 위로 올라가서 인간사를 굽어보고 인간사가 얼마나 다기다양한가를 깨닫는다면, 또한 동시에 공중과 하늘에 살고 있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가를 한눈으로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하늘 위로 올라올 때마다 동일한 사물, 동일한 모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것들이 얼마나 덧없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까?

25 의견을 버려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도대체 당신이 의견을 포기하는 것을 누가 방해할 것인가?

26 지금 당신이 괴로워한다면 당신은 만물이 보편적 본성에 따라 생겼다는 사실을 잊고 있으며, 남의 잘못은 당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항상 이와 같이 일어났고 장차도 그럴 것이며, 지금도 도처에서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개인과 전 인류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잊을 수 없는 까닭은 인류가 보잘것없는 피나 씨앗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성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당신은 인간의 이성이 바로 신이며 신성(神性)의 유출이라는 것을 잊고 있으며, 당신 자신의 소유물은 하나도 없고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육신도, 당신의 영혼까지도 신성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고 있다. 모든 것은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잊고 있고, 각자는 현재를 살 뿐이며 잃는 것도 오직 현재뿐이라는 것을 잊고 있다.

27 엄청난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 찬란한 명성, 또는 재난이나 적의, 또는 그 밖의 운명 때문에 가장 이채로웠던 사람들을 끊임없이 상기하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 연기요, 재(灾)요, 전설적인 인물이 되고 말지 않았는가. 전설적 인물에 끼이지 못한 자도 있다. 그리고 파비우스 카를리누스는 전원(田園)에서, 루키우스 루푸스는 정원에서, 스테르티니우스는 바이아이에서, 티베리우스는 카프리아에서, 그리고 벨리우스 루푸스⁴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러한 모든 일을 명심하라. 그리고 어떤 일을 열렬히 추구하는 것은 자만심과 관련되어 있으며, 열렬히 추구하는 대상은 무가치하기 그지없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리고 인간이 주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올바르고 절도 있게 살며 신에게 복종하고, 게다가 소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철학적 생활임을 잊지 말라. 자만심이 없다고 자랑하는 자만심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28 “당신은 어디서 신들을 보았는가? 신들은 존재하며 따라서 신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겠다. 첫째, 우리는 눈으로 신들을 볼 수 있다.⁵ 둘째, 나는 내 영혼을 본 적이 없지만 영혼은 존중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신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권능(權能)을 경험하고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신들을 섬긴다.

29 모든 사물에 대해서 그것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 질료는 무엇인가, 그 형상은 무엇인가를 철저히 검토하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말하는 것—여기에 인생의 구원이 있다. 좋은 일을 다른 좋은 일과 연결시켜서 조그만 틈도 남기지 않도록 사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일이 남아 있을까?

30 벽, 산, 기타 무수한 것이 햇빛을 가로막지만 햇빛은 유일하다. 여러 가지 성질

4 파비우스 카를리누스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치하의 집정관이었던 듯하고, 루키우스 루푸스는 불명. 스테르티니우스는 네아포리스(현재의 나폴리)의 부유한 상인이었고, 티베리우스와 벨리우스 루푸스는 불명.

5 천체를 신성한 것으로 보는 스토아 사상과 관련된 말인 것 같다.

을 가진 무수한 물체에 분배되기는 하지만 공통된 실체는 하나뿐이다. 무수한 본성과 개별적인 한계(개체)에 분배되기는 하지만 영혼은 하나뿐이다. 이성적 영혼은 분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성적 영혼은 하나뿐이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들의 다른 부분들, 곧 기식(氣息)이나 물질은 모두 감각도 없고 상호 관련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적 원리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결합시키고 동일한 목적을 향해 끌어당긴다. 그러나 이성은 독특한 방법으로 동류(同類)에게 끌리고 결합하며 일체감은 방해받지 않는다.

31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영생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감각을 유지하고 싶은가? 욕구도, 성장도? 혹은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은가? 언어 사용 능력은 보존하려는가? 사고 능력도 보존하려는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당신이 바랄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경멸해도 팬찮은 것이라면 나머지 것을 바라보라. 그것은 이성에 따르고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빼앗길까 걱정된다면, 그것은 이성과 신을 존중하는 태도와는 모순된다.

32 무제한하고 헤아릴 수 없는 시간과 비교해 보면 각자에게 할당된 시간은 순식간에 영원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이다. 또한 물질 전체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작은가? 또한 보편적 영혼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작은가? 그리고 지구 전체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기어 다니는 훑덩어리는 얼마나 작은가?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오만하게 굴지 말라. 오직 당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보편적 본성이 야기하는 일을 참고 견뎌라.

33 지배적 능력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모든 것이 이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그러나 그 밖의 모든 일은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든, 단지 생명 없는 재이며 연기일 뿐이다.

34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주장한 사람들⁶ 조차도 죽음을 경멸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경멸이 더욱 촉진될 것이다.

35 적시에 일어난 일만을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올바른 이성에 따르기만 한다면 성취한 일이 많은 적든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계를 관조해 온 시간의 장단(長短)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죽음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다.

36 인간이여, 그대는 이 거대한 국가[세계]의 시민으로 살아왔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5년이든 3년이든 차이가 없지 않은가? 법칙에 맞는 일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국가에서 당신을 몰아내는 자가 폭군이나 부정한 재판관이 아니고 당신을 이 국가에 탄생시킨 자연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마치 집정관(執政官)이 배우를 채용했다가 무대에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5막까지 있는 극에서 3막까지만 출현했다.”—당신이 이렇게 말한다면 일리는 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3막으로도 연극 전체가 완료될 수 있다. 언제 연극을 완료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는 일찍이 이 연극을 구성했고, 지금은 이 연극을 중단시키는 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연극의 구성이 나 완료에 대해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만족한 마음으로 떠나가라. 당신을 떠나가게 하는 자도 틀림없이 만족할 것이다.

6 에피쿠로스를 시초로 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자들을 말한다.

지은이 소개 |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121~180)

로마 제16대 황제. 5현제(賢帝)의 마지막 황제로, 후기 스토아 철학자이다. 로마에서 출생하였으며 안토니누스 피우스 황제의 양자가 된 후 일찍부터 로마의 집정관이 되었고, 161년 안토니누스의 뒤를 이어 로마 황제로 즉위하였다. 180년 다뉴브 강변의 진중에서 사망하였다. 『명상록』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스토아적 철인의 정관(靜觀)과 황제로서의 격무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애조(哀調)를 담았다.

옮긴이 소개 | 황문수

고려대학교 철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실존과 이성』 『고균 김옥균』 『동학운동의 이해』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칼 앤스퍼스의 『이성과 실존』, 윌리엄 드레이의 『역사철학』, 윌 듀랜트의 『철학이야기』, 프리츠 하이네만의 『실존철학』, F. 파펜하임의 『현대인의 소외』,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인간의 마음』, H. 스튜어트 휴즈의 『의식과 사회』 외 다수가 있다.

명상록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2월 15일

펴낸이 | 흥정우

기획 · 편집 | 이상민 황인정

표지제작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 · 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23-5 03160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라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